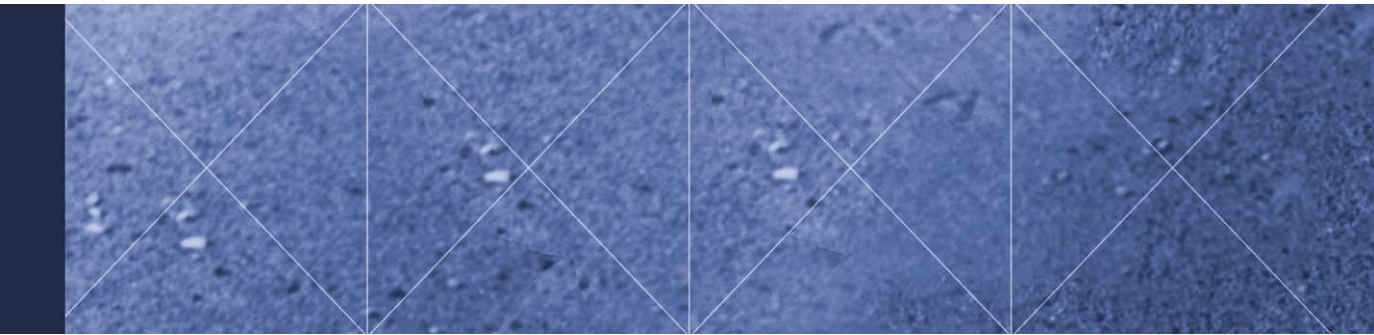


2007 국토연구원 연차보고서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뿌리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국토연구원은 국토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개발, 보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구·발전시켜
각급 공간계획의 수립에 기여함을 추구하는 흔들림 없는 국토정책의 선구자가 되겠습니다.

[발간에 즈음하여]



2007년은 참여정부의 정책을 마무리하는 실질적인 마지막 해였습니다. 전 정부에서는 그동안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주의’, ‘더불어 함께 사는 균형발전 사회’,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를 3대 국정 목표로 하여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국토분야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기업도시, 공공기관 지방이전, 혁신도시 건설 등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정목표는 국토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개발·보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구함으로써 국민 삶의 향상에 기여한다는 국토연구원의 설립목적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국토연구원에서는 정부의 이러한 국정목표가 효과적이고 성공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의제를 발굴하고, 정부정책을 선도·지원하기 위한 많은 연구들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2007년도를

‘아름다운 국토, 행복한 국민의 해’로 정하고, 정부의 이러한 국정목표를 실현하고 뒷받침하기 위하여 많은 연구들을 수행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과 관련해서는 수도권 계획적 관리,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건설을 주제로 많은 연구들을 수행하였습니다. 수도권 관련 주요 연구로는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연구’, ‘수도권 고속도로망 구축 실행계획 연구’ 등이 있고, 균형발전 관련 주요 연구로는 ‘지방분산·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대응과제(Ⅲ)’,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전략 클러스터산업 촉진방안’, ‘균형발전의 공간적 영향과 정책과제’ 등이 있습니다. 혁신도시·기업도시와 관련된 주요 연구로는 ‘혁신도시 개발을 위한 계획기준 연구’, ‘기업도시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 ‘혁신도시 건설비용 추정 및 재원조달방안 마련을 위한 조사·연구(2차)’ 등이 있습니다.

동북아 중심국가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동북아 구상 실현과 동북아 공동체 형성 등을 주제로

한 연구도 수행하였습니다. 동북아 관련 주요 연구로는 '한반도 기반시설 개발의 기본구상 연구(II)', '동북아 핵심경제지역의 발전 전망과 연계망 구축(I)', '글로벌시대의 국토정책과 동북아 도시 간 연계·협력 방안 연구' 등이 있습니다.

또한, 2006년도에 이어 사회통합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토지·주택 등 서민 주거안정, 삶의 질 제고 및 살고 싶은 국토환경 조성을 위한 관리 등을 주제로 국정과제와 관련된 연구들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부동산 관련 주요 연구로는 '노인주거복지 제고를 위한 중합계획 수립 연구', '부동산 시장의 환경변화에 대응한 정책방향 연구', '선진사회를 향한 토지정책 방향 및 추진전략 연구(II)' 등이 있습니다. 삶의 질 제고 및 살고 싶은 국토환경 조성과 관련된 주요 연구로는 '미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국토 어메니티 발굴과 창출전략 연구',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II): 커뮤니티 중심의 도시정비 활성화 방안',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II): 시민이 참여하는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사례편)'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국토연구원의 설립목적과 운영 취지에 부합하는 총 190여 건의 과제를 수행하였습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연차보고서에는 지난해 국토연구원

의 연구진들이 열과 성을 다하여 수행한 주요 연구과제들의 골자가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연차보고서를 발간하는 것은 한 해 동안의 연구성과들을 정리하고, 요약·발표함으로써 연구진 스스로 새로운 연구수행을 위한 자성의 계기로 삼을 뿐만 아니라 수행한 주요 연구결과들이 각계 각층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널리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국토연구원은 앞으로도 국토의 이용과 보전에 관한 전문연구기관으로서 정부가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는 국토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선도해 나아갈 것입니다. 그동안 국토연구원에 대해 많은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던 관련분야 전문가와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07년에 수행한 연구과제들의 공과 실에 대해 평가해 주시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우리 국토연구원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끊임 없는 관심과 많은 조언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3월
원장 최병선

최병선

Contents

Chapter I	일반현황	8
	1. 설립목적 및 주요 기능	10
	2. 조직 및 인원	11
	3. 2007년도 연구사업 수행실적	13
	4. 2008년도 연구방향	14
Chapter II	분야별 주요 연구	16
	1. 국토·지역연구실	19
	2. 국토환경·문화연구실	29
	3. 도시연구실	35
	4. 토지·주택연구실	39
	5. 교통연구실	53
	6. SOC·건설경제연구실	61
	7. 국토정보연구센터	67
	8. 동북아발전연구센터	73
	9. 도시혁신지원센터	77
Chapter III	국제협력사업	80
	1. 국제공동연구사업	82
	2. 국제연수교육	99
	3. 국제학술교류	103
Chapter IV	연구지원사업	104
	1. 연구혁신활동	106
	2. 국토연구원 연구관리시스템(PMS) 도입	108
	3. 부설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 설립	110
	4. 도로정책연구센터 설립	111
	5. 제6회 국토연구 우수논문상 시상	112

6. 제12회 전국초등학생 국토사랑 글짓기대회 개최	113
7. 기획단행본 발간	114
8. 연구관련 주요 행사·교육	115

Chapter V	정기간행물 목차	124
1. 국토(303호~315호)		126
2. 국토연구(52권~55권)		136
3. 건설경제(51권~54권)		138
4. 국토정책Brief(121호~163호)		140
5. 도로정책Brief(1호~2호)		143

Chapter VI	부서 소개	144
1. 원장·부원장		146
2. 국토·지역연구실		149
3. 국토환경·문화연구실		157
4. 도시연구실		161
5. 토지·주택연구실		165
6. 교통연구실		171
7. SOC·건설경제연구실		177
8. 국토정보연구센터		181
9. 동북아발전연구센터		187
10. 도시혁신지원센터		191
11. 행정부서		195

Appendix	색인	197
1. 과제명 색인		198
2. 연구자명 색인		200

일반현황

1. 설립목적 및 주요 기능	10
2. 조직 및 인원	11
3. 2007년도 연구사업 수행실적	13
4. 2008년도 연구방향	14

1. 설립목적 및 주요 기능

■ 설립목적

국토연구원은 국토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개발·보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구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민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1978년에 설립된 정책연구기관이다.

연구원 개원 이래 “경쟁력 있는 국토, 살기 좋은 국토 만들기”의 시대적 소임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구현하기 위해 개발과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한 국토, 사회경제활동을 효과적으로 수용하는 지식기반국토를 위한 연구를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 주요 기능

국토연구원은 국토종합계획의 수립, 국토의 이용과 보전, 지역 및 도시계획, 주택 및 토지정책, 교통, 건설경제, 환경, 수자원, GIS, 동북아 등 국토 전반에 걸쳐 폭넓은 분야를 연구하고 있다. 또한, 국가의 중·장기 정책의제를 발굴하고, 정부정책을 선도·뒷받침하며, 정책현안 및 사회적 이슈를 분석·해결하기 위한 현장중심적 연구를 미래 지향적이고, 실용·실증적으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풍요롭고 안전한 국토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국토연구원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국토종합장기계획 및 지역계획수립 연구

국토 이용·보전 및 자원관리에 관한 연구

토지·주택·도시 및 건설산업 등 국토관련 분야 정책 연구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종합연구

국토공간정보의 체계적인 관리와 공급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와 공동연구 및 연구협력사업

정부, 국내·외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의 연구용역 수탁

국토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국내·외 국토관련 전문가 교육 및 위탁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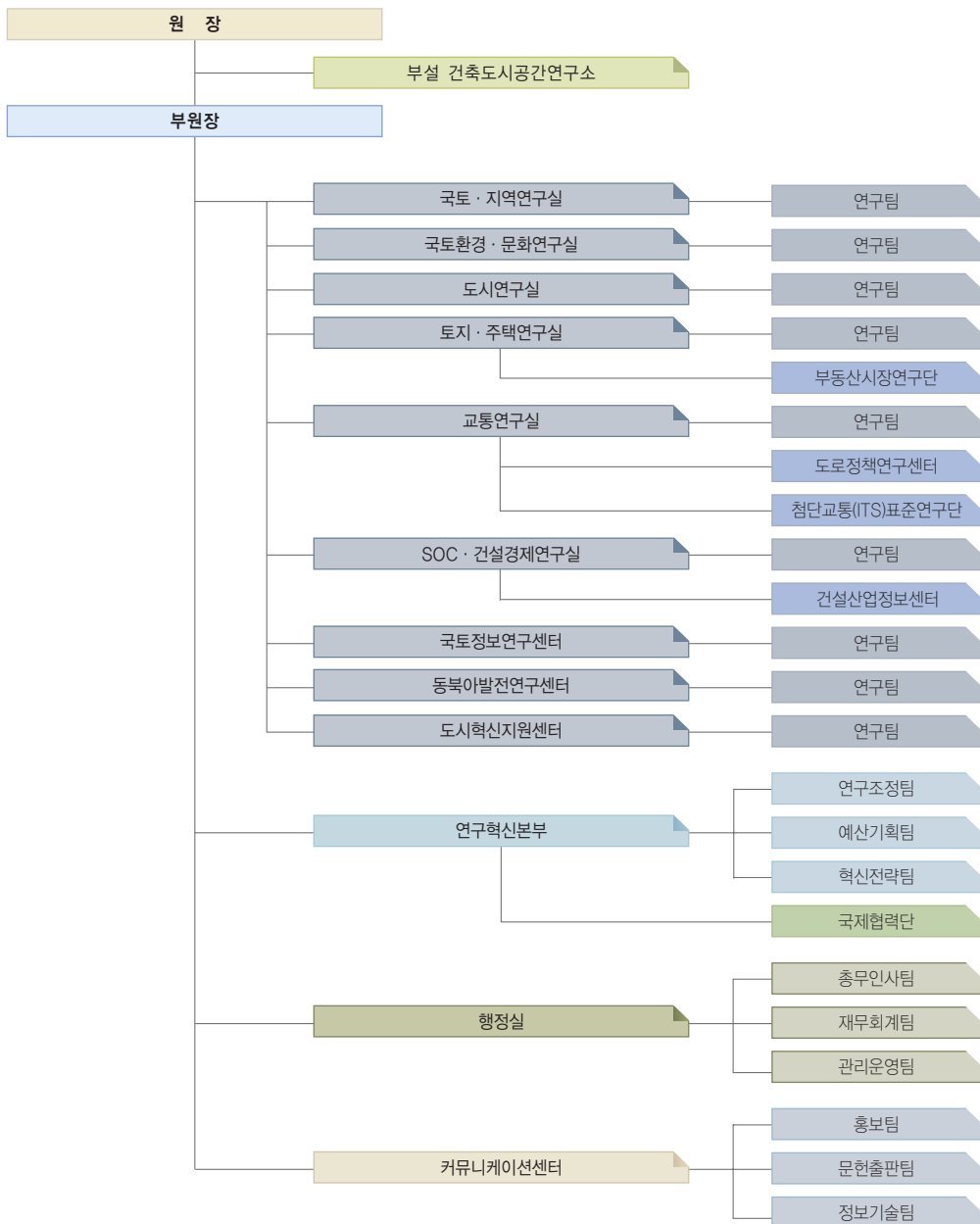
연구결과의 출판 및 배포

국토연구 관련 부대사업 및 기타 연구원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2. 조직 및 인원

■ 조직

국토연구원의 조직은 국토·지역연구실, 국토환경·문화연구실, 도시연구실, 토지·주택연구실, 교통연구실, SOC·건설경제연구실, 국토정보연구센터, 동북아발전연구센터, 도시혁신지원센터 등 9개 연구부서와 연구혁신본부, 행정실, 커뮤니케이션센터 등 3개 지원부서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부설 건축도시공간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 인원

2007년 말 현재 현원 143인(정원 218인)으로 임원을 제외한 연구직이 124인, 비연구직이 18인이다. 연구직은 다양한 전문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력별로는 박사 73인, 석사 51인이다.

계	임원	연구직		관리·전문직	
		박사	석사	관리직	전문직
구성	원장	73인	51인	17인	1인
143인	1인	124인		18인	

■ 보직자 현황

원 장	최병선
부원장	김영표
연구부서장	
국토·지역연구실장	박형서
국토환경·문화연구실장	최영국
도시연구실장	민범식
토지·주택연구실장	채미옥
교통연구실장	류재영
SOC·건설경제연구실장	손경환
국토정보연구센터장	사공호상
동북아발전연구센터장	김영봉
도시혁신지원센터장	진영환
행정부서장	
연구혁신본부장	박재길
행정실장	양용태
커뮤니케이션센터장	윤여훈
부설 건축도시공간연구소장	온영태

3. 2007년도 연구사업 수행실적

■ 연구과제 수행 현황

2007년도 연구사업목표를 '국가균형발전과 정주기반의 질적 수준 제고'로 정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국토균형발전 지원연구 강화,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및 주거복지 연구기반 조성, 공간의 질 향상을 위한 토지정책 및 국토정보연구 추진이라는 3개 세부목표를 설정하여 연구를 추진하였다.

2007년에는 「지방분산·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의 대응과제」 등 57건의 기본·수시연구과제와 「도시홍수관리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연구」 등 131건의 수탁연구과제 등 총 188건의 과제를 수행하였다. 이 중 기본·수시연구과제 54건, 수탁과제 87건 등 모두 141건의 과제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47건은 계속사업으로 2008년도로 이월되었다.

■ 2007년도 수행 주요 연구과제

국토균형발전 지원 관련 연구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지방분산·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의 대응과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전략 클러스터 촉진방안, 전국 도로망체계 발전방안 연구 등을 수행하였다. 또한, 동북아 지역에서 우리나라가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동북아 핵심경제지역의 발전전망과 연계망 구축, 한반도 국토기반시설 개발 기본계획 수립연구 등을 수행하였다. 건설산업을 활성화하여 국제경쟁력을 갖춘 일류국가로 도약하기 위하여 해외 건설산업 재도약을 위한 건설업 경쟁력 강화방안, 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한 상생협력 방안, 전환기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정책 재정립 방안 등을 연구하였다.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및 주거복지 연구기반 조성 관련 연구

국토 환경을 보전함으로써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토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보호지역의 위계정립 및 관리방안, 미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국토 어메니티 발굴과 창출전략 연구, 공공성을 고려한 도시계획시설의 합리적 공급방향 등을 연구하였다. 또한, 부동산 분야에서는 주택수급여건 변화에 대응한 주택공급체계 개편방안 연구, 부동산 시장의 환경변화에 대응한 정책방향 연구, 노인주거복지 제고를 위한 종합계획수립 연구 등을 수행하였다.

공간의 질 향상을 위한 토지정책 및 국토정보 관련 연구

국토공간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선진사회를 향한 토지정책방향 및 추진전략 연구, 디지털 국토 기반 조성을 위한 통합교통정보 인프라 구축방안, 농촌활력 증진을 위한 농촌 토지이용의 계획적 관리방안 연구 등을 수행하였다. 또한, 첨단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정보화된 국토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한 국가 GIS 전략 연구, u-City구현을 위한 계획체계 정비방안 연구, 국토정보화 혁신을 위한 지능형 국토 추진방안 연구 등을 수행하였다.

4. 2008년도 연구방향

■ 2008년도 국토연구원 운영목표

2008년도의 외적인 연구환경 변화로는 국가발전과 국민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급변하고, 기술발달과 정책변화에 따른 새로운 연구환경 패러다임이 발생될 전망이다. 또한, 균형발전과 사회통합·양극화 해소를 위한 국토혁신 공간정책이 구체화되고, 삶의 질을 중시하는 새로운 국토이용 패러다임이 등장할 전망이다. 내적인 연구환경 변화로는 국토관리 및 환경변화에 대한 적시적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국정과제와 정책현안과제 등 연구 수요가 증가될 전망이다. 또한, 국제 협력을 위한 연구프로젝트 수요가 증가되고, 안정된 연구여건 조성에 대한 요구가 증대될 전망이다.

이러한 원내·외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2008년도의 국토연구원 운영목표를 다음 네 가지로 설정하였다. 첫째, 참여형 경영혁신 추진 및 대국민 서비스 강화, 둘째, 협동적 조직문화 구현 및 최적의 연구환경 조성, 셋째, 국제 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 및 국토연구역량 강화, 넷째, 국내·외 국토연구 네트워크 강화 및 협력연구기반 확대다.

■ 2008년도 연구사업 목표 및 주요 연구과제

원내·외 연구환경 변화와 기관운영 목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08년도 연구사업목표를 창조적 성장을 위한 국토선진화 기반 강화로 설정하였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세부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세부연구과제를 선정하였다.

첫째, 미래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한 국토경쟁력 강화다. 이와 관련된 연구로는 SOC 건설사업비 합리성 제고를 위한 추정체계 개선방안 연구, 전환기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정책 재정립 방안(II), 항만배후단지의 물류 비즈니스 모델에 기초한 물류 정책방향, 전국 도로망체계 발전방안 연구(II), ‘승용차 이용자 가치’를 고려한 교통정책의 수용성 제고방안 연구, 국토정보화 혁신을 위한 지능형국토 추진방안 연구(II) -기본구상 및 전략을 중심으로-, 국토경쟁력 강화를 위한 초광역 경제권 설정 및 발전구상(I), 미래 국토균형발전정책의 추진방안 연구, 국토 및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법적 분쟁의 실태와 대처방안, 규제자유지역의 추진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기후변화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국토관리 전략(II), 지속가능한 국토관리를 위한 사회적 자본 확충방안(II), 투자자국가소송(ISD)에 대비한 토지규제 개선연구, 주택정책 평가모형 개발과 정책방향, 국민 주거복지의 전망과 정책방향, 부동산시장 선진화를 위한 부동산 간접투자 활성화 방안 등이 있다.

둘째, 문화·환경·정주기반 내실화를 통한 삶의 질 창조다. 이와 관련된 연구로는 지자체 공간정보화수준 분석 및 역량제고 방안, 국토·환경계획 수립과정에서 시민참여 기회제고를 위한 공간정보 활용방안, 지역개발사업의 통합적 추진모형 구축 및 적용방안(II), 농촌이주 인구의 공간적 분포특성과 국토정책과제, 건강·문화도시를 위한 건강·문화생태회랑의 구축전략 연구, 재해에 안전한 도시조성을 위한 방재도시계획 수립방안 연구, 지방중소도시 중심시가지 환경개선을 위한 재생전략 연구,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커뮤니티계획제도 도입방안, 시민참여 사업을 통한 시민역량 강화방안, 보행친화적 도시공간구조로의 개편을 위한 도시계획과 대중교통계획의 연계방안 연구 등이 있다.

셋째, 동북아 시대의 상생발전이다. 이와 관련된 연구로는 동북아 핵심경제지역의 발전 전망과 연계망 구축(II), 남북경협 활성화 시대에 대비한 동해연안 남북접경지역의 평화적인 이용방안, 한반도 공동번영을 위한 국토분야의 대응방안 등이 있다.

■ 2008년도 주요 국정과제

국가적 정책과제로서 다음 2개의 연구과제를 선정하였으며, 각각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후변화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국토관리전략 연구다. 이 연구는 기후변화가 국토에 미치는 영향이 광범위하고, 국토공간을 포함한 국토 환경, 국토공간구조, 에너지 및 자원 활용, 교통체계, 경제·산업, 생활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주고 이들이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다. 이 연구에서는 학제적·종합적 접근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와 국토관리를 위한 포럼을 구성·운영하고, 전문가들과의 워크숍도 계획하고 있다. 주요 연구내용으로는 기후변화와 국토공간에 대한 영향을 검토하고, 변화 시나리오별 적응과제를 도출한다. 도출된 문제점들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원절약형·순환형 국토이용 대응과제, 온실가스 저감형 도시계획 전략, 녹색교통 활성화, 직주근접 교통체계 등 교통분야의 대응과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산업경제 구조 개편, 농림어업의 변화와 대응과제 등을 제시하고, 동북아 지역의 국제협력방안도 제시할 계획이다.

둘째, 한반도 공동변영을 위한 국토분야의 대응방안 연구다. 이 연구는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남북경제공동체 구축에 대비하여 한반도 공동변영을 위한 국토분야의 주요 정책과제와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특히, 건설측면의 수요와 비용, 추진 우선순위, 개발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재원조달방안 등을 중심으로 연구한다. 주요 연구내용으로는 남북 경제협력의 추진실태를 평가하고, 동북아의 여건변화를 전망한다. 또한, 관련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한반도의 장기 비전과 공동변영을 위한 국토분야의 핵심과제와 대응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분야별 주요 연구

1. 국토·지역연구실	19
2. 국토환경·문화연구실	29
3. 도시연구실	35
4. 토지·주택연구실	39
5. 교통연구실	53
6. SOC·건설경제연구실	61
7. 국토정보연구센터	67
8. 동북아발전연구센터	73
9. 도시혁신지원센터	77

국토·지역연구실

- 공공사업 갈등지표 설정과 활용방안 연구
-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전략산업 클러스터 촉진방안
- 균형발전의 공간적 영향과 정책과제
- 농촌지역 특성의 진단지표 개발과 정책적 활용방안
-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개발정책의 혁신방안
- 재정투자파급효과측정시스템 개발 및 국가발전지수 정립 연구(Ⅰ)
- 지방분산·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의 대응과제(Ⅲ)
- 첨단기술지역의 출현과 발전과정에서 쾌적성의 역할
- 2003년 지역간 산업연관표의 구축

» 공공사업 갈등지표 설정과 활용방안 연구

Conflict Indicators and Their Practical Application in Public Works
: Analysis of Conflict Triggers and Development of Related Indicators

박형서, 김상욱, 이순자, 장은교, 김광구

정부에서는 국가차원에서 추진되는 대규모 공공사업의 입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실제 다양한 갈등현장이나 공공사업 추진 시에 참고할 수 있는 갈등요인이나 요인의 영향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가 개발되어 있지 못하여 갈등발생을 예측하거나 발생한 갈등 정도를 파악하는 등 효율적인 갈등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본 연구는 공공사업을 둘러싼 갈등상황의 적절한 관리를 통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기한다는 기본적 취지하에 갈등유발지표를 설정하고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구성은 총 7개 장으로 구성된다. 제1장은 연구의 배경과 목적, 연구범위 및 방법과 전체 연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구흐름도와 주요내용을 담고 있다. 제2장에서는 갈등지표개발의 큰 틀을 형성하기 위한 공공갈등유발에 영향을 미치는 갈등요인 및 원인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수행하였다. 제3장에서는 갈등유발지표 설정의 방법론과 유사지표 설정과정으로부터 시사점을 찾기 위하여 국내외 각종 지표개발을 검토 분석하고 지표설정 원칙, 지표체계 구조, 지표설정기준 등 공공사업 갈등유발지표 개발을 위한 기본방향을 정립하였다. 또한 기존 공공사업 가운데 이해관계자 간에 갈등이 표출된 바 있는 13개 사례에 대한 내용분석을 통하여 갈등유발원인의 특성, 갈등의 정도와 방향 등을 분석하여 갈등유발지표 후보군을 구축하는 데 활용하였다. 제4장에서는 갈등유발요인과 지표 등 주요 개념에 대한 정의와 한계를 정립하고, 이론검토 및 사

례조사를 통하여 공공사업 입지 갈등유발지표 개발에 적절한 지표구조 및 체계와 지표설정기준 및 모형을 제시하였다. 제5장에서는 지표후보군을 구축하고 후보군을 기초로 기준에 따라 1차 지표(안)을 도출한 후 관련 전문가 설문을 실시하였다.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2차 지표(안)을 설정하고, 이를 대상으로 갈등 현장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최종적으로 모든 사업유형에 적용될 수 있는 필수지표 33개와 사업유형별로 적용되는 선택지표 33개를 구별하여 제시하였다. 제6장에서는 개발된 갈등유발지표의 활용방안과 향후 지표활용 활성화를 위한 제언을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7장에서는 연구의 한계를 지적하고, 정책건의 및 향후과제를 제안하고 있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의 갈등이론 구축이나 사례분석, 또는 교육수준에 머물던 갈등연구를 외연적으로 확대하여 갈등관리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갈등지표를 제시하여 갈등관리의 방식과 인식을 새롭게 하고 그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효과가 있다. 또한 갈등발생 가능성에 대한 사전파악을 위한 계량적 접근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갈등관리자에게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공공갈등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연구기간: 2007. 1. 1~2007. 12. 31
서지사항: 204면, 국토연 2007-35

>>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전략산업 클러스터 촉진방안

Measures to Promote Clustering of Regional Strategic Industries for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권영섭, 변세일, 김태환

이 연구의 목적은 지역전략산업의 경쟁력과 클러스터 형성 정도 및 네트워크 특성 그리고 발전수준을 파악하여 지역전략산업의 클러스터 촉진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비수도권 13개 지역 52개 전략산업 중 경쟁력 5단계인 지역전략산업은 4개 산업, 4단계인 지역전략산업은 10개, 3단계인 지역전략산업은 14개, 2단계인 지역전략산업은 17개, 1단계인 지역전략산업은 7개로 나타났다. 클러스터 형성 정도는 경쟁력 단계가 5, 4, 3단계인 지역전략산업은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 1단계의 지역전략산업은 지리적 근접성, 네트워크 빈도와 밀도 그리고 클러스터 형성 정도 등을 추가로 파악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 경쟁력 측면에서는 절대적·상대적 규모, 지배력, 전문화, 집적도 중 적어도 세 가지 이상의 지표가 높은 경쟁력을 가지는 데 필수적이다.

사례지역별로 약간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관련기업 및 기관들과의 시간거리가 짧은 기업들은 네트워크가 활발하고(교류빈도가 높고) 상호관계가 형성되어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다고 판단하며, 상호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판단한 기업들은 지난 3년간 양호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클러스터가 형성되었다고 보는 기업일수록 상호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판단했지만 네트워크 및 시간거리와는 음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관련기업 또는 기관과의 시간거리가 가깝고 네트워크를 자주한다고 클러스터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관계(질적 관계)가 형성되어야 기업들

은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질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판단한 기업일수록 최근 3년간의 성과도 우수하다. 이 결과로 볼 때 상호관계와 관련된 변수들을 지역 내 확보되는 것이 기업들의 성과를 높이는 데 가장 중요하다.

지역전략산업을 클러스터화하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방에서는 집적 초기 등 어느 정도 규모를 키워서 지역전략산업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는 이를 위해 재원을 지원할 필요가 있고 지역전략산업으로서는 성과극대화가 가능한 산업을 선정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 지역전략산업 클러스터를 촉진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립적 성장이 가능한 산업의 경우 졸업시킬 것, 신규 지역성장의 동력이 될 지역전략산업에게 진입 기회를 제공할 것,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의 3차 계획기간에는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기관들과 관련된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선정하여 클러스터화할 것 등을 제안하였다.

연구기간: 2007. 1. 1~2007. 12. 31
서지사항: 213면, 국토연 2007-45

>> 균형발전의 공간적 영향과 정책과제

Spatial Impact and Policy Implication of th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이원섭, 박경현

본 연구에서는 참여정부 출범 이후 추진된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개별지표 및 종합적 차원에서 공간적으로 어떤 결과를 초래하였는지를 밝히고 지역발전 지표들간의 인과관계를 검증하고, 분석 결과를 토대로 향후의 정책방향과 핵심과제를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2000~2005 기간 동안의 지역발전 패턴을 23개 지표의 변동을 토대로 살펴보면 상위 30개 지역 중 수도권이 16개, 지방이 14개를 차지하였다. 수도권에서는 서울의 위성도시 성격을 지니는 경기도 도시들이 수도권 팽창을 선도하고 있다. 지방에서는 대도시의 비도심부 성장지역과 주변의 산업도시, 일부 수도권과 근접한 거점도시들이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지방 권역별로는 동남권 지역의 전통적인 우위가 지속되는 가운데 중부권 지역의 성장이 부각되는 반면, 서남권은 전반적으로 침체되는 경향이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최근의 지방 발전이 수도권에 근접한 중부권 지역이 선도하며 이는 수도권의 외연적 확장 형태로 진행된다는 주장은 사실의 일부만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대도시의 경우 서울과 부산은 양적 성장단계를 지나 질적 변화를 겪고 있으며, 다른 대도시는 도심지역은 구조변화 단계, 외곽지역은 성장단계로 특징지워진다. 농촌지역은 일부 대도시 외곽지역을 제외하면 대부분 성장의 기회에 동참하지 못하고 침체되어 있다.

지역발전의 유형화를 위해 요인분석을 시행한 결과 인구, 경제복지, 산업입지, 생활인프라 등 4개의 요인 점수가 높은 지역은 절대 다수가 도시지역으로 최근의

지역발전이 도시지역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뒷받침한다. 또한 지역별 인구변화를 설명하는 요소로서는 교육 및 재정 관련 변수들의 관련성이 가장 높았다. 마지막으로 지방의 발전을 설명하는 요소로서 지역의 수도권 및 전국적 접근도는 주요 지표의 변화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따라서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이나 지방의 발전이 수도권과 근접한 지역에 국한된다는 주장에는 논리적 근거가 취약하며, 지역발전은 거리적 요소에 의해서라기보다는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연구기간: 2007. 3. 1~2007. 5. 31
서지사항: 97면, 국토연 2007-47

>> 농촌지역 특성의 진단지표 개발과 정책적 활용방안

Development and Policy Application of Indicators for Identifying Rural Problems

김창현, 박종택, 박경현

본 연구는 농촌의 지역특성 파악과 농촌 관련 각종 정책의 집행에 효과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진단지표와 기준을 마련하고, 농촌지역 진단결과와 연계되는 정책수단이 마련되어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활용방안을 모색하여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결과에 의거할 경우, 우리나라의 농·농 간 격차문제는, 정주인구의 감소 정도와 고령화 수준, 농림어업의 쇠퇴 정도 및 지역경제구조의 복합·다변성과 소득의 상대적 수준, 도·농혼재공간의 확산 정도와 도·농교류공간의 확대 정도, 생활여건시설의 질적 낙후도와 기존 시설의 유희·노후화 등의 부문에서 농어촌지역 상호 간에 발생하고 있는 격차인 것으로 확인된다. 이를 바탕으로 할 때, 본 연구에서의 농어촌지역 진단지표 체계는 4개의 진단부문, 총 15개의 진단항목, 그리고 총 38개의 진단지표로 구성할 수 있다. 이러한 농어촌 지역진단지표체계를 기준으로 할 경우, 현재 시행되고 있는 농어촌 관련 각종 정책사업의 적합성은 15개 진단항목 중 교육항목에의 적합성이 가장 높다. 이어 소득기반과 문화·관광항목의 적합성이 높게 나타난다. 그리고 의료·복지와 기초환경, 도·농교류 항목이 비교적 높은 적합성을 보여준다. 이에 비하여 토지이용과 접근성, 교통편의항목의 경우는 적합성이 낮은 수준을 보여준다.

사례지역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에서는, 진단결과로 식별된 정책과제와 현재 사례지역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의 내용 간에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다. 즉, 기존 사업에 대한 예산을 정책적으로 시급한 다른 부문으로 전환하는 것만으로도 정책의 적확성이 상당히 제고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비의 투자효율성, 나아가 정책사업 자체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다는 분석결과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진단지표체계를 통해 식별한 정책적 대응과제에 대한 정책처방전, 각 지역별 정책적 대응과제에 대한 정책대응방안을 선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메뉴에 해당되는, 각 진단 부문·항목·지표별 정책적 대응방안, 사례지역의 진단결과에 적확하게 대응되는 정책처방전, 그리고 정책적 활용방안의 제도적 기반이 되는 ‘농어촌 진단·활성화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있다. 본 연구는 궁극적으로, 정책적 활용을 통하여 농촌 관련 각종 사업의 통합적 추진을 촉진하고, 정부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농촌지역 개발투자의 지역활성화 효과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개발정책의 혁신방안

A Study on the Reformation of Regional Policies for Job Creation in Korea

이원섭, 장철순, 변필성, 이용우

이 연구의 목적은 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을 통한 재정투자 및 재정지원이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직결될 수 있도록 기존의 정책집행 방식을 혁신하는 한편,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지역개발 정책프로그램 도입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지역개발정책의 프레임워크를 재편해야 한다. 지역개발정책이 산업기반 구축이나 정주환경 개선에 머물지 않고 지역에 인구를 유지 또는 유치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을 핵심 정책 목표로 추가하여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정책의 주요 지원 대상을 지역의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체가 되도록 설정하고, 주민이 직접적인 수혜자가 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지역개발 정책수단 간의 연계 및 통합 속에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개별 지역개발 정책의 집행방식을 혁신하여 일자리 창출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먼저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해 추진되는 지역개발 및 혁신사업의 시행에 있어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목표를 설정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지역개발정책에 참여하는 민간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조세감면을 일자리 창출과 연계시키고 침체된 지역의 고용기회 창출과 연동시킬 수 있는 지역개발 보조금 제도를 도입·시행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사업체의 투자 유치를 통하여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는 방안으로 새로운 지역개발 프로그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프로그램의 지원대상 분야는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지역의 농특산물 가공사업, 일반 제조

업, 문화관광사업, 연구개발사업, 사업서비스업 등이 해당된다.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우선 지원대상지역을 선정하도록 하며, 균형발전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농어촌 등 낙후지역에 중점을 두도록 한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형태는 입지보조금, 투자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등 보조금을 중심으로 제공하고, 조세감면도 병행하도록 한다. 보조금 지원은 최소 고용인원 기준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하여 제공하며, 최소 고용인원은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으로 차등 구분하도록 한다. 연차별 일자리 창출 목표와 일자리당 소요비용을 감안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의 재정규모를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지역정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새로운 아젠다를 제기하고 이를 위한 정책 혁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 지역정책을 한단계 더 발전시키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의 정책이 지역개발 역점을 두어 온 생활환경 정비, 인프라 개선, 지역특화산업 육성에서 나아가 선진국에서 보편화된 일자리 창출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추가함으로써 지역개발 정책 시스템을 선진화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재정투자과급효과측정시스템 개발 및 국가발전지수 정립 연구(I)

Development of Simulation System for Financial Investment Impact Assessment and Set-up of National Development Index(I)

김영표, 한선희, 김미정, 김호정

이 연구의 목적은 효율성, 경제성, 형평성, 안정성 측면에서 국가의 발전수준을 수치로 표현할 수 있는 국가효율성지수, 국가경제성지수, 국가형평성지수(국가균형발전지수), 국가안정성지수 등 국가발전지수의 개념을 정립하고, 지수를 개발하며, 시스템 다이내믹스 기반의 재정투자과급효과측정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다.

삼간(時間, 空間, 人間)을 시스템의 근본요소라 간주하고 이들을 조화롭고 체계적으로 개념을 정립하거나 모형을 구축하는 원리를 ‘삼간 조화의 원리’라고 정의하였다. 국가효율성지수는 국가의 발전수준과 내부 네트워크의 소통성과 접근도의 수준을, 국가경제성지수는 국내적 비용 효율성과 국민소득의 국제적 위상 측면에서 국가의 경제수준을, 국가형평성지수는 지속성, 지역·산업·부문, 계층의 측면에서 균등의 정도를, 국가안정성지수는 효율과 형평의 조화 측면에서 사회시스템이 대수정규분포에 근접정도를 측정하는 지수로 정의하였다. 시스템을 구성하는 공간단위는 172개 시군이고, 하부모형은 인구, 토지, 주택, 도로, 교육, 산업, 재정투자, 국민소득, 국제, 국가발전지수 등 11개 부문이며, 시뮬레이션 기간은 2005년부터 2020년까지다.

시스템을 활용하여 정책대안을 고려하지 않고 현재의 추세대로 모형을 행태분석한 결과, 2005년과 비교했을 때 2020년 수도권 인구비중은 2.61%포인트 증가하고, 형평성지수는 0.09%포인트 감소하며, 안정성지수는 3.62%포인트 증가하였다. 지역내총생산(GRDP) 중 1차산업의 지역내총생산은 약간 늘어나고, 2차산업의 지역내총생산은 약 1.6배, 3차산업의 지역내총생산

은 약 2.1배 증가하여 전 산업이 약 1.9배 증가하였다.

행태분석에서 나타난 수도권의 집중현상을 완화하기 위하여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시군에 2007년부터 2019년까지 투자하는 대안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연간 100억 원씩 투자했을 때 현행에 비해 수도권의 인구비중은 0.66% 감소하고, 국가형평성지수는 0.29%포인트 높아지며, 국가안정성지수는 0.29%포인트 향상되었다. 연간 300억 원씩 투자했을 때 수도권의 인구는 0.78%포인트 감소하고, 국가형평성지수는 0.43%포인트 높아지며, 국가안정성지수는 0.63%포인트 향상되었다. 연간 500억 원씩 투자했을 때 수도권의 인구는 0.82%포인트 감소하고, 국가형평성지수는 0.49%포인트 높아지며, 국가안정성지수는 0.76%포인트 향상되었다.

재정투자과급효과측정시스템을 개발하여 재정투자정책의 추진절차와 체계를 개선하고, 예산을 합리적으로 편성하며, 「국가재정법」상의 균형발전영향평가제도 관련 법제를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다. 또한 국가발전지수를 정립하여 효율성과 형평성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고, 국가 운용에 안정성까지 고려하였다. 안정성은 효율성과 형평성이 조화를 이룰 때 높아지고 경제성은 효율성의 부분집합이라는 것을 부각하여 경제성과 효율성의 개념 차이를 규정하였다.

연구기간: 2007. 1. 1~2007. 12. 31
서지사항: 258면, 국토연 2007-24

>> 지방분산 · 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의 대응과제(III)

Decentralization Strategies and Policy Guidelines for National Balanced Development(III)

서태성, 정옥주, 이원섭, 문정호, 강호제, 박경현, 박준화

본 연구는 2005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지방분산 · 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의 대응과제」의 제3차연도 연구로서 앞의 제1·2차연도 연구결과를 토대로, 전략거점(혁신도시, 기업도시) 개발의 성과확대 방안을 고찰하였다. 제3차연도 연구의 목적은 전략거점 정책추진현황을 최종적으로 점검하고, 전략거점의 연계화 · 지속화 방안을 통한 부문별 대응과제를 제시하는 데 있다.

전략거점의 연계화 방안 고찰을 위하여 인프라, 산학연, 거버넌스 연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전략거점이 주변 중심도시에 흡수되지 않고 자립적 기반을 가질 수 있도록 공간적으로 일정규모를 확보토록 하는 인프라 연계방안이 중요하다. 산학연 연계를 위해서는 산업 및 혁신여건, 정책추진 제도조건, 정책추진체계 등에 대한 관련제도 개선, 산학연 추진체계 정비, 혁신클러스터 형성지원, 사회적 인프라구축 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략거점 거버넌스체계 구축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지역참여와 함께, 전략거점의 행정 소속, 시행자 구성 등을 고려한 지역별로 특색 있는 운영체제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전략거점의 정책 지속화를 위한 정치사회적, 경제적, 제도적, 환경적 차원의 방안에 대해 SWOT 분석을 활용한 결과, 우선 정치사회적 지속성에서는 중앙정부 주도에서 지자체와의 협치형 전환 등이 중요하며, 경제적 요인으로는 도시 건설비용, 기관 이전비용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정착을 위한 제도적 특례 및 지원, 기업도시 개발이익 산정 개선과 이전 민간기업에 대한 기업도시 건설권 부여 등 제도적

방안이 요구되며, 마지막으로 환경적 지속성을 위해 생태적 도시구조, 청정환경, 생태순환, 자연공생, 어메니티 측면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는 전략거점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통해 전략거점과 주변지역 간 연계를 광역적 차원에서 논하였으며,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전략거점의 성공적 발전을 위해 지역특성에 맞는 연계화 및 지속화 요인을 제시 · 분석함으로써, 향후 혁신 · 기업도시가 ‘고립된 섬’으로 남지 않고 주변지역과의 유기적 연계를 맺으며 함께 발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기간: 2007. 1. 1~2007. 12. 31

서지사항: 본보고서 249면,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7-07-01

자료집(1) 197면,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7-07-02

자료집(2) 205면,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7-07-03

>> 첨단기술지역의 출현과 발전과정에서 쾌적성의 역할

The Role of Local Amenities in the Birth and Development of High Technology Regions

마이클 오딘, 강병수, 권영섭

이 연구의 목적은 지역경제개발에서 어메니티의 역할에 대한 이론적·경험적 문헌들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정책결정자로 하여금 2차 계층 지역의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이다.

지역 어메니티는 일반적으로 지역 경제개발에서 중요한 요소이며, 특히 신경제 부문에 기반을 둔 지역개발에 중요한 요소다. 2차 계층 도시에서 신경제부문의 성장단계에서 중요한 어메니티의 조합을 식별할 수 있으나 특별한 어메니티의 향상과 업그레이드가 지역 산업단지의 발전에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었다. 한 지역에서 지식기반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고려하는 어메니티는 하나의 필요요소로 보아야 하며, 광범위하고 복합적인 지역 경제개발 전략에서의 충분요소는 아니다.

첫째, 지역 기업을 고무시키고 외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지역 어메니티는 고전적인 입지이점 및 지역 경제전략과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어메니티와 어메니티에 대한 투자는 전통적인 경제개발에서 주로 발생하는 대체관계보다는 보완관계에 있다.

둘째, 근린주구 어메니티(학교, 주택, 범죄, 교통의 흐름)와 환경 어메니티(깨끗한 공기와 물)는 지역의 정책과 투자의 가장 중요한 목표다. 이것은 급속한 성장 이 장소의 핵심적인 질을 위협할 경우, 특히 개발의 초기와 후기단계에서 중요하다.

셋째, 플로리다(R. Florida)에 의해서 특히 강조된 도시의 어메니티 유형(식당, 유흥지역, 다른 유흥거리)은 크게 중요해 보이지 않으며, 그와 같은 도시 어메니

티는 새로운 고도숙련노동자들이 한 지역으로 이주해 오며 따라 늘어난 수요에 대응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어메니티는 성장의 원인이라기보다는 결과로 나타난 효과다. 그러나 지역개발의 후기 단계에서 문화적 자산에 대한 투자는 인구의 유입과 기업의 성장을 도울 수 있고 외부의 더 큰 대도시에 대한 상대적 매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

마지막으로 어메니티 전략은 인적자본의 투자, 연구개발, 기술지원 그리고 중소기업 개발과 함께 더 광범위한 지역 경제개발 전략 가운데 단지 하나의 요소이어야 한다. 공공부문의 조치는 건강한 경제성장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논리적이고 통제된 방법으로 시장실패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연구기간: 2007. 8. 1~2007. 12. 31
서지사항: 82면, 국토연 2007-44

>> 2003년 지역간 산업연관표의 구축

2003 Regional Input-Output Analysis

박상우, 이종열, 변세일

이 연구의 주요 목적은 전국 산업연관표에 기초한 투입 산출 분석의 핵심을 이루는 보다 정확한 2003년 기준 지역간 산업연관표를 구축하는 데 있다.

이 연구는 다섯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주요 연구내용 등 연구개요가 간략히 소개되어 있다. 2장에서는 지역투입 산출분석의 이론적 배경과 여러 지역투입산출 모형에 사용되는 다양한 연구방법이 검토되었다. 이와 함께 지역간 산업연관표 작성을 위한 전 과정이 소개되었다. 3장에서는 각기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다양한 형태의 투입산출표를 비교하고 표 작성에 사용된 세부적인 기법을 검토한 뒤 요약하여 소개한다. 4장에서는 RAS, 지역상품균형법, 엔트로피모형을 종합한 KRIHS 모형을 제안한다. 우선 RAS기법은 지역기술계수를 작성하기 위해 경제 규모가 서로 다른 지역의 상황을 전국계수와 일치시켜 조정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그 다음 단계로 지역상품균형법과 엔트로피기법을 활용하여 모든 산업부문에 걸친 지역교역계수를 추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역기술계수와 지역교역계수를 결합한 지역간 산업연관표를 작성하였다. 지역간 투입산출표에서 지역은 7개 광역시와 9개 광역도 등 16개 시도로 구성되어 있고 산업은 26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전국 투입산출계수는 16개 지역 26개 부분의 투입산출계수로 조정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주요 연구결과와 향후 연구과제가 간략히 기술되어 있다.

이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의 16개 시도는 지역간 투

입산출표를 만들기 위한 고통스러운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서도 어떤 사업이 가져올 경제적 영향의 효과를 검증하는 데 이 연구결과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표는 지역간 경제활동의 결과로 나타나는 전국적 차원의 경제 효과를 검증하는 데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경제구조가 해마다 급속히 바뀌고 있기 때문에 매년 이러한 종류의 표가 지속적으로 개발될 필요성이 있다.

연구기간: 2007. 3. 1~2007. 5. 31
서지사항: 123면, 국토연 2007-46

02

c h a p t e r Ⅱ

국토환경·문화연구실

- 국토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보호지역의 위계정립 및 관리방안
- 도시녹지의 분포특성에 기초한 녹지총량산정에 관한 연구
 - 수도권지역을 사례로 -
- 미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국토 어메니티 발굴과 창출전략 연구
- 환경용수 확보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분담과 정책과제

» 국토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보호지역의 위계정립 및 관리방안

Category Classification and Systematic Management of Protected Areas for Effective Territorial Resources Management

김명수, 최영국, 전대윤, 박정은, 서연미

세계 모든 국가에서는 생물자원 보호를 위해 보호지역을 지정하고 있다. 보호지역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생태자원이기 때문에 국토생태계의 건강성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다양한 법·제도 및 여러 부처와 지자체에 의해 보호지역이 지정·관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여러 보호지역이 중복지정되는 결과를 낳았다. 중복지정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중복지정으로 인해 주요 자연자원의 훼손, 주민불편 초래, 관리효율성 저하 등과 같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보호대상 특성별로 보호지역의 유형을 구분하고, 유형에 따라 효율적 관리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생태계 보전목적으로 지정된 11개 보호지역별로 지정목적을 분석하고, 외국사례를 검토하여 보호지역 유형구분의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관리를 위한 자원 및 이용자 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국내·외 보호지역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문헌 조사와 관련 법률을 분석하고, 낙동강 하구 등 우리나라의 9개 보호지역을 대상으로 현지조사와 관리 담당자 인터뷰를 실시하는 현장중심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보호지역 실태조사와 해외사례 분석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호지역 위계정립을 위한 3개의 대안을 설정하였다. 세 가지 대안에 대하여 위계의 명료성, 기존 보호지역 체계와의 정합성, 자원특성의 반영 정도, 국제기준의 부합성을 기준으로 평가한 후 최종적인 위계정립 대안을 작성하였다. 최종 위계는 대상지의 야생성과 보존의 중요도를 한 축으로, 그리고

다른 한 축은 보호지역 규모로 하여 육상과 해상 각 5개, 총 10개의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새로운 위계로 전환할 경우, 기존 보호지역 체계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위계에 따른 새로운 보호지역 체계 구축을 위해 기존 법률 틀을 유지하고, 보호지역 유형별 관리의 기본방향 등을 규정하는 (가칭)보호지역기본법 제정을 제안하였다.

보호지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보호대상 특성에 맞는 위계설정과 위계별로 적합한 관리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다양한 이해당사자 간의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협력적 관리가 필요하다. 나아가 단절된 개별 보호지역이 아닌 보호지역의 집합인 시스템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또한 보호지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보호지역 위계별 자원관리 및 이용자 관리를 제시하였으며, 예비지정제도의 도입, 생태계 조사 및 본 지정, 관리계획 수립, 모니터링 등의 단계적 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위와 같은 보호지역 지정 및 관리방안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유형별로 관리 기본원칙과 목표를 규정하고 보호지역 지정 시 유형결정과정을 규정하는 법률로 보호지역기본법 제정, 국가적 중요도를 가진 보호지역 관리를 위한 통합관리 기구 설치, 보호지역 갈등조정시스템을 구축 등을 제안한다.

연구기간: 2007. 1. 1~2007. 12. 31
서지사항: 235면, 국토연 2007-12

>> 도시녹지의 분포특성에 기초한 녹지총량산정에 관한 연구 - 수도권지역을 사례로 -

The Study of Estimating Total Greenspace on the Analysis Urban Greenspace Distribution
- Focused o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

황경수, 최영국, 엄상근, 조창제

우리나라의 녹지는 대부분 도시외곽의 산악지형에 집중되어 있어 접근하기가 어려우며 도시 내에서 필요한 녹지도 도시민의 접근성은 고려되지 않고 단순히 인구 1인당 지표를 이용해 도시 내 녹지를 평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시녹지의 접근성에 기초한 녹지서비스권 분석을 통한 녹지총량모형을 구축함으로써 도시에 필요한 녹지의 위치와 녹지량을 산정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녹지총량모형은 녹지의 유인력(attraction)과 접근성(accessibility)에 기초한다. 유인력은 녹지의 위치, 규모, 형태, 식생의 종류, 이용인구 등을 분석인자로 하여 서비스권역의 범위를 결정하는 것으로 중력모형(gravity model)에 그 이론적 토대를 두고 있다. 접근성(accessibility)은 어떤 지점에 위치한 이용자가 특정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의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용자와 시설 간의 통행거리 또는 시간이 측정 지표가 된다. 이를 바탕으로 녹지총량(G_t)은 모든 도시민이 녹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녹지수준이라 정의될 수 있으며, 현재 도시 내에 분포하고 있는 현재녹지량(G_s)과 추가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계획녹지량(G_p)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녹지총량모형을 자료구축단계, 녹지서비스권 측정단계, 계획녹지 설정단계, 전체 녹지총량 산정단계 등의 4단계로 구성하고 수도권을 사례지역으로 선정하여 모형을 실제 적용하였다. 그 결과 수도권 지역 시·군·구별 녹지총량을 산정해보면, 1인당 녹지면적을 $6m^2$ 으로 가정할 경우 수도권의 녹지총량은

3,996.68 km^2 로 산정되어 현재 녹지면적 3,950.93 km^2 보다 추가적으로 45.75 km^2 의 녹지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1인당 녹지면적을 $10m^2$ 로 가정할 경우 현재보다 114.22 km^2 의 녹지가 더 필요할 것으로 분석되었고, 1인당 녹지면적을 $16m^2$ 로 가정할 경우 수도권의 녹지총량은 4,175.95 km^2 로 산정되어 현재 녹지면적 3,950.93 km^2 보다 추가적으로 225.02 km^2 의 녹지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시·군별로 살펴보면 서울시, 인천시, 수원시, 부천시, 성남시, 안산시, 광명시, 고양시의 녹지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주시와 연천군은 현재 녹지상황으로도 충분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시·군별 차이는 시·도차원에서 녹지계획을 수립할 때, 녹지공급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이 연구는 다양한 도시녹지정책에 활용될 수 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별 도시녹지 확보 노력을 계량적으로 평가하여 인센티브 부여방안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도시녹지의 확보를 위한 새로운 계획녹지의 위치를 정해주는 역할을 하여 도시 내 녹지축(greenway) 계획의 근거가 될 수도 있다. 한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중요성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활용하여 장기미집행 공원시설의 녹지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활용할 수 있다.

연구기간: 2007. 3. 1~2007. 8. 31
서지사항: 111면, 국토연 2007-2

>> 미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국토 어메니티 발굴과 창출전략 연구

Strategies to Create National Amenity Resources Enhancing Quality of Life

김선희, 차미숙, 김현식, 이문원, 윤윤정

본 연구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국토, 경쟁력 있는 지역’을 조성하는 새로운 미래사회 패러다임 구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국토 어메니티 발굴 및 창출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2007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과제로 수행되었다.

국토 어메니티 개념을 “있어야 할 것이 있어야 할 곳에 있어 그곳에 거주하는 생활자나 방문자, 그리고 공공에게 아름다움과 쾌적함, 편안함을 주는 환경 또는 장소적 가치 또는 요소”로 정의하고 그 구조와 특징, 기능과 가치, 삶의 질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국토 어메니티 개념을 토대로 국토 어메니티 자원분류체계를 구축하고, 공간 유형-도시, 농산촌, 연안·어촌, 환경지역-별로 어메니티 자원을 조사하였다. 어메니티 자원발굴은 자원 리스트 구축 → 워칭조사(amenity watching) 및 자원 필터링(filtering) → 어메니티자원 인벤토리(inventory) 작성 단계로 이루어졌다.

각 공간단위별 어메니티 자원 특징은 도시지역은 자연과 인간의 상호작용 어메니티가 우세하고, 농산촌 지역은 경제활동과 공동체자원 등 마을 내 인적자원 등이 좋은 어메니티 자원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연안·어촌과 환경지역은 자연그대로의 어메니티 자원이 우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어메니티 자원 간, 자원과 공간 간 연계를 통한 집합적인 국토 어메니티 창출의 필요성을 도출할 수 있었다.

어메니티 정책과 관련하여 해외 정책동향과 국내 어

메니티 관련정책 등을 검토하여 국토 어메니티 발굴 및 창출전략을 모색하고 국토 어메니티 창출정책 기본방향과 원칙,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아름다운 국토, 경쟁력 있는 지역’을 비전으로 ‘쾌적한 국토환경 조성’과 ‘지역자원의 부가가치 창출’ 목표를 위한 어메니티 정책의 추진원칙과 방향을 제시하였다. 국토 어메니티 창출을 위한 전략으로 자원수준별·활용수단별·자원과 공간의 연계화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자원수준별로는 어메니티 자원을 우수한 어메니티 자원, 잠재적·일상적 어메니티 자원, 미이용 자원, 비어메니티 자원별 어메니티 창출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활용수단별로 보전과 복원, 계획적 관리, 산업적 이용 전략을 제시하였다. 국토 어메니티 창출 및 활성화를 위한 추진 기반은 법률 및 제도 정비, 계획체계 정비, 국토 어메니티 가치 측정과 시장기능 촉진, 지원프로그램 다양화, 국토 어메니티 활성화 추진체계 구축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기대효과는 ‘희망한국 비전 2030’ 정책에 대한 실천적 대안 제시, 국토 어메니티 정책 및 제도화 토대 제공, 국토 어메니티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와 참여기반 제공, 국토 어메니티에 대한 정보구축 및 활용에 있다. 향후 공간적 다양성을 고려한 국토 어메니티 창출수단과 모형개발, 국토 어메니티 가치평가 등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연구기간: 2007. 1. 1~2007. 12. 31

서지사항: 총괄보고서 165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7-06-01

부문보고서 335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7-06-02

>> 환경용수 확보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분담과 정책과제

Policy Issues on the Role of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for the Environmental Flows

김종원, 김창현, 심우배, 한동근

본 연구의 목적은 하천유지용수, 하천유지유량, 환경용수 등 다양하고 모호한 개념 속에서 출발한 환경용수에 대하여 명확한 개념정립, 추진 방향,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분담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용수에 대한 이론적 개념정립에서부터 실질적으로 환경용수를 확보하는 데 따른 역할 분담까지 종합적으로 다루었다. 지금까지 하천유지용수와 환경용수에 대한 단편적인 언급이 있었지만 처음으로 본 연구에서 우리나라의 하천관리에 적합한 환경용수를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하천법」, 건설교통부의 「하천유지유량산정요령」, 「하천유지유량고시계획」에서 언급하고 있는 하천유지유량과 환경용수에 대한 혼란스러운 개념을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정리하였다. 현재의 갈수기 기준의 하천유지유량 개념은 이수유량을 포함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환경용수를 고려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고 실질적으로 적용이 어렵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추후 하천법의 개정 시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 하천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하천환경유량의 결정과 확보라는 점을 국내의 환경용수 확보 실태분석과 외국사례 분석을 통하여 제시하였다. 현재 국내의 환경용수에 대한 수요는 지자체의 도심을 흐르는 도시하천의 친수공간 활용에 필요한 유량을 확보하는 데 그치고 있어서 보다 체계적인 하천생태계의 보전 및 회복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환경용수의 확보와 관련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 분담하여야 할 역할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중앙정부에서 환경용수의 확보와 관련하여 법·제도적 정비, 하천별 필요한 환경용수량의 결정, 지방정부의 환경용수 확보사업에 대한 재원 지원방안 등을 강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환경용수량의 확보 대안별 비교·검토 및 대안의 확정에 이르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와의 협의, 재원의 확보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단절적인 하천환경용수가 아닌 수계별 중요도에 따른 환경용수의 확보방안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의 기반을 조성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갖는다. 동시에 환경용수 개념의 도입에 따른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 하천수의 합리적 활용에 따른 하천의 이용 및 수변구역의 활용성 제고, 환경용수의 확보에 따른 중앙과 지방정부 간 갈등의 사전적 해소, 환경용수의 도입에 따른 하천의 수량관리를 보다 합리적으로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선진화와 관련 기술수준의 향상을 촉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연구기간: 2007. 1. 1~2007. 12. 31
서지사항: 153면, 국토연 2007-20

03

c h a p t e r Ⅱ

도시연구실

- 공공성을 고려한 도시계획시설의 합리적 공급방향
: 민간참여형 복합이용시설을 중심으로
- 도시주변부 녹지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경제적 보상방안에
관한 연구
-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Ⅱ): 커뮤니티 중심의 도시정비 활성화 방안

>> 공공성을 고려한 도시계획시설의 합리적 공급방향 : 민간참여형 복합이용시설을 중심으로

Rational Supply Direction of Urban Planning Facility by Public Ownership
 : Concentrate on Mixed-use Complex of Private Sector Participant

김상조, 왕광익, 권영상, 안용진

이 연구는 최근 민간부문에 의해 투자된 도시계획시설들에 대한 공공성 확보수준을 평가하고, 공공성 유지를 위한 공공과 민간부문의 역할을 재조명하여 합리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민자역사, 버스터미널, 환승주차장을 사례시설로 선정하고 공공성을 평가하기 위해 평가의 틀과 평가기준을 도출하였고, 평가기준에 준하여 공급실태를 조사하였다.

항목별로 평가결과를 분석해 보면 주변 교통에 미치는 영향은 대체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고 주차장과 터미널의 경우 주변지역 대비 과도한 개발밀도로 개발되는 경향이 있었다. 복합이용시설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판매·영업시설 위주의 복합이용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하였으며 외부공간과의 연계성 또한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역을 대표하는 상징성이나 랜드마크로서의 역할이 부족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커뮤니티 시설에 대한 배려 또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지역의 도시계획이나 발전전략과의 상충 및 심의과정 불합리, 사업결정과정상 공공성 배점비율 낮은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개선과제와 개선방향으로는 우선 적정복합이용시설 용도 다양화방안으로는 지자체의 문화·복지시설이나 또는 지역전략시설과의 복합화를 우선 추진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판매영업시설 이외 정보, 숙박, 업무, 컨벤션, 공공시설 등 다양한 시설과 복합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공기업, 지자체, 민간 협력을 통한 재원조달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공공성 평가 및 심의과정의 합리화를 위해서는 지자체

의 직접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계획과의 정합성을 유지하는 것이 급선무다. 대중교통 위주의 동선체계 유도를 위해서는 대중교통을 위한 교통광장, 입체적인 환승시스템 구축이 중요하고, 주변 교통을 원활히 하고 악영향을 줄이기 위하여 주차동선의 후면접근로 우선 유도 및 주차진출입 차선 확보, 주차시설 확보기준의 완화 및 최소화 조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개선방향들을 실행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에 대한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첫째, 지자체와의 사전협의 또는 동의제를 신설하여 사업의 초기 구상단계에서부터 협력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시설용지를 포함한 주변지역을 지구단위계획(특별설계구역) 수립의 의무지역으로 지정하여 지역 도시발전의 중심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건축계획심의 시 내부시설의 종류, 규모, 배치는 물론 도시의 새로운 이미지 창출을 위한 건축물의 외관·형태 등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고, 넷째,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필수적으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연구기간: 2007. 1. 1~2007. 12. 31
 서지사항: 270면, 국토연 2007-19

>> 도시주변부 녹지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경제적 보상방안에 관한 연구

Economic Supporting Programs to Protect Valuable Open Spaces in Urban Fringe Area

이왕건, 최혁재, 이범현

이 연구는 기성시까지 주변부의 녹지지역을 계획적으로 관리하여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녹지공간으로 제공하는 방안의 하나로 경제적 보상방식을 제안하였다. 경제적 보상방식은 개별 도시에서 필요로 하는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활용되고 있는 토지이용규제방식과 토지매입방식을 보완할 대안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사유지의 직접매입방식보다 낮은 비용으로 토지매입에 준하는 녹지공간 보존효과를 유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도입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는 첫째, 경제적 보상방식의 개념, 유형을 파악하고 법적 논쟁과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분석하였다. 둘째, 도시 공원녹지에 대한 실태분석, 경제적 보상과 관련된 제도의 동향을 파악하였다.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 공원·녹지의 개발/보전과 관련된 주요 이슈, 공원녹지 지정·조성실태와 정책방향, 관련 법·제도의 운영실태,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미국과 일본의 유사제도를 검토하였다. 셋째, 경제적 보상제도의 도입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메커니즘을 정립하고 각 단계별 부분요소의 적용방안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녹지공간의 유형화·보상기간·보상유형을 근거로 구체적인 적용방안을 제시하였다. 넷째, 소요비용 추계, 재원조달방안, 단계별 시행방안이 제시되었다. 제도도입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과 제약요건, 경제적 보상제도의 활성화방안을 제시하였다.

경제적 보상방식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정립하고 적용방안을 제시하였다. 경제적 보상

대상이 될 녹지의 선정기준 및 절차를 제시하였다. 보상방식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첫째, 녹지공간을 규제대상, 매수대상, 경제적 보상으로 유형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둘째, 계약협정을 체결하는 최소기간을 10년 정도로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보상유형도 직접보상과 간접보상을 혼용하는 방식을 추천하였다.

현 단계에서 경제적 보상방안을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단계별 적용방안을 제시한다. 단기적으로는 제도에 대한 홍보 강화, 대상지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 제고, 감면세율과 감면대상의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보상 법률을 정비하고, 지자체별 여건에 맞는 녹지공간 확보전략을 마련하여야 하며, 사유재산권과 정당한 보상원칙이 실현될 수 있도록 손실을 입은 토지소유자에게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연구는 공원녹지기본계획 및 하위관련계획의 실현성 향상, 공원녹지 확보수단의 다양화, 저렴한 비용으로 토지매입에 준하는 효과 유발, 우발손익 간 형평성 제고, 녹지공간의 개발 및 보전과 관련된 갈등의 사전예방, 계획적 개발과 보전의 실현 등의 다양한 효과를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경제적 보상방식의 도입필요성에 대한 인식부족, 제도운영실태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분석의 부재 등이 연구의 한계로 인식되고 있다.

연구기간: 2007. 1. 1~2007. 12. 31
서지사항: 164면, 국토연 2007-15

>>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II) : 커뮤니티 중심의 도시정비 활성화 방안

Improvement of Urban Renewal Programs for Communities

민범식, 박은관, 손동욱, 박재길, 김형진, 와타나베 순이치

2000년대 중반에 중앙정부차원에서 도시만들기에 대한 새로운 정책으로서 '살고싶은 도시'가 제창된 이후 지자체가 실시하고 있는 '살고싶은 도시' 만들기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이 전개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이 중에서 걷고싶은 거리조성, 주택담장정비(그린파킹 사업 포함), 옥외간판정비, 노점상 등 풍물거리정비, 공용주차장조성, 담장녹화사업, 재래시장활성화사업, 한옥마을 정비사업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이들 사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정비기법과 법제도상, 추진조직상의 개선방안을 다루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시책별 개선방향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사유재산권 수용 시 보상가격의 차이에 대한 불만은 세제상의 혜택을 추가로 검토하는것이 필요하고, 상점가나 간판 정비 시에는 상업활동에 방해가 되거나 상점의 특성이 살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상인들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제안하였다.

둘째로, 법제도 운영상 제약점이 되고 있는 골목길에 대한 차로폭원규정, 노점상에 대한 식품위생규정, 한옥마을에 대한 건축선규정 등에 대해서는 안전과 방재, 위생 등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특수한 조건에서는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고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제안하였다.

셋째로, 추진조직상 개선방안으로는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통합된 권한을 갖거나 전문팀을 만들어 계획하고 실무부서가 협조하는 형태의 구성을 제안하였고, 특히 중앙부서가 권한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는 모든 계획고권의 지방이양을 제안하였다.

이외에도 지자체의 시행조직이 현장과 주민에의 대응 방법에 대한 전문성을 축적하려면 해당업무에 장기근속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연구기간: 2007. 1. 1~2007. 12. 31
서지사항: 176면, 국토연 2007-16

토지·주택연구실

- 공공택지 공급방식의 다양성 확보방안
: 대지임대부 주택공급제도를 중심으로
- 국민임대주택 수요추정 연구
- 노인주거복지 제고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연구
: 고령자 생활패턴 분석을 통한 주거환경 편리성 개선방안 연구
- 농촌활력 증진을 위한 농촌토지이용의 계획적 관리방안
- 대규모 개발사업 주변지역의 토지시장 안정화 방안
- 부동산시장의 환경변화에 대응한 정책변화 연구
- 부동산 중개품질 향상방안 연구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세분화 방안을 중심으로
- 선진사회를 향한 토지정책 방향 및 추진전략 연구(III)
- 영국의 우트와트 보고서
- 주택수급 여건변화에 대응한 주택공급체계 개편방안
: 주택보급률 110%초과, 고령화 및 저출산에 대한 대응
- 최저주거기준을 활용한 2006년 주거복지 소요추정 연구
- 한·중 토지정책연구(VII): 토지정책의 중앙·지방간 역할분담
- 2007년 국내외 부동산 시장 및 정책 동향 연구

>> 공공택지 공급방식의 다양성 확보방안 : 대지임대부 주택공급제도를 중심으로

Policy Tasks for Diversifying the Land Supply Schemes Developed by the Public Sector
: Focusing on the Housing Supply System on the Condition of Land Lease

정희남, 최 수

2007년 4월 주택법을 개정하여 이른바 반값아파트 공급을 위한 대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방식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이 방식의 기대효과와 한계, 정착과제 등이 명확히 제시되지 못하여, 시장참여자 및 정책당국의 혼란과 이해당사자 간의 갈등이 늘고 있다. 이 연구는 대지임대부 방식의 개념과 특성을 고찰하고, 우리 토지시장의 구조와 틀 속에서 대지임대부 제도의 기대효과와 제약요인을 객관적·실증적으로 분석하며, 대지임대부 제도의 실현과제를 도출하고자 추진되었다.

먼저, 토지소유의 사유화시장과 관련해서, 대지임대부제도가 기대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비축토지 확보에 소요되는 토지자본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공공 사업시행자의 추가적인 재원조달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우선(토지 및 주택)공영개발 사업지구별로 예상되는 개발이익의 한도 내에서 대지임대부제도를 조금씩 확산해 나갈 필요가 있다. 주택 소유권과 토지 이용권의 재구성으로 인해 야기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대지 임대권 또는 지상권에 대한 권한과 한계 등을 사전에 명확히 밝힐 필요도 있다.

둘째, 토지이용의 도시화시장과 관련해서, 기반시설이 완비된 주택용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규모의 건설자본이 소요되지만, 임대부대지 수분양자로부터 징수하는 임대료 외에는 투입된 건설자본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극히 제한적이다. 투자재원 조달 가능성, 투자의 효율성, 정책목적 달성 정도를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서, 대지임대부 시범사업 지구에 대한 관찰과 지속적인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셋째, 토지거래의 상품화시장과 관련해서는, 대지임대부 주택에 대한 잠재적인 수요는 지대료와 지대료 조정기준을 정책적으로 결정하는 공적자금의 이전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달성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정책적인 지원이 불가피하더라도 지대료와 지대료 조정기준 등을 가능한 한 시장기준에 가깝게 적용함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극복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지임대부 주택공급과 관련한 시장참여자 간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 대지임대부주택 - 일반 분양주택 등의 목표계층과 정책목표를 보다 정교히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대지임대부 공급방식의 기본적인 개념을 현행 토지임대제도 틀 속에서 정의함으로써 대지임대부 주택분양 방식에 대한 이해당사자의 이해를 돕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지임대부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폭을 넓히고, 정책과제에 대한 정책당국의 인식을 제고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대지임대부제도의 정착과제를 제시함으로써 전통적인 일괄분양 방식 외에 대지임대부 방식 등 공공택지의 다양한 공급방식 모색 가능성을 제시하였고, 대지임대부 시범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체계 필요성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주택법 등 관련법과 관련규정을 보다 정교히 제·개정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기간: 2007. 3. 1~2007. 5. 31
서지사항: 159면, 국토연 2007-4

>> 국민임대주택 수요추정 연구

A Study on Demand Estimation of National Rental Housing

강미나

국민임대주택 100만 호 건설계획의 중반에 이른 현 시점에 국민임대주택의 공급추진을 점검해 보고 계획실천에 앞서 국민임대주택의 수요를 재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국민임대주택 입주대상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며 이 연구가 추진되었다. 이 연구는 지역별 국민임대주택 수요를 추정하고 대상가구의 주거실태를 면밀히 분석하여 효율적인 국민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공공임대주택의 입지거리에 대한 희망을 조사한 결과 도시지역일수록 먼 거리의 입지를 수용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도시일수록 대중교통이 발달한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가구로 가구소득이 일정수준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공급되고 있다. 따라서 수요추정을 전체 가구 중 무주택 가구가면서 가구의 소득이 평균소득의 7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입주의사와 임대료 지불능력을 고려하여 추정하였다.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수요와 선호는 조사시점의 상황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주택시장 상황과 지역적 특성,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인식 변화 등은 입주의사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2006년 주거실태조사」와 「2004년 국민임대주택 국민의식조사」를 기준으로 입주의사에 대한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입주의사 변화에 대한 수요를 분석하여 원활한 공급계획을 수립하는 데 참고가 되도록 했다.

현재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요건인 무주택가구로

가구의 소득이 평균소득의 7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입주의사와 임대료 지불능력을 고려하여 추정한 결과, 2007년 현재 전국적으로 입주의사에 따라 89.5~153.3만 호의 유효수요가 나타났다.

「2006년 주거실태조사」에서 추론된 입주의사를 적용할 경우 전체수요 중 수도권에 51.1%, 5대 광역시에 23.7%, 그리고 지방도지역에 25.2%의 수요가 추정되었다. 공급가격을 현재보다 10% 더 하락시켰을 경우 입주의사에 따라 96.4~165.1만 가구의 수요가 추정되고, 현재 공급가격보다 20% 더 하락시켰을 경우에는 입주의사에 따라 102.8~175.7만 가구의 유효수요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국민임대주택의 대상가구를 확대하여 평균소득가구를 대상으로 할 경우 입주의사에 따라 148.0~221.3만 가구의 유효수요가 추정되었다.

연구기간: 2007. 2. 1~2007. 12. 31
서지사항: 106면, 국토연자 2007-3

>> 노인주거복지 제고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연구 : 고령자 생활패턴 분석을 통한 주거환경 편리성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Comprehensive plan for Improving the Housing Welfare of the Elderly
 : Focusing on the Convenience provision in the Residential Environment

강미나, 김혜승, 전성제

2005년 현재 노인인구는 전체인구의 9.3%를 차지하고 있고 앞으로도 고령화는 급속히 진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면 은퇴 등의 신상변화 혹은 신체적 노화로 인해 사회적 교류영역이 축소되고, 이에 따라 물리적 활동공간이 예전에 비해 줄어드는 반면, 사회적 활동공간으로서 근린주거환경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더 커지게 된다. 이 연구는 이와 같은 현상에 주목하여 노인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는 주택의 내부환경뿐 아니라 주택에 인접한 외부환경에 대한 정책적 관심도 필요하다는 인식으로부터 출발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는 노인이 독립적이고 활기찬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외부공간인 주거환경을 분석하고 주거생활의 편리성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장에서 노인가구의 주거와 주거환경 실태, 노후생활에 대한 인식 및 욕구 실태를 분석하여 고령층의 필요에 부응하는 주거환경 요소를 도출하였다. 3장에서는 주거환경에 대한 기존 연구를 살펴보고 주거환경의 편리성과 시설의 관계를 정리하였다.

4장은 노인의 생활패턴을 시간과 공간 측면에서 분석하되, 생활조건이 서로 상이한 도시와 농촌을 구분하여 시설을 중심으로 노인의 생활패턴을 토대로 한 주거환경을 분석하고 지역별 노인주거환경모형을 제시하였다.

5장에서는 일본과 영국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6장은 노인의 생활패턴과 우리나라의 현행 시설기준을 토대로 노인의 주거환경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

였다. 그리고 편리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역차이를 반영하여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주거환경의 편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7장은 주거환경의 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결론을 도출하고 이 연구의 한계와 향후 추진되어야 할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노인의 생활패턴을 토대로 한 노인주거환경모형을 구축하려는 최초의 시도로서 이 연구를 통하여 노인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자주 이용되는 편의시설의 분포와 이용의 편리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리고 노인의 주거생활 문제를 단지 주택 내부뿐 아니라 외부적인 측면까지 확장하여 노인의 주거생활 편리성을 증진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고려했다는 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연구기간: 2007. 1. 1~2007. 12. 31
 서지사항: 322면, 국토연 2007-22

>> 농촌활력 증진을 위한 농촌토지이용의 계획적 관리방안

Rural Land Use Management System for Rural Viability

최혁재, 지대식, 김승중

이 연구는 인구감소 및 고령화와 도·농 간 소득 및 생활여건 격차, 농업개방 등으로 활력을 잃고 있는 농촌을 되살려야 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된다. 이 연구는 특히 농촌토지이용을 어떻게 관리해야 농촌활력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지를 모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농촌토지이용 및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농촌토지이용과 개발사업에서 계획적 관리가 미흡하여 농촌활력 증진에 걸림돌이 됨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농촌토지이용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다. 첫째, 농촌정비계획이 농촌토지이용과 농촌개발사업에 관한 사항을 포괄하면서 계획공간에 따라 위계를 가지도록 계획체계를 정비한다. 그리고 이를 각 위계별로 국토계획체계와 연계되도록 한다.

둘째, 토지용도 간의 충돌과 소규모 분산개발을 막기 위해 농업적 이용 외에, 비농업적 이용도 포함하여 농촌토지에 대해 기본적인 용도구분을 도입한다. 취락, 관광휴양, 축산, 농림관련산업, 자연환경·경관 등이 그러한 용도구분의 예다.

셋째, 개발행위허가제는 개발로 인해 기반시설 수요가 크게 유발될 우려가 없는 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마찬가지로 연접개발 제한도 오히려 소규모 분산개발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생산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제2종지구단위

계획은 농촌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농촌형을 신설하고, 이에 적용할 수 있는 계획수립지침을 마련한다. 또 농공단지 입지 등과 관련된 기준 및 제한을 지역여건에 따라 차등화한다.

넷째, 농어촌정비법에 의해 시도한 토지매수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를 토지보상법상의 매수협약으로 인정하여 곧바로 재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또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설치하려는 시설 중 공익을 위한 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 인정함으로써 설치절차를 간소화한다.

이 연구는 활력을 잃고 있는 농촌지역에서 토지이용을 계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토지이용의 효율과 함께 농촌개발사업의 시행효과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농촌지역의 토지이용에 대한 계획체계 및 관리수단의 정비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국토 전체의 종합적·계획적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농촌지역에서 토지용도 간의 충돌 및 소규모 분산개발을 방지할 수 있게 됨으로써 토지이용을 둘러싼 지역사회 내부의 갈등을 피할 수 있으며, 농촌지역에 기반시설을 원활히 공급하는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줄이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

연구기간: 2007. 1. 1~2007. 12. 31
서지사항: 223면, 국토연 2007-33

>> 대규모 개발사업 주변지역의 토지시장 안정화 방안

Policy Tools for Stabilizing Land Markets of Areas Surrounding Large Development

채미옥, 조판기, 송하승

대규모 개발사업은 그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대규모 개발사업이 이루어질 경우, 인근지역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여 토지시장의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개발사업 주변지역의 지가상승은 개발사업에 따른 주변지역의 입지여건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투기적 토지보유 및 개발수요가 증가하는 데 그 근본 원인이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개발사업지에 대한 공공 수용보상으로 대체토지 매입 수요의 증가도 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대규모 개발사업 주변 지역에 발생하는 투기적 가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여, 주변지역의 난개발과 급격한 지가 상승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대규모 개발사업이 주변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공간 범위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확산되고 있다. 공간 확산 형태는 기존 도심지, 도로, 지형 등의 개발사업 주변 지역의 공간입지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세종시 주변지역의 경우, 기존의 도심지와 연담화되어 지가 영향이 나타나며,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개발사업의 영향력이 확산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대규모 개발사업 주변지역의 지가 상승 원인과 그 영향의 공간적 범위를 기초로, 대규모 개발사업지 주변의 지가상승을 방지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그 방안으로는 토지이용규제를 통한 개발잠재력 축소, 토지거래 허가제와 토지투기지역 지정 등을 통한 토지거래수요 제어, 보상제도의 개선 및 금융제도를 통한 유동성 유입자금 관리 등의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제시된 방안은 개발이익을 차단하는 단기 대안과 토

지시장 기능의 정상화를 위한 중장기 대안으로 단계적으로 제시하였다. 단기적으로는 토지이용규제를 강화하여 주로 외지인들에 의해 행해지는 투기적 토지개발 수요를 차단하고, 보상방식을 개선하여 대토보상을 확대함으로써 보상금에 의한 지가상승 요소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으로 도입하고자 제시한 용적률 거래제도는 개발에 따른 손익을 조정함으로써, 투기적 토지수요를 줄여 주변지역의 지가상승을 억제하는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기간: 2007. 6. 1~2007. 11. 30
서지사항: 159면, 국토연 2007-7

>> 부동산시장의 환경변화에 대응한 정책변화 연구

A Study on Baby Boomers and Their Housing Consumption Patterns in Korea

이수옥, 손경환, 지대식, 박천규

이 연구는 우리나라 인구의 15.2%를 차지하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의 가계자산 소비행태 변화로 주택시장이 받게 될 영향을 예측해 정책대응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시작되었다. 이러한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해 베이비붐 세대의 사회생활 은퇴와 소득감소로 그들이 거주하고 있던 주택을 언제쯤 얼마나 매각할 것인지 추정하고, 주택시장 안정과 재배분의 선순환(善循環) 구조 정착을 위한 정책대응 방안을 중심으로 연구논의를 전개하였다.

주요 연구내용을 정리하면 첫째,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3차~8차)를 이용한 베이비붐 세대의 가계소득과 소비규모 추정 결과, 베이비붐 세대의 소득 및 소비감소가 생애주기시설에서 제시하고 있는 낙타등 현상을 보임은 확인되었지만, 그 현상은 Poterba(2001)가 주장하는 것처럼 완만하게 이루어질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2005년 현재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는 가계자산의 75.8%를 부동산 형태로 보유하고, 61%는 자기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가주택 소유자 중 48%는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전체 1,322만 호의 주택 가운데 약 18% 수준인 233만 호 가량을 베이비붐 세대가 보유하고 있을 것임을 추정할 수 있었다. 셋째, 본격적인 은퇴가 시작될 시점에 다다른 특정세대의 상당수가 주택 외에는 별다른 자산을 넉넉히 보유하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이들이 전체 재고주택(stock)의 18% 가량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는 주택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잠재적 불안이 될 수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베이비붐 세대는 인구수만큼이나 주택수요 비중이 높은 집단이며, 이들의 수요행태는 주택시장 수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베이비붐 세대의 사회생활 은퇴와 그에 따른 주택수요 행태의 변화는 주택공급과 수요측면에서 새로운 주택시장 패러다임을 형성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베이비붐 세대의 주택수요행태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주택시장의 안정은 물론, 국민주거생활 향상이라는 정책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베이비붐 세대의 주택소비 선순환 구조 정착을 위해서는 베이비붐 세대의 적정한 주거소비 유도, 베이비붐 세대 보유주택의 재배분을 통한 주택재원의 효율적 이용과 국민주거복지 향상, 그리고 주택연금(역모기지)제도를 활성화하는 방향 등으로 정책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연구기간: 2007. 1. 1~2007. 12. 31
서지사항: 167면, 국토연 2007-39

>> 부동산 중개품질 향상방안연구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세분화 방안을 중심으로

Policy Tasks for Improving the Quality of Real Estate Brokerage
 : Focusing on Reshaping the Checklist Forms

정희남, 신희동, 황주영

정부는 부동산시장의 항구적인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부동산 거래질서 선진화 캠페인'을 2007년 3월부터 추진 중이다. 선진화 캠페인 추진과정에서 부동산 거래의 안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세분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부동산 거래사고의 60% 이상이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 의무 위반과 관련된 현실을 고려하여, 부동산거래 안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세분화 방안을 도출하고자 이 연구가 추진되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의 세분화 방안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먼저, 중개대상 물건특성을 반영하여 토지, 주거용 건축물, 비주거용 건축물, 기타 물건 등 네 가지 유형으로 확인·설명서 서식을 세분화하였다. 둘째, 확인·설명서가 형식적으로 기재되고 있기 때문에, 확인·설명서의 중요성을 중개업자와 매매당사자가 재인식하도록 '표지'를 별도로 작성하고, 매도인 및 매수인 중개업자 모두가 서명·날인하도록 하였다. 중개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중개업자가 제공해야 하는 '확인·설명 근거 자료'와 매도(임대)의뢰인이 제공해야 하는 '대상물건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 사항'을 '표지'에 표시하여 책임관계를 명확히 밝히도록 하였다. 셋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내용도 개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상물건(건축물)의 면적과 용도를 세분화하였고, 권리관계를 보다 명확히 명시하도록 하였다. 기타 토지이용규제 내용,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 거래예정금액과 취득 시 부담할 조세 등을 세분화하였다.

이러한 제도개선으로 부동산 중개시장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매도인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행 거래대상물 확인·설명서제도를 매도인 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최종소비자의 보호 기능을 강화하고 중개사고의 예방효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동주택(아파트) 및 토지 외의 부동산 거래가 주로 외국계 중개업자가 전담하고 있는 현실에서, 국내 중개업자의 전문성을 제고함으로써 비주거용 건축물의 거래시장 참여기반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등의 개정(안)을 제시함으로써 정부시책을 지원하였다.

연구기간: 2007. 5. 1~2007. 7. 31
 서지사항: 177면, 국토연 2007-1

>> 영국의 우트와트 보고서

English Uthwatt Report of 1942

서순탁, 변창흠, 채미옥, 정희남(역)

이 보고서는 영국의 우트와트 보고서를 번역한 것이다. 우트와트 보고서의 정식명칭은 ‘보상과 개발이익에 대한 전문가 위원회의 최종보고서(Expert Committee on Compensation and Betterment : Final Report)’다. 전문가 위원회의 위원장이 우트와트(Justice Uthwatt)였던 관계로 보통 우트와트 보고서라고 부른다.

우트와트 보고서는 오늘날의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60여 년 전에 영국이 겪은 과도한 개발과 소유편중, 높은 보상비와 개발이익의 사유화, 재건사업을 위한 개발이익과 손실보상의 처리 문제 등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것이다. 이 보고서는 미개발지에서는 토지의 소유권으로부터 개발권을 분리하여 국가에 귀속시키고 기개발지에서는 과세를 통해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을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 당시 영국에서도 오늘날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용도지역제를 채택하고 있었고, 이 제안에 대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규제할 뿐만 아니라 제도의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도 있었다. 그러나 이 제도는 1947년 도시·농촌계획법(The 1947 Town and Country Planning Act)을 통해 개발가치의 국유화 정책으로 채택되었으며, 도시와 농촌지역을 통합한 계획제도를 구축하고 개발규제수단으로서 계획허가제를 시행하는 근거가 되었다. 비록 1953년 보수당 정권에 의해 개발부담금제도가 폐지되면서 개발가치의 완전한 국유화에는 실패하였지만, 국가가 계획허가권을 보유함으로써 선계획-후개발체제를 구축하고 난개발을 방

지하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토지소유권으로부터 개발권을 분리하는 제도는 미국에서도 개발권양도제와 개발권 선매제도로 운영되고 있으며, 프랑스에서는 법정밀도상한제를 통해 그 정신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수차례 개발권 분리제도의 도입을 검토해 왔으나 토지소유권의 절대성과 소유 중심의 토지관 때문에 제도화하는 데는 성공하지 못하였다.

최근 전국적으로 신시가지 개발이나 구도시의 재정비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확대되면서 토지의 공익적 이용과 소유권의 절대성이란 가치가 충돌하는 현상이 잦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높은 지가와 보상금을 둘러싼 갈등, 개발이익의 사유화에 따른 사회적 문제 등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토지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토지의 공개념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우트와트 보고서를 완역하고 우리나라의 토지소유 및 이용, 보상과 계획적 관리에 대한 정책함의를 도출한 이 보고서는 현재 우리의 부동산 문제를 재조명하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주택수급 여건변화에 대응한 주택공급체계 개편방안 : 주택보급률 110%초과, 고령화 및 저출산에 대한 대응

New Directions of the Housing Supply System
: Responding to the Structural Changes of Housing Demand

배순석, 김근용, 전성제

본 연구의 목적은 주택보급,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주택수급 여건변화를 다각적인 차원에서 분석하여 전망하고 이에 대응한 주택공급체계의 합리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의 주택공급체계는 주택개발공급의 주체 및 기능, 개발입지, 공급주택의 양과 특성, 주택개발·공급방식 그리고 정부정책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본 연구에서는 첫째, 인구사회적 변화와 주택보급의 확대 추이를 여러 가지 방법론을 활용하여 구체적으로 전망하였다. 둘째, 이러한 변화들을 감안할 때의 우리나라 기존 주택공급체계의 한계를 분석하고 대응과제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공급체계의 한계에 대응한 주택공급체계의 개편방안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였다.

우리나라 주택공급체계의 개편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제시한 개편방안은 ① 공공·민간의 역할 재조정, ② 고령가구·1인가구 수요에의 대응방안 마련, ③ 대도시권에서의 주거입지 수요 변화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④ 주택정책환경 및 주택수요 변화에 대응한 공급체계 구축, ⑤ 인구가 감소·정체된 지방중소도시에 대한 대책이다.

우선 ‘공공·민간의 역할 재조정방안’은 중장기적으로 주택부족문제가 완전 해소되어 시장의 안정기조가 구축됨에 따라 민간의 역량을 극대화하는 한편, 정부는 시장실패부분에 관해서만 제한적으로 개입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고령가구·1인가구 수요에의 대응방안’으로서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무장애(barrier free) 주택 공급

계획을 수립할 것을 건의하였으며, 도심지에 고령자용 주택 입지 마련 및 고령자 주택공급에 있어 민간참여의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을 건의하였다. 또한 주택공급규칙 등에 의해 상당히 제한되어 있는 1인가구들의 청약기회를 점차 개선시킬 것을 건의하였다.

그리고 향후 주택수요 변화를 종합적으로 볼 때 기성시까지 재생사업을 통해 수요에 대응한 맞춤형 주택공급을 위해서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를 건의하였다. 그리고 수요의 고급화와 다양화에 부응하여 다품종 소량생산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 및 제도 정비를 제안하였다.

‘인구 감소·정체 지방중소도시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의 하나로서 주택 재건축, 리모델링뿐 아니라 부분적인 개보수를 위한 금융, 조세지원 확대를 건의하였다. 또한 지방중소도시의 공가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것과, 종합적인 재생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다.

» 최저주거기준을 활용한 2006년 주거복지 소요추정 연구

Housing Needs 2006 : based on Minimum Housing Standards and Affordability

김혜승

기존 주거복지정책은 그 실적이 아직까지 미흡하고 정책대상가구의 기본적 주거욕구 충족에 충분히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가 공개되었고(2006), 또한 주택법에 의거한 대규모 주거실태조사인 '2006 주거실태 및 수요조사'가 처음으로 실시되어 그 결과가 발표되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이와 같은 시의성과 신뢰성이 높은 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주거욕구를 고려한 정책소요를 파악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 소요 및 재정소요를 가능해 봄으로써 향후 실효성 있는 주거복지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가구를 절대지원계층이라 할 때 이는 전체 일반가구의 35%로 그 규모는 552만 7천 가구로 나타났다. 이 중 우선적으로 주거복지정책 대상이 되어야 하는 가구인 주거복지정책 소요를 최저주거기준 미달인 자가가구와 최저주거기준 미달 혹은 최저주거비부담 과다인 임차가구로 정의하고, 조사자료를 추정한 주거복지정책 소요는 289만 2천 가구다. 이 중 자가가구는 21.1%, 임차가구는 78.9%로 임차가구가 자가가구보다 3배 이상이 많은데, 이는 우선적 주거복지정책 대상인 임차가구의 95.1%가 최저주거비부담 과다가구라는 사실을 반영한 결과다. 특히 자가가구 중 시설기준 미달가구와 임차가구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이면서 주거비부담 과다가구는 정책적 지원이 가장 절실한 계층으로 이들의 규모는 116만 9천 가구다.

주거복지정책 소요가구 규모를 가구의 선호나 필요

성에 따라 현행 주거지원 프로그램별로 배분하여 주거지원 프로그램 소요를 분석한 결과 공공임대주택 공급 소요는 88만 8천 가구, 주거비지원 소요는 144만 가구, 그리고 주택개량지원 소요는 56만 4천 가구로 나타났다. 이러한 주거지원 프로그램 소요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기존 주거지원 프로그램이 그 추진실적도 부족할 뿐 아니라 정책대상가구의 주거욕구 충족(최저주거기준 충족이나 최저주거비 부담 완화)에 충분히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향후 주거지원 프로그램은 이러한 최저주거기준 미달 혹은 최저주거비 부담 과다 가구를 우선적인 정책대상으로 하되 이들이 실제로 주거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적절한 주거비부담으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다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으로 정교화시켜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주거복지정책 소요가구의 주거욕구충족에 필요한 재원소요를 주거지원 프로그램별로 추계하였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경우에는 기 분석된 국민임대주택 100만 호 건설을 위한 재원조달계획을 원용하여 재정에서 13조 원, 국민주택기금에서 31조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주거비지원 프로그램에 필요한 재원의 경우에는 월세지원을 위한 연간재정소요가 1조 4,871억 원, 전세자금대출지원을 위한 국민주택기금 소요가 10조 8,883억 원(정책금리 2% 가정)으로 추계되었고, 주택개량지원 프로그램은 11조 2,800억 원의 국민주택기금소요가 필요한 것으로 추계되었다.

연구기간: 2007. 4. 1~2007. 6. 30
서지사항: 255면, 국토연 2007-8

>> 한·중 토지정책연구(VII)

: 토지정책의 중앙·지방 간 역할분담

Comparative Study on Land Policies of Korea and China(VII)

: Government, Locality, and Land Policy

정희남(편)

국토연구원과 중국 절강대학교 동남토지관리학원은 장기연구협약서(2003~2007년)에 따라 매년 한 개의 주제를 정하여 공동연구하고 있다. 본 연구보고서는 2007년도 성과물을 편집한 것으로 5편의 논문을 한국어 편과 중국어 편으로 나누어 수록하고 있다.

제1장은 한국의 토지정책 변화와 지방화시대의 토지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이 논문은, 전국을 대상으로 획일적으로 추진되는 토지정책의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도록, 토지가 가진 공공재적 특성과 지역시장의 특성을 통합한 지역 적합성을 제고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제2장은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농지의 비농지화(非農地化) 관리에 대한 중앙과 지방의 경합모형을 논의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새로 늘어나는 건설용지의 공급을 위하여 '총량규제, 층층분배, 통일분배'라는 중앙집중적인 정책결정과 지령성 관리를 실행하고 있다. 이 글은 '총량규제-시장배치'와 '총량규제-배당량 관리-시장조절'이라는 분권모형을 비교 분석하고, 중국의 농지 전용 관리정책 결정추세에서 실질적인 분권화의 나갈 방향을 논의하였다.

제3장은 한국을 사례로 도시계획의 중앙-지방 간 역할분담을 논의하고 있다. 이 논문은 1995년에 실시된 지방자치제가 빠른 속도로 정착단계에 접어드는 상황에서 각종 도시계획 권한을 차하위(次下位) 정부에 이양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짚어보고, 중앙과 지방의 역할 재정립을 통해 이들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4장은 중국의 도시계획행정체제와 주요 쟁점을 중앙과 지방의 역할 분담을 중심으로 고찰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분권화 추세 속에서 국가전략체계 내에서 도시계획이 갖는 위치와 역할을 감독 및 통제하기 위한 중앙 및 성(省)정부 차원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이 글은 중국의 도시계획 행정체제와 관리상의 주요 문제를 중앙과 지방 간의 역할 분담이라는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제5장은 한국의 부동산 관련세 부담의 지역적 불평등도(不平等度)에 관한 실증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지역적 불평등도'를 분석한 결과, 부동산 관련 국세가 부동산 관련 지방세보다 세부담이 지역적으로 불평등하고, 취득과세보다는 보유과세, 보유과세보다는 양도과세의 세부담이 지역적으로 불평등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부동산 관련조세의 세부담이 다른 조세보다 불평등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근 도입된 종합부동산세는 세부담의 불평등은 악화시킬 수 있을 것이지만, 지방정부의 '재정적 형평성'은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2007년 국내외 부동산시장 및 정책 동향 연구

Real Estate Market and Policy Trends in 2007

최 수, 손경환, 김재영, 김근용, 이수옥, 송하승

이 연구는 부동산 시장 및 정책 동향을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통해 향후 부동산시장을 전망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이 연구는 부동산대책의 파급효과와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국민경제의 선순환을 유도할 수 있는 원칙에 충실한 부동산대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보고서는 총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연구 목적을 제시하고, 본 연구의 시사점 및 활용효과를 제시하였다.

제2장 경제 동향 및 전망에서는 한국은행, 민간경제연구소 등에서 발간한 자료와 각종 통계자료를 토대로 세계경제 및 국내경제의 동향과 전망을 분석하였다. 2007년 중국경제는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며 일본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이루고 있으나 미국·유로지역의 경제는 성장세가 둔화될 전망이다. 중국경제는 국내의 수용 호조로 고성장을 이어가는 가운데 물가도 높은 오름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국내경제는 감속 추세에서 완만하게 벗어나는 가운데 소비자물가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며, 2007년의 GDP 성장률은 지난해 동기에 비해 높은 증가율을 보일 전망이다.

제3장에서는 월간별로 파악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 및 정책 동향」과 각종 통계자료 및 관련자료를 토대로 최근 부동산시장의 동향을 살펴보고, 2007년에 실시된 부동산 정책을 분석하여 정리하였다.

제4장에서는 연간 부동산 시장 동향과 부문별 부동산 정책 동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부동산시장 동향에

서는 연간 토지 및 주택의 가격과 거래 동향을 정리하였다. 주택관련 주요지표를 살펴보면, 2007년 PIR은 6.6배로 나타났으며, LTV는 전년에 비해 2.6% 감소한 35.9%, DTI는 181.6, PTI는 15.5%으로 나타나 전년보다 2.5% 감소하였다. 부문별 부동산 정책 동향에서는 주택공급 관련 정책·투기수요억제 등의 내용을 포함한 주택수요 관련 정책·분양가 규제 관련 정책·주택자금 지원 및 주택담보대출 등의 주택금융 관련 정책에 대하여 네 가지 부문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제5장에서는 미국과 일본의 부동산 동향을 정리하였고,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에서는 그간의 분석결과를 요약하고, 부동산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연구기간: 2007. 3. 5~2007. 12. 31
서지사항: 540면, 국토연 2007-40

교통연구실

- 도로 공간의 복합적 기능 활성화 방안 연구
: 도시내 도로를 중심으로
- 디지털국도 기반조성을 위한 통합교통정보 인프라 구축방안
-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 전국 도로망체계 발전방안 연구(I)
 - 국토간선도로망 구축 성과평가와 재편 구상
- 초기 유비쿼터스 환경과 대도시권 교통정책에 관한 연구
- 한국형 부가가치물류클러스터 창출 방안 연구

» 도로 공간의 복합적기능 활성화 방안 연구 : 도시내도로를 중심으로

Reallocation of Urban Road Space

이춘용, 류재영, 이우진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주민과 이용자의 편의성 증진을 위하여 도로 공간을 자동차에서 사람중심으로 활용할 정책대안을 작성하는 데 있다. 도로 공간은 신속한 통행을 중시하여 왔으나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지속가능한 교통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활용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연구의 내용은 도로 공간기능 활용 모형을 정립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활성화 프로그램 작성이다. 프로그램은 계획기준의 작성과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 주민참여 및 민간, 공공의 파트너십 구축 그리고 유지관리 운영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 연구결과는 첫째, 도로 공간활용 현황은 도로 공간활용의 변천과정을 도로의 차도, 보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대중교통 및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실태를 분석하였다.

둘째, 외국의 교통정책 - 스마트 성장, 대중교통중심 지구(트랜짓 몰), 지속가능한 교통, 유니버설 디자인-과 민간부문의 교통과 보행에 관한 연구동향과 도시 재생사업의 동향을 파악하였다. 대중교통과 보행환경 개선사업 이외의 공간활용 요소를 시사점으로 도출하였다.

셋째, 도로 공간활용에 대한 패러다임과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이의 적용 가능성을 사례지역을 통하여 검토하였다. 도로 공간기능 활용모형은 공간기능에 대한 정의와 함께 공간기능을 세분화하였다. 예를 들면 만남과 문화, 정보의 교류, 사회활동과 여가활동, 도시 녹화공간, 기타 공익향상을 위한 공간으로의 활용이다. 이의 추진주체, 사업 우선순위를 도시 내 국지도로에서 집산

도로, 간선도로 순으로 실시하고 커뮤니티 단위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넷째, 도로 공간기능 활성화 프로그램을 작성하였다. 계획지침의 신규 제정이 필요하고 도로의 폭원에 대한 탄력적 조정, 보도 폭원 확대, 보차공존도로의 확대 시행을 제안하였다.

주민참여를 위한 민간, 계획가(NPO 포함), 공공행정의 역할을 설정하였다. 이 가운데 우선적으로 중앙정부가 시행할 정책대안은 개별적인 사업시행이 아니라 도시와 전체 도로네트워크 차원의 정책 비전과 계획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주민 의견수렴과 주민 참여를 촉진할 세부시행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사업시행에 대한 평가와 계획 환류를 통한 제도 개선 및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도로 공간의 활용은 도시 내 도로에서 지역 간 간선도로(고속국도, 일반국도)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도로 공간활용은 도로뿐만 아니라 도시계획 및 도시설계, 교통계획에서 우선적으로 도입할 정책 수단이므로 도시 비전의 달성 측면에서 중앙정부가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디지털국토 기반조성을 위한 통합교통정보 인프라 구축방안

Development of Integrated Road Traffic Information Infrastructures toward u-Korea

이상건, 오성호, 고용석, 이백진

최근 정부는 새로운 국가경영전략으로서 ‘u-Korea’ 실현을 위한 디지털국토 공간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특히 교통부문에 관련해서는 u-city 건설사업, 환승교통통합정보시스템(TAGO: Transport Advice on GOing Anywhere) 구축사업, 전국단위 표준노드 링크 구축사업, 도로명 기반 표준전자지도 구축사업 등 다양한 관련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여 향후 전개될 유비쿼터스 환경의 실시간 교통정보서비스 기반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관련 사업들의 보다 효과적인 추진과 실시간 교통정보를 전국 어디서나 제공받을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디지털 국토 공간조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재 다양한 주체들에 의해 계획·구축·운영되고 있는 각종 교통정보 인프라 체계를 통합·연계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국내의 교통정보인프라 구축현황을 파악하고 선진국 사례 등을 분석하여 교통정보인프라 통합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통합수준을 종합평가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하여 궁극적으로 최적의 교통정보 인프라 통합구축방안과 세부정책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본 연구는 디지털 국토기반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가장 근간이 된다고 할 수 있는 교통정보 인프라체계에 대한 연계 및 통합수준을 진단하여 현재의 통합교통정보 인프라 수준을 종합적으로 파악한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의 전체적인 결과를 요약하면 교통정보 인프라의 통합수준

을 평가하기 위해 연계 및 통합을 위한 필수요소인 정보인프라, 통신인프라, 연계인프라, 사용자 인프라 등으로 구분하여 각 요소별로 평가하였으며 그 결과 아직 전 국토차원에서의 교통정보 인프라 수준은 미약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각 지역별 편차 또한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AHP 설문조사를 통해 통합교통정보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책적·기술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으며 그 조사에서 도출된 각 항목 간 가중치 결과를 활용하여 통합교통정보인프라를 종합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통합도 수준은 짧은 연구기간으로 인한 수집 데이터의 제약과 공공부문의 ITS사업위로 분석되었기 때문에 최근 민간부문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교통정보화 사업을 고려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방법론과 도출된 결과들은 전국 차원의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을 위한 종합적인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위한 방법론 제시, 지역 간 인프라 구축 수준의 편차를 파악함으로써 투자의 효율성을 기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아무쪼록, 본 연구가 디지털국토 공간을 보다 효과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각 부처별 추진 계획을 종합 검토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범부처적 통합구축 로드맵 제시를 위한 기초연구로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연구기간: 2007. 1. 1~2007. 12. 31
서지사항: 161면, 국토연 2007-14

>>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Strategies for Institutional Improvement for the Activation of the Bicycle Utilization

임영태, 류재영, 홍정열

산업화가 진전되어 갈수록 생활환경이 변화하고 각종 교통수단의 발달로 도시 내에 오염물질이 배출되어 환경오염은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도시들의 대기환경은 매우 열악하며 대도시권의 대기질은 OECD회원 국가의 주요 도시 중에서 최하위 수준에 있다. 이렇게 심각한 대기오염을 저감시키기 위해서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자전거는 우리에게 유해한 배출 가스를 배출하지 않아 자동차 대체 교통수단으로 이용할 경우 대기오염 감소뿐만 아니라 도시환경에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밖에도 에너지 절감, 개인의 건강 증진 등의 효과를 모두 고려한다면 자전거가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주는 비용 대비 효과는 매우 클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 친환경적 녹색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전거를 실생활에서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자전거 관련 법·제도 및 자전거 정책 현황을 검토하고 자전거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또한 현재 각 지자체에서 자전거 이용활성화와 관련하여 조례를 제정하고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등 자전거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를 지원하기 위한 역할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주요내용은 자전거의 특성 및 효과를 검토하여 이에 따른 자전거의 역할을 정리하였으며 국내외 자전거 선진국들의 법·제도 및 정책, 관련 시설, 홍보 및 교육 등 최신 사례를

검토하여 이러한 법·제도 및 정책들이 향후 우리나라 자전거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지 고려하였다. 또한 일반인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정책방안의 제시는 차량 위주의 교통 정책에서 녹색 교통정책으로 관점을 일부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자전거 관련 시설이 정비·확충되고 관련 법·제도가 정착되면서 교통이용자들이 도시교통수단을 승용차에서 자전거로 전환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연구에서 검토하였던 자전거의 특징 및 이용현황, 자전거 법·제도 현황, 해외 자전거 활성화 사례 등을 통하여 향후 우리나라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를 개선하고 정책과제 방향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기간: 2007. 6. 14~2007. 9. 13
서지사항: 133면, 국토연 2007-9

>> 전국 도로망체계 발전방안 연구(I) - 국토간선도로망 구축 성과평가와 재편 구상 -

The Development of Nationwide Road Network(I) - Focusing on the Performance Evaluation and Formulation of Revising the Master Plan on Arterial Road Network Development -

정일호, 김호정, 이미영, 정선영

전국도로망의 체계적 구축을 통한 도로계층 간 위계 확립과 지역간 접근성 제고를 통한 지역발전을 목표로 하는 국토간선도로망 건설계획은 남북 7개축, 동서 9개축(약 6,527km)의 간선도로를 건설하는 것으로, 2005년 말 현재 3,013km가 개통 운영 중이다. 그러나 최근 도로중심의 교통체계 고착화, 에너지·환경 측면의 외부불경제 심화 등을 이유로 국토간선도로망의 발전적 재편을 요구하는 사회적 압력이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는 국토간선망 구축의 성과를 평가하고 계획내용의 중장기 재편 및 발전방안 제시를 연구목적으로 하고 있다.

간선망 추진 성과분석은 교통계량모형을 이용하여 간선망 사업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고, 인지지도(cognitive map) 작성을 통하여 간선망 구축에 따른 이용자들의 국토공간상 거리저항감 해소 및 접근성 인지에 대한 인식변화를 실증적으로 분석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고속도로 간선망으로 차량 1대당 연간 75만 원의 통행비용 및 인구 1인당 연간 165시간의 통행시간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간선망 구축으로 지역 간 심리적 격리감이 전국 평균 60% 정도 해소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국토간선망 재편과 관련한 장애 여건변화 요인을 도출하고 요인 간 중요도를 산출하였다. 중요도 설문조사 결과, 향후 간선망 구축은 교통체계 측면의 요인을 가장 중시해야 하고 다음으로 저출산 등 사회·경제적 여건변화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또한 선진국의 간선도로망 구축전략을 검토하여

국토간선도로망 추진방향 설정에 반영하였다. 향후 간선도로망의 적정 사업규모를 외국 도로규모와 비교 및 도로와 철도 간 역할분담 방법 등을 통해 산출하여 국토간선도로망의 구축목표 및 추진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되는 도로정책 및 전국 도로망 체계의 발전방안은 국가 정책목표인 국토균형발전 및 다핵형 국토공간구조 개편 등을 뒷받침하는 것은 물론 국가 교통부문 발전전략 수립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기간: 2007. 1. 1~2007. 12. 31
 저지사항: 197면, 국토연 2007-37

» 초기 유비쿼터스 환경과 대도시권 교통정책에 관한 연구

Metropolitan Transportation Policy at an Early-Stage Ubiquitous Environment

정진규, 이백진, 임영태, 김종학

최근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DMB), 휴대용 인터넷(WiBro) 및 전자태그(RFID) 등의 상용화를 통해 현재 유비쿼터스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대도시권에서는 통행 및 직·주 선택 행태에 관하여 현재와는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통행 중 업무수행 등 생산적인 활동이 가능해져 통행시간가치에 대한 변화도 예상된다. 또한, 발달된 정보·통신기술로 보다 쾌적한 전원 지역에서 원격근무(telecommuting)가 가능해 '탈도시화현상(exurbanization)' 등 대도시권 공간구조가 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비쿼터스 환경으로 인하여 장래 대도시권에서 공간구조 및 통행행태의 변화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고려가 미흡하다. 또한, 유비쿼터스 환경에 대한 대부분의 논의가 언제 도달할지 불확실한 성숙단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초기단계에 대한 세부적인 전망이 미흡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초기 유비쿼터스 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예상되는 대도시권의 교통환경 변화를 전망하고, 변화된 환경에서의 광역통행행태 변화를 예측하여, 새로운 공간·교통 패러다임에서 고려되어야 할 대도시권의 교통정책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장래 교통환경의 변화의 주 요소는 통행정보서비스의 발달, u-Work의 활성화, 그리고 접근성의 비중 약화다. 정보화의 진행에 따른 대도시권 공간구조의 변화를 통근거리의 변화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정보화는 직·주거리를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통행행태 및 거주지

선택 변화에 관한 분석을 위하여 장래 교통상황을 가정 한 후 선호의식조사(stated preference survey)를 실시하였다. 유비쿼터스 환경하에서 제공되는 교통부분의 다양한 정보이용은 통행수단선택의 변화는 물론 거주지 선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었다.

새로운 공간·교통 패러다임 및 기존 정책·계획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광역교통에서 보완되어야 할 내용을 정책적·계획적인 측면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정책적 측면에서는 첫째, 대중교통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 둘째, 광역교통시설의 법적규정이 재정립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실시간 정보수집을 통한 실시간 교통수요관리 적용이 필요하다. 계획적 측면에서는 첫째, 광역교통계획 수립과정에서 공간구조와의 연계성 강화가 필요하다. 탈도시화를 고려하여 계획의 공간적 범위를 현실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중교통 활성화와 관련된 집약적 토지이용계획(대중교통지향적 개발 등)의 고려가 필요하다. 둘째, 정보수집 및 처리의 변화에 따른 교통계획의 정밀도 증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교통관련 자료의 실시간 갱신 및 세분화, 교통분석 단위상 미시적인 개인별 분석수행, 통근통행(점두교통) 비중 감소에 따른 간선축의 비중 조정 등이 필요하다.

연구기간: 2007. 1. 1~2007. 12. 31
서지사항: 133면, 국토연 2007-34

>> 한국형 부가가치물류클러스터 창출 방안 연구

Strategies for the Development of Korean Value-Added Logistics Cluster

임영태, 김경석

지난 반세기 동안 국내 경제성장을 주도했던 제조업의 국외 이탈로 동력 부족과 국가경제 위기론이 팽배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많은 미래학자들은 장래 우리나라 성장산업의 하나로 ‘물류산업’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중국이 자체적인 시설확보에 나서고 있으며, 대형선사들 역시 중국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어 우리나라 물류산업에 위기를 맞고 있다. 여기에 내부적으로는 고질적인 국내 물류산업계의 비효율성과 불투명성이 국제사회에 부정적인 측면으로 비쳐지고, 이는 곧 우리나라 물류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나라는 내부적인 물류체계 혁신과 대외적인 물류거점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새로운 정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정책으로 ‘클러스터’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미 국내의 타 분야에서는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도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 물류분야에는 도입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국과 일본의 물류거점들과 경쟁보다는 상생 전략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한 한국형 물류클러스터 창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즉, 여러 가지 형태의 물류클러스터 중에서 국제물류가 주로 발생하는 항만주변의 물류클러스터 모형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물류거점 구축방안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형 부가가치물류클러스터 모형 구성이 현재 국내 물류산업 및 물류시설의 현황분석에서 시작된 제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물류클러스터의

도입을 강조하였다. 또한 물류클러스터의 구성요소 도출을 위해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클러스터에 포함될 산업을 분석하였으며, 물류거점의 입지에 따른 분류 중에서 국제물류를 주로 취급하는 임항형 물류클러스터 모형을 제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광양항을 이러한 임항형 물류클러스터의 사례로 선정하여 적용함으로써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양항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물류클러스터의 효율적인 조성을 위해 하드웨어(H/W) 및 소프트웨어(S/W) 측면의 과제를 제시하였으며, 특히 민관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06

c h a p t e r Ⅱ

SOC · 건설경제연구실

- 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한 상생협력 방안
- 민간투자제도의 내실화를 위한 추진단계별 개선방안
- 전환기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정책 재정립 방안(I)
- 중장기 건설보증시장 전망과 대응방안
- BSC구축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효과적인 성과관리 방안 연구

>> 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한 상생협력 방안

A Study on Collaboration Measure to Overcome the Construction Industry Polarization

김재영, 권혁진

본 연구의 목적은 건설산업의 양극화 현상으로 인식되고 있는 건설업체 간의 수주격차 실태와 원인을 시장과 산업, 생산체계적 측면에서 분석하는 한편 이를 해소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다각도로 제시하는 데 있다. 특히 건설산업의 양극화와 상생협력에 대한 이론적 접근과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실태조사, 상생협력에 대한 국내외 사례 분석을 통해 양극화와 상생협력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의미와 정책적인 시사점을 도출하여 실현 가능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건설산업의 여건과 환경이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우리 건설산업의 양극화 현상은 여전히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건설업체 간의 수주격차가 대·중·소 건설업체 간의 양극화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즉, 대형건설업체와 중소건설업체, 일반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 수도권소재 업체와 지방소재 업체 간에 수주격차가 매우 심각하여 건설산업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건설업체 간의 양극화는 단순한 수주만의 관점에서 문제를 접근해서는 안된다. 양극화는 건설시장적 요인에 의한 구조적인 문제이며, 건설업체의 생산성과 경쟁력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다. 양극화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설문과 통계분석 등 가능한 방법을 통해 심층적인 분석을 수행하였다.

건설산업의 양극화는 건설시장 구조적 요인과 건설산업 구조적 요인, 건설생산체계(제도)적 요인에 의해 발생되고 또 심화된다. 이런 세 가지 요인에 의해 발생

하는 양극화를 해소하고 건설산업 구성원들이 서로 상생협력하기 위해서는 첫째, 상생협력 저해요인의 제거, 둘째, 상생협력적 발주제도의 활성화, 셋째, 중소 하도급자 보호제도 강화 및 상시감시체계 구축 그리고 끝으로,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육성과 지원이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해서 후진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는 건설부문의 양극화 원인과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함으로써, 건설산업의 고질적인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민경제에서 높은 비중을 점하고 있는 건설산업의 양극화 심화·확산을 방지하고 상생협력의 기반을 마련하게 됨으로써 국가 경쟁력 강화뿐만 아니라 건설산업에 대한 국민적·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선진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

연구기간: 2007. 1. 1~2007. 12. 31
서지사항: 127면, 국토연 2007-17

>> 민간투자제도의 내실화를 위한 추진단계별 개선방안

Alternatives for the Consolidation of Private Participation in Infrastructure

윤하중, 정일호

본 연구는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단계별로 현황의 파악 및 문제점을 분석한 후 각 단계별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까지의 민간투자제도 활성화의 이면에는 각 추진단계별로 정비해야 할 부분이 많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현 시점에서 민간투자제도 도입 당시의 상황과 현재까지의 민간투자제도 추진에 따른 투자효과를 비교하여 추진실적을 재조명한 후, 민간제도를 한단계 성숙시키기 위하여 전반적인 추진체계를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다. 추진체계의 재정립은 내실화를 기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현황 및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도록 흐름을 잡았다.

우선 내실화의 의미를 살펴보면, 민간투자법 및 시행령, 각 연도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등 민간투자사업을 보다 공고히 하는 것을 주요 의미로 하였다. 본 연구의 내실화에서는 ‘효율성’과 ‘창의성’의 두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두고, 창의성과 효율성 제고를 주요 목표로 삼았다. 그리고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효과를 구체적인 사업 사례를 통하여 여러 효과 측면에서 분석하여 민간투자사업 활성화에 당위성을 부여하였다.

본 연구의 본격적인 사항을 다루기 위해 대상사업 선정단계의 문제점, 사업계획의 검토·평가단계,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단계, 실시협약체결 등 사업시행자 지정의 단계별 문제점을 창의성과 효율성 관련 항목으로 나누어 살펴본 후에, 지적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실시된 설문 결과분석을 반영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개선방안 수립의 네 가지

기본방향을 설정하였고, 기본방향은 ‘사업시행조건의 합리화 방안, 경쟁추진을 통한 민간투자사업의 내실화,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대책의 추진, 민간투자제도 성숙을 위한 선결과제’이며, 각 단계마다 내실화의 주요 의미인 창의성과 효율성 제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단계별로 정리되어진 문제점들의 개선방안을 전문가 설문과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제시하였고, 단순히 단계별 나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효과적인 개선방안 도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창의적으로 재구성하여 네 가지 줄기를 통해 풀어놓았다. 그리고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는 내실화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창의성과 효율성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전개하였다. 자칫 모호하고 너무 포괄적일 수 있는 요소를 정확히 짚어 개선방안 제시에 합리성과 명료성을 더하였고, 일관성을 부여하였다.

앞으로 본 연구의 결과가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와 한 단계 더 성숙한 제도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어, 국가 경제에 기여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에도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연구기간: 2007. 1. 1~2007. 12. 31
서지사항: 162면, 국토연 2007-30

>> 전환기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정책 재정립 방안(I)

Reestablishing Investment Policies for Social Overhead Capital in the Period of Transmission(I)

유재운, 안흥기, 김민철

이 연구는 SOC 투자를 둘러싼 여건변화에 따라 새로운 SOC 투자정책방향의 모색과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연구로서 2단계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우선 1단계 연구는 향후 투자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연구로서, 과거 SOC 투자정책의 문제점 분석, 주요 선진국의 SOC 투자정책 동향 및 제도 조사, 그리고 장기적 SOC 수요와 공급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래 여건변화 전망을 통하여 장기적 SOC 투자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1단계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미래 여건변화 전망으로 수요에 영향을 주는 여건변화로는 경제성장의 안정추세, 인구증가의 정제 및 인구구조변화, 경제구조의 변화, 재정운용기조의 변화, 지역균형발전 정책, 시설노후화, 환경 및 안전의식의 제고 등의 변화가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는 기존 수요를 감소시키기도 하지만 신성장동력부문을 뒷받침하는 기반시설 투자, 친환경·안전을 중시하는 투자, 지역균형발전,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을 위한 선도적 투자 등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이기도 하다. 둘째, 공급측면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는 신기술의 출현, 공급구조의 변화, 시민의식의 변화 등이 있다. 기술혁신은 지능형교통시스템(ITS), 자기부상열차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SOC 시설을 출현시키기도 하고, 시설을 건설하는 방식과 비용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공급 체계에 있어서도 소위 Best Value를 지향하는 입찰방식으로서의 전환, 건설부문 간 겸업제한 폐지 등 경쟁촉진, 민간투자 평가제도의 합리화 등의 변화가 예상된

다. 그리고 시민의식의 변화는 환경 및 안전가치에 대한 높은 관심과 참여로 인해 SOC시설 공급과정이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재정여건의 변화 방향은 우선 복지재정지출의 증대로 인해 상대적인 축소가 예상되며, 이와 함께 성과중심의 재정시스템 개혁으로 재정지출의 자율성은 늘어나지만 이와 함께 책임성이 강조되어 시설의 물량적 확대보다는 국민생활 개선에 실제로 기여할 수 있도록 타당성에 근거한 사업 선정과 효율적인 사업집행 등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투자정책 방향은 대략 국가경쟁력 제고, 국민편의 증진, 동북아 통일네트워크 구축 등으로 집약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첫째, 종전의 물량 위주 투자기조에서 성과와 가치를 지향하는 질적 투자로 전환되어야 하며, 둘째, SOC 투자 본연의 기능을 다하고 국가장기발전 관점에서 새로운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선도적인 투자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마지막으로 기존의 공급위주 투자에서 새로운 투자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효율적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연구기간 : 2007. 1. 1~2007. 12. 31
서지사항: 118면, 국토연 2007-43

>> 중장기 건설보증시장 전망과 대응방안

A Study on the Construction Surety Bond Market

김재영, 권혁진

본 연구의 목적은 중·장기적으로 건설보증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요인들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보증시장의 규모와 구조의 변화를 전망하며,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본 과제를 통해 건설보증시장의 규모와 성격 등의 변화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전망과 중장기적인 대응전략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향후 보증시장의 개방범위와 규모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2008년부터 2015년까지 건설보증상품별 비중의 변화를 감안하여 총 건설보증시장의 규모를 전망하였다. 추정결과, 중장기 건설수주시장의 안정적인 성장에 힘입어 건설보증시장도 성장이 예상되고 있으나, 개별 보증기관의 보증시장에는 큰 변화가 예상되었다. 건설보증시장은 건설수주 증가 추이가 반영되어 향후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총 건설보증 시장규모는 2008년에는 38.5조 원으로 증가하고 2012년에는 51.3조 원, 2015년에는 62.8조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다음으로 건설업체의 선택행태 분석을 통해, 건설보증시장 환경과 여건의 변화에 따른 건설보증시장의 구조변화를 파악하였다. 건설업체의 건설보증기관 선택행태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건설보증시장의 구조변화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일반과 전문건설업체 간에 건설보증기관 선택행태에 매우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일반건설업체의 경우 건설보증제도가 변화할 경우 건설

관련 공제조합을 선택하는 확률이 매우 낮았으며 이는 건설보증시장에서의 건설관련 공제조합의 비중과 역할이 감소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응답자가 건설보증제도의 각 조건에 대한 중요도를 인식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건설관련 공제조합을 건설보증기관으로 이용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건설관련제도와 건설관련 공제조합의 역할과 중요성 등에 대해서 건설업체에게 폭넓게 홍보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대응방안을 단기와 중장기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건설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각 공제조합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단기적 방안을 제시하였고 중장기적으로는 건설생산체계와 시장개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제조합 간 경쟁 유도방안과 공제조합을 건설보증 전문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건설보증시장의 개방이 건설산업의 바람직한 성장을 위해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 BSC구축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효과적인 성과관리 방안 연구

Effective Performance Management for th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in viewpoint of BSC

배경화, 김성일

지식기반시대가 도래하면서 과거 요소투입형 경제구조에서 혁신주도형 내지는 창조형 경제구조로 급격하게 변화해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와 시범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위해 BSC접근방법을 통해 정책프로세스에 따른 성과관리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BSC를 통해 전략 맵을 설정하고, BSC의 4대관점인 고객관점, 성과관점, 프로세스 혁신관점, 학습과 성장관점별로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를 “국민경제발전 기여”를 포함한 14가지로 정하였으며, 그에 따른 세부적인 성과지표 30가지를 도출하여 관리하도록 하였다. 또한,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와 시범사업의 정책 프로세스별로 각 단계와 관련된 정부 및 유관기관이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를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효과적인 성과관리가 달성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와 시범사업의 성과관리체계는 크게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제1단계로서 사업의 계획단계(정책입안, 지원조건 결정), 제2단계인 사업의 집행단계(입주기업에 대한 세부지원체계 및 지원수단 추진), 제3단계인 사후관리단계(입주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연계, 모니터링 등), 성과측정 및 피드백단계(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의 성과 측정 및 측정 결과의 지속적 반영) 등 정책성과 평가단계로 구분하여 성과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결국, 본 연구를 통해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와 시범사업에 대한 BSC를 통한 성과관리체계 구축에 있어 정책적 · 시스템적 대응방안을 살펴보았다. 우선, 정책

적 대응방안으로는 시범사업의 추진에 있어 관련된 여러 기관들의 역할체계를 체계화하고, 사업의 차별적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를 관리해야 하며, 디지털예산체계와 연계한 성과관리, 그리고 사업별 BSC성과관리매뉴얼 등의 보급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시스템적 대응방안으로는 시계열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통한 종합적인 BSC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서 참여정부에서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여 운영되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한 부분인 「산업단지혁신클러스터와 시범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위해서는 정책프로세스에서 정책입안-정책결정-정책집행-정책평가 등에 관련 모든 정부부처와 유관기관의 체계적인 성과관리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시한 것이다.

연구기간: 2007. 3. 14~2007. 9. 30
서지사항: 109면, 국토연 2007-11

국토정보연구센터

- 공간정보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한 국가GIS 전략 연구
- 국가공간정보에 대한 세계측지계의 체계적 적용방안
- 국토정보화 혁신을 위한 지능형국토 추진방안(I)
 - 개념과 기본모형 정립을 중심으로 –
- 국토정책의사결정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 연구
- u-City 구현을 위한 계획체계 정비방안 연구

» 공간정보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한 국가GIS 전략 연구

Strategies of NGIS in Preparation for Paradigm Shift in Geospatial Information

사공호상, 서기환, 이영주, 박종택, 서용철

이 연구는 정보화 사회의 진전과 함께 등장한 공간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계기로 1995년부터 10년 이상 추진된 국가차원의 GIS사업이 급변하는 기술 환경과 산업 및 사회문화적 변화 양상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다. 특히, 패러다임 개념을 도입하여 급변하는 공간정보 구축 및 활용환경의 변화로 창출되는 미래 사회에 대한 분석과 예측을 통해 미래에 대비한 국가GIS전략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먼저, 공간정보 및 패러다임에 대한 이론과 학문적 배경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공간정보의 패러다임 분석을 위하여 공간정보 기술, 산업, 사회문화 세 가지 측면에서 변화를 분석하였다. 공간정보의 트렌드 변화는 향후 공간정보기술, 정보통신 기술 그리고 유비쿼터스 기술이 융합하는 형태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은 측량, 정보통신 등 요소기술을 융합하는 융복합산업으로 발전하였지만 향후에는 유비쿼터스 정보환경에서 서비스산업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앞으로 공간정보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사용자를 중심으로 주변의 상황(Context)을 인식(Awareness)할 수 있는 다이나믹한 형태로 발전할 것이다.

이러한 배경하에 미래 국가GIS는 ‘유비쿼터스 공간정보사회’를 실현하는 기반이 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공간정보사회란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정확한 공간정보를 빠르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사회를 말한다. 유비쿼터스 공간정보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서는 국가GIS기반을 유비쿼터스형으로 개선해야 하고, 그에 상응하는 표준, 법제도 등의 개선이 요구된다.

이 연구는 국가GIS의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패러다임을 기술과 산업 그리고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분석한 것이다. 따라서 공간정보 패러다임을 분석하는 데 필요한 모든 요인을 고려했다고 볼 수는 없으며,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아울러, 거시적 차원에서 공간정보의 생산 및 활용환경 등 포괄적인 패러다임 변화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중장기적인 국가GIS정책방향과 전략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제시하는 정책과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연구가 추진되어야 한다.

연구기간: 2007. 1. 1~2007. 12. 31
서지사항: 173면, 국토연 2007-13

>> 국가공간정보에 대한 세계측지계의 체계적 적용방안

Policy Framework for Introducing World Geodetic Reference System

신동빈

기존 2007년에서 2010년으로 유예된 세계측지계 전환을 위한 기술적 사항은 국토지리정보원을 중심으로 정비되고 있으나, 관련기관의 협조 및 진행이 미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세계측지계로의 전환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적용방안 및 정책적 실행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의 목적은 세계측지계로의 전환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적용방안 및 정책적 실행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측지기준계는 지구상에서의 위치를 경위도로 표현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좌표계 및 지구의 형상을 나타내는 타원체를 총칭한다. 측지기준계는 세계 측지기준계와 지역 측지기준계로 구분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사용되어 왔던 측지기준계는 동경원점을 기준으로 하는 지역측지기준계인 동경측지계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지구중심이 기준이 되는 세계측지계를 사용할 경우 동일한 위치 정보가 제공되어 세계 어디서나 정보의 공동 활용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선진국은 지역측지계를 세계측지계로 전환 중이며, 우리나라 또한 세계측지계의 도입을 추진 중이다.

외국에서는 세계측지계 도입을 위해 국가차원에서 지원체계를 정비하고,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를 대비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갖추고 있다. 국내에서는 국토지리정보원, 해양수산부 및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세계측지계 전환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지리정보원을 중심으로 다양한 연구 결과가 도출되고 세계측지계로의 전환을 위한 기술적·제도적 기반은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으나 지방자

치단체나 공공기관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세계측지계 전환에 대한 범부처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추진조직 및 예산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세계측지계 전환에 대한 홍보 및 전문지식의 전파를 위한 교육체계의 마련 또한 요구된다.

세계측지계의 체계적 적용을 위해 데이터의 효율적 전환방안, 추진체계 정립방안, 소요재원 확보방안, 기타 지원방안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데이터의 효율적 전환방안은 변환대상을 위치기준점, 지도, GIS 데이터베이스 및 응용시스템, 관련 법령 및 규정, 교과서 및 서적으로 분류하여 세부 대상 항목을 도출하였다. 세계측지계 전환을 위한 조직체계는 국무조정실이 주관이 되는 방안과 건설교통부가 주관이 되는 방안, 국토지리정보원이 주관이 되는 방안으로 구분하여 대안을 제시하였다. 소요재원 확보방안은 세계측지계 전환에 소요되는 재원은 국가에서 중앙부처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적극적 예산지원을 제안하였다. 세계측지계의 성공적 전환을 위한 기타 지원방안으로는 국민홍보 방안과 교육방안을 제안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세계측지계 변환을 위한 기술적 사항에 중점을 두고 수행되었다. 세계측지계 전환은 범국가적인 사업인 만큼 국가차원의 추진정책의 정립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기간: 2007. 4. 1~2007. 6. 30
서지사항: 83면, 국토연 2007-5

>> 국토정보화 혁신을 위한 지능형국토 추진방안(I) - 개념과 기본모형 정립을 중심으로 -

Intelligent National Territory Strategies for Innovation of National Territorial Informatization(I)
 - Focused on the Concept and Basic Model -

정문섭, 신동빈

이 연구는 지식정보화사회의 기반인 ‘디지털통합국토’ 중 지능형국토의 구축을 위하여 지능형국토의 개념정립과 기본모형 및 서비스모델 등 추진모델을 도출하는데 있으며, 지능형국토 기본구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략과 추진방안을 차년도에 도출할 계획이다.

이 연구에서는 ‘다중지능이론’의 개념을 국토에 접목시키기 위하여 인간의 뇌에서 수행되는 정보화 메커니즘과 부합하는 국토의 지능화를 통하여 정보의 습득에서부터 실행까지 수행하는 지능화된 국토를 구현하고자 하였다. 즉 국토의 지능화를 위해서는 시각 및 청각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토에 센서를 부착하고, 이를 통해 습득한 정보를 추론하여 국토정보관리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는 연계과정을 도출하였다.

‘지능형국토’란 첨단정보기술 및 통신망을 활용하여 지상, 지하, 해양의 국토인프라 관련 국토상황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국토공간관리의 혁신을 도모하고, 국토환경, 방재, 안전 등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대국민서비스 체계를 제공하는 차세대국토를 통칭하고 있다.

국토의 지능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국내사례와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사례를 살펴보았다. 국토지능화 관련사례는 각국의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기업, 학계 등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례를 검토하였다.

국내의 국토지능화 추진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으나 사업 간의 연계가 미흡한 실정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중앙정부의 지원정책 부재 등으로 계

획수립 수준에 머물고 있다.

국내외에서 추진 중인 국토지능화 관련사업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토지능화의 공통적인 기반인프라의 조기 구축과 지자체 및 민간의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하여 실용성 있는 서비스모델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토정보화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토의 지상, 지하, 해양 등에 공통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유비쿼터스 환경 공간정보기반의 국토지능화 수요를 조사하였다. 중앙정부, 지자체, 전문가를 대상으로 지능형국토의 서비스 활용목적, 서비스 활용의 장애요인, 서비스 분야 등을 조사하여 우선순위가 높고 활용성이 높은 국토지능화 서비스사업을 발굴하였다. 도출된 서비스 모델은 중단기적으로 구현이 가능한 모델을 중심으로 부록에서 상세한 구현방안을 기술하였다. 이러한 국토지능화 수요의 바탕하에 차별화된 국토정보서비스, 유비쿼터스 GIS 지향, 유의미한 지리정보기반 데이터화 등 지능형국토 기반의 대국민서비스체계 구축을 위한 국토지능화 추진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기관별로 추진 중인 국토지능화 관련사업을 범부처적인 차원에서 추진할 것과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으로 서비스사업을 발굴하고 사업의 우선순위 선정, 법제도의 정비, 관련기술개발 등을 건의하였다.

연구기간: 2007. 1. 1~2007. 12. 31
 서지사항: 268면, 국토연 2007-41

>> 국토정책의사결정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 연구

A Study on the Basic Frameworks of the National Territorial Policy Decision Support Systems

최병남, 이종열, 임은선, 김 겐

국토정책의사결정지원체계는 지리정보체계(Geographic Information Systems) 기반의 공간분석 기법을 이용하여 한국의 국토정책 및 계획을 위한 의사결정을 지원해 주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일종의 공간의사결정지원체계 또는 계획지원체계로 정책결정자들의 공간의사결정을 지원한다.

국토정책의사결정지원체계는 1990년대 중반부터 구축된 건축행정정보시스템과 토지종합정보시스템에서 획득한 개별정보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지리정보체계 기반의 공간의사결정지원체계나 계획지원체계의 종합적인 기본적 구성요소를 고려함으로써 국토정책의사결정지원체계의 이론적 틀을 설정하고 기본구상을 제시하며, 정보시스템 관점에서의 응용시스템 개발전략과 응용시스템의 기반이 되는 기반확보전략 및 추진전략을 제시하는 데 있다.

국토정책의사결정지원체계는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과 계획이 합리적으로 수립(plan)-시행(do)-평가(see)될 수 있도록 하는 과학적인 지원을 목표로 한다. 목표 달성을 통해 국토정책 및 계획과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국토정책의사결정지원체계의 비전이다. 이와 같은 비전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토정책의사결정지원체계는 응용시스템과 기반환경으로 나뉘게 된다.

응용시스템은 공간자료관리, 분석모형관리, 지식관리 및 인터페이스로 구성되며 기반환경은 개발도구, 통합공간데이터베이스, 표준화, 협력적 의사결정지원체제로 구분된다.

응용시스템의 공간자료관리시스템은 다양한 공간 DB 및 통계 DB를 이용하여 응용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분석모형관리시스템은 공간자료와 지식을 이용하여 다양한 상황에 적합한 분석모형을 컴포넌트와 라이브러리의 설계를 통해 관리한다. 지식관리시스템은 분석모형의 정확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전문가의 지식, 기술, 경험, 학술이론, 기준, 법령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인터페이스는 사용자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기반환경확보전략에서는 자료의 공유와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해 공개표준 및 오픈소스 개발의 장점을 제시하며, 통합공간데이터베이스의 구축으로 인한 정보인프라의 정확성과 신뢰성 및 현재성의 제고방안을 제시하고, 국토정책 및 계획과정에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국토정책의사결정지원체계 개발전략은 국토정책 분야의 정보화를 추진하는 데 기본적인 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정책의사결정지원체계는 국토정책 및 계획 과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개선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다. 개별적으로 구축되어 운영되던 정보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를 공간데이터웨어하우스로 구축함으로써 자료공유가 원활해질 것이다.

연구기간: 2007. 1. 1~2007. 12. 31
서지사항: 221면, 국토연 2007-27

>> u-City 구현을 위한 계획체계 정비방안 연구

The Study on the Planning System for the Realization of u-City

김정훈, 조춘만, 김동한

이 연구는 u-City 구현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체계의 틀을 정립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첫째, u-City 계획과 관련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 u-City 계획체계의 개념, 특성, 구성요소를 정립한다. 둘째, u-City 계획대상을 u-인프라, u-서비스, u-공간, u-시민으로 설정하고 각각의 개념정의와 구현방향 및 구현전략을 제시한다. 셋째, u-City 계획구조로 주체, 범위, 목표, 수립주기, 내용, 집행 등을 새롭게 정비하고 계획위계별로 중앙정부 차원의 종합계획과 지방정부 차원의 도시계획 및 사업계획의 위상구조를 정립한다.

이와 같은 목표하에 이 연구에서는 u-City와 u-City 계획체계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u-City 계획체계에 대한 특성과 구성요소를 제시하였다. 또한 u-City와 관련된 계획과 법제도를 분석하고,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실제 사례를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u-City 구현을 위한 계획체계 정비의 기본방향, 4대 계획대상별 구현방안, 계획구조 및 위계별 정비방안과 법제도적 정비방안을 제시하였다. u-City 계획대상별 구현방안에 관해서는, u-시민, u-공간, u-인프라 및 u-서비스를 대상으로 개념, 구현방향 및 구현전략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u-City에 대한 4대 계획대상을 그 현실적 실현가능성과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하여 u-인프라, u-서비스, u-공간, u-사람 순으로 제안하였다. 한편, u-City 계획구조의 위계별 정비방안으로서, 이 연구는 계획구조를 계획주체(who), 계획범위(where), 계획목표(why), 수립주기(when), 계획내용(what), 계획집행(how)으로 설정하고 u-

City 종합계획, u-City 기본계획 및 u-City 사업계획 등의 계획위계별로 각 위계상 유사 관련계획과의 비교 검토 및 u-City계획체계 구현의 기본방향에 비취 개별 대안들을 제시하였다. u-City의 구현을 위한 법제도의 역할은 실질적으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등에 관한 법률안」이 수행할 수 있다. 다만 법률안이 온전한 효력 발휘를 위해 미흡한 내용에 관해 일부 수정 및 개선을 위한 중장기적 권고사항을 제안하였으며, 이를 단기, 중기, 장기에 걸친 3단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2007년 말 현재 국무회의에 의결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등에 관한 법률안」이 최종 확정되면 향후 u-City 관련 계획적 수요가 증대할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계획체계의 틀을 활용하면 u-City 관련 계획 수립에 대한 불명확함과 혼란을 줄이는데 일조할 것이다. 또한 이 연구는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등에 관한 법률안」의 위상, 기본방향과 큰 틀을 공유하면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에 대한 정비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향후 본 법률안의 단계별 발전방향을 마련할 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기간: 2007. 1. 1~2007. 12. 31
서지사항: 180면, 국토연 2007-361

동북아발전연구센터

- 동북아 핵심경제지역의 발전 전망과 연계망 구축(I)
 - 지역현황 및 발전 전망과 지역연계 분석 -
- 베세토 비즈니스 회랑 구축 제안
 - 동북아 교통망의 비전과 실천 -
- 한반도 기반시설 개발의 기본구상 연구(II)
 - 기반시설 개발의 추진체계와 자원조달

>> 동북아 핵심경제지역의 발전 전망과 연계망 구축(I) - 지역현황 및 발전 전망과 지역연계 분석 -

Development Prospects for and Collaborative Development of the Core Economic Regions in Northeast Asia (I) - Development Prospects and Inter-Regional Linkages

김원배

이 연구의 1차 연도 목표는 동북아의 경제지리를 좌우하고 있는 8대 핵심경제집적지의 현황과 발전전망 그리고 이들 지역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데에 있다. 거시적 차원에서 보면, 동북아는 과거와 달리 중국의 3대 핵심지역의 부상이 두드러진다. 구매력지수로 계산한 지역총생산 규모에 의하면, 2006년 현재 일본의 간토지역과 중국의 창장(장강)지역이 2강을 형성하고 중국의 주장(주강)지역이 1강, 그리고 일본의 긴키, 추부, 중국의 징진기(경진기), 한국의 수도권과 영남권이 5약을 형성하고 있는 구도다. 2020년이 되면 이러한 구도는 중국의 창장지역이 1강을, 일본의 간토와 중국의 주장이 2강을, 그리고 나머지 지역이 5약을 형성하는 구도로 재편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경제력의 지리적 변화는 동북아에서 제조업의 지리적 분포 변화에서 일차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시도한 입지계수 분석 결과, 과거 10여 년 동안 동북아의 제조업 특화는 주로 중국 3대 핵심지역에서 발생하였고, 일본의 3대 핵심지역은 제조업에서의 상대적 위상 추락을 겪어 왔다. 한국의 2대 핵심지역은 현재까지는 제조업에의 특화를 유지하고 있으나, 중국의 급속한 추격으로 상대적 비중 축소가 예견된다.

서비스부문에서는 일본의 간토지역과 한국의 수도권에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누리고는 있으나, 서비스업의 성장 속도가 제조업에 비해 낮아 동북아의 경제지형 재편에 압도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는다. 홍콩을 중국의 주장지역에 포함시킬 경우, 향

후 동북아에서 서비스부문에서의 경쟁은 일본의 간토권, 한국의 수도권, 그리고 중국의 주장권이라고 하는 세 지역 간의 경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중, 일 핵심지역은 교역과 투자를 통하여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그중에서도 중국의 창장지역은 한, 일 핵심지역과의 교역에서 가장 핵심적인 교역 대상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핵심지역 간 교역에서 가장 중요한 품목은 전기전자 관련 업종이며, 이 업종은 동시에 산업 내 무역이 가장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류의 흐름도 대체적으로 이들 핵심지역 간의 교역 강도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역간 연계 분석 결과, 중국의 징진지 지역이 여타 핵심지역과 가장 많은 수의 연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징진지 지역은 적어도 동북아 역내에서의 중심적 위상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의 외부 연계가 지역경제의 개방성에 근거한 성장가능성을 의미한다면, 역내 연계강화는 지역발전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시사점이 도출될 수 있다.

연구기간: 2007. 1. 1~2007. 12. 31
서지사항: 256면, 국토연 2007-25

>> 베세토 비즈니스 회랑 구축 제안 - 동북아 교통망의 비전과 실천 -

Proposal to Build the BESETO Business Corridor
- Vision and Action Plan for Trans-Northeast Asian Transport Network -

김원배, 류재영, 오성호, 서민호

이 연구는 동북아의 골간을 형성하고 있는 베세토 회랑에서 교류 확대와 지역주의 정착을 위해 베세토 축을 중심으로 하는 비즈니스 회랑 구축을 위한 실천적인 전략과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고 있다.

베세토 회랑의 구축은 사람, 물자, 정보의 이동을 원활하게 하여 한, 중, 일 3국의 교류를 촉진한다는 실질적인 의미와 더불어 부차적으로 한, 중, 일 3국 시민들의 동북아에 대한 지역공동체 의식의 제고라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베세토 회랑은 동북아 경제에 있어서 한, 중, 일 3국의 무역 및 관광교류를 촉진시키는 동시에, 지식과 정보의 교류채널로 활용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베세토 회랑을 따라 활성화된 문화·경제·인적 교류는 동북아지역에 결여된 지역공동체 의식을 함양하여 지역주의의 착근을 도와 줄 것이다. 공동의 번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지하는 지역주의는 한, 중, 일 3국이 공유할 수 있는 비전이며, 동시에 세계화의 흐름에도 부합되는 개념으로 수용할 수 있다.

베세토 비즈니스 회랑 구축을 위한 실질적인 행동계획은 교통회랑의 구축에서 출발될 수 있고, 이는 곧 현재 베세토 회랑에서 사람과 물자의 흐름을 막는 주된 장애물이나 단절구간을 해소하는 데 달려 있다. 이 연구에서는 실태 파악을 위해 북한을 통한 육로 구간을 제외하고 한국의 서울에서 일본의 도쿄, 중국의 베이징에 이르는 구간을 현지 조사하였다. 베세토 수송회랑의 개선을 위해 한, 중, 일 3국의 공동 연구진이 세 차례의 워크숍을 통하여 의견의 일치점을 모색하였다.

수송회랑을 화물과 여객으로 구분해보면, 화물에서는 연안해운과 육로를, 여객은 항공과 연안해운이라는 복합 수송체계의 구축이 시급하고, 수송 수단 간 네트워크 구축이 긴요함을 알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한-중, 한-일 간 열차-페리 시스템이나 트럭복합수송체계를 이용하게 되면 화물운송시간과 운임절약 효과를 클 것으로 추정되어, 적극적인 추진을 제안하고 있다.

사람의 이동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하고, 신속한 교통수단이다. 한, 중, 일 3국 간의 비즈니스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1일 비즈니스가 가능한 권역을 확대해 나가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대도시 간 셔틀서비스의 도입이 필수적이다. 동시에 지방의 중소 도시를 위해서는 소규모 제트여객기의 도입을 통해 지역 내 항공 수송네트워크의 구축을 제안하였다. 물론 사람이나 화물의 출입경 절차의 간소화는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하고, 비즈니스맨을 위한 특별 패스의 도입은 시범적으로 베이징 올림픽 기간에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와 달리, 이상과 같은 실천적인 제안과 더불어 한, 중, 일 3국의 정책 당국이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둘 수 있다.

>> 한반도 기반시설 개발의 기본구상 연구(II) - 기반시설 개발의 추진체계와 자원조달

Basic Design for Infrastructure Development on the Korean Peninsula - Focusing on Cooperation Framework and Financing High Speed Rail and the Changes of Spatial Structure(II)

이상준, 김원배

이 연구는 북한의 기반시설 개발을 위한 국제적 협력체계 구축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다자 간 국제협력체의 대안으로서 ‘한반도 기반시설 개발기구(KIDO: Korean Peninsula Infrastructure Development Organization)’를 제안하고 있다. 이것은 과거 구성되었던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를 변형한 협의체다. 다자 간 협력구도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장점이 있다. 첫째는 다자 간 합의를 통해 북한 정부의 임의적 행동을 제어할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는 여러 경로를 통해 재원을 조달하기에 보다 용이하다.

현재 북한개발지원에 대해 주된 관심을 갖고 있는 국가는 우리와 중국이다. 현재 6자회담이 진행되고 있는데, 6자회담 참여국의 주요 이해당사국들인 북한과 중국, 러시아 간의 접경지역에서 3자 간 또는 4자 간 협력이 진행될 수 있다. 일단 6자회담에서 안보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찾아진다면, 북한지원을 위한 구도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사례를 토대로 ‘한반도 기반시설 개발기구(KIDO: Korean Peninsula Infrastructure Development Organization)’가 구성될 수 있을 것이며, 이것을 통해 국제공적 자금을 토대로 주요 기반시설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KIDO의 주요 임무 가운데 하나는 개발관련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중단기(2008~2011)적으로 기반시설 개발에 대한 장기구상(grand plan)이 수립될 필요가 있는데, KIDO는 이 과정에서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

을 것이다. 이 단계에 북한은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할 수 있을 것이며, 몇 가지의 협력촉진사업들이 실행될 수 있을 것이다. 협력촉진사업에 있어서 우선순위는 접경지역이나 교통의 중심거점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다자 간 협력을 위한 협력촉진사업으로서 ‘나진 사업’을 제안하고 있다. 나진은 한반도중단철도(TKR)과 시베리아횡단철도(TSR)의 연결지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문사업을 연계한 통합적 협력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 이 사업은 인적자원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포함해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한반도의 서해안축과 동해안축을 따라 진행될 대규모 사업이 KIDO와 국제금융기구를 통해 추진될 필요가 있다.

연구기간: 2007. 1. 1~2007. 12. 31
 서지사항: 193면, 국토연 2007-29

도시혁신지원센터

-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Ⅱ)
: 시민이 참여하는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사례편)
-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해외사례 단행본 번역·출판과제(Ⅱ)

>>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II)

: 시민이 참여하는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사례편)

Making the Livable City with Citizen Participation: Case Study of Korea

진영환, 류승환, 조판기, 김진범, 권영상, 정윤희

이 연구는 우리 실정에 맞는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의 개념을 정립하고 그 추진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국내에서 시도되고 있는 시민이 참여하는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의 대표적인 사례들을 대상으로 심층 분석하여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의 체계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최종적으로 9개 사례 지역을 선정하여,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과 관련된 리더와 리더십의 역할, 참여와 협력의 촉진 및 갈등의 해소 등에 대한 사례조사를 실시하였다. 사례조사 결과,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도시·마을 만들기에 있어 리더의 역할은 사업의 성공에 결정적 요인이 되며 성공적 지역에는 반드시 뛰어난 리더가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주민의 요구를 수렴하고 이해당사자 간 공감대를 형성하며 이를 바탕으로 비전을 설정하는 것이 리더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임을 알 수 있었다.

셋째, 도시 만들기의 목적은 주체의 성격에 따라 매우 다양하며 이러한 이유로 도시 만들기 과정에는 갈등 유발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음이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갈등은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갈등상황을 정상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해소해가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계획과정에서 주민이 소외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획과정에서 주민이 소외되는 경우는 대부분 행정의 효율성 증시, 주민의 낮은 인식도 및 무관심, 주민의 역량부족에 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섯째,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에 있어 계획과 및 전문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참여적 계획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계획가나 전문가가 적극적으로 관여하기보다는 청취자나 카운슬러(counselor)가 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정부와 지자체는 주민들이 스스로 합의를 도출하고 계획을 수립하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간접 지원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물리적 시설 위주의 재정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소프트한 측면의 재정지원 역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홍대지역의 놀이터 사업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사업 특성에 따른 제도 개선방안이 동시에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해외사례 단행본 번역·출판과제(II)

Translating and Publishing Books of Foreign Case Studies on Making Livable cities(II)

정윤희, 진영환, 박순업

본 과제는 국내에서 역사가 오래되지 않은 시민이 참여하는 도시만들기 운동의 선진사례를 담고 있는 양서를 번역하여 출간함으로써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사업에 대한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고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사업의 공론화를 도모하고자 기획되었다. 이를 위해 마치즈쿠리라는 이름의 마을만들기 운동의 역사가 40여 년에 이르는 일본에서 출간된 양서를 번역·출판하고자 하였다. 연구원에서는 이미 「시민이 참가하는 마치즈쿠리」시리즈속을 번역·출간한 바 있는데 이번 것은 그 완결편인 「市民参加のまちづくり【コミュニティ・ビジネス】-地域の自立と持続可能性」를 완역한 것이다.

■ 시민이 참여하는 마치즈쿠리(커뮤니티 비즈니스 편)

요즘 일본의 마치즈쿠리는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과제에 직면해 있다. 마치즈쿠리의 주체인 시민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고, 마치즈쿠리를 통한 지역의 자립과 지속가능성 확보 등이 새로운 화두로 제기되고 있다.

이 책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마치즈쿠리의 핵심사업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커뮤니티 비즈니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주민주도아래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를 살리며, 지역을 자립하게 하는 실천적 방안을 다루고 있다.

제I부에서는 규슈의 경제사회 상황을 분석하고, 나가사키(長崎), 미야자키(宮崎) 및 라오스에서 전개된 커뮤니티·비즈니스를 소개하면서, 그 역할과 과제에 대해 논하고 있다.

제II부는 네덜란드, 일본, 미국, 방글라데시의 커뮤니티비즈니스에 대한 각종 지원 시스템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하여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

제III부에서는 일본의 전통적 경제윤리인 상인도(商人道)를 들어 커뮤니티비즈니스의 철학적·윤리적 논거를 제시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커뮤니티 비즈니스 분야는 아직 역사가 일천하고,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지도 오래 되지 않았다. 그러나 시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의 과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지역문화와 경제를 살려서 더 살기 좋아진 지역(도시)을 후대에 물려주려는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시도는 앞으로 커다란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을 지금 번역하여 한국에 소개하는 것이 의미 있고 시기적으로도 적절하다고 보여진다. 왜냐하면, 우리는 시민이 참여하는 도시만들기의 초기단계에 있지만 머지않아 우리의 도시만들기 사업도 일본 마치즈쿠리와 같이 사업성, 자립성 및 지속성 확보와 같은 문제에 봉착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역과 시민의 입장에서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해 나가되 하나의 자립적인 사업으로서 지속성을 가질 수 있어야만 도시만들기 사업이 뿌리내릴 수 있을 것이다.

연구기간: 2007. 4. 2~2007. 6. 2

서지사항: 시민이 참가하는 마치즈쿠리(커뮤니티 비즈니스 편) 298면, KRIHS 번역총서 4



국제협력사업

1. 국제공동연구사업	82
2. 국제연수교육	99
3. 국제학술교류	103

1. 국제공동연구사업

국토연구원은 점차 가속화되고 있는 세계화에 발맞춰 그동안 수행해온 2천여 건의 각급 공간계획과 도시, 토지, 주택, SOC 등 국토관련 정책수립 및 추진경험을 바탕으로 해외공동연구, 국제협력 등을 통해 전 지구적인 지식자원 확산에 힘쓰고 있다. 또한 국내의 전문가를 활용한 네트워크형 협동연구를 적극 추진하여 연중 20여 회에 이르는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외국의 16개 연구기관, 대학 등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여 다양한 연구정보 공유, 협동연구 등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 베세토 회랑 비전 실현을 위한 제3차 국제워크숍

3rd International Workshop on the Realization of the BESETO Corridor Vision

■ 일시 : 2007. 3. 8~3. 9 ■ 장소 : 일본 NIRA 대회의실



■ 참석자

한국

김원배(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류재영(국토연구원 교통연구실장, 서민호(국토연구원 연구원)

일본

Motoshige Ito(NIRA 원장), Yasuo Sawai(NIRA 부원장), Motoshige Kato(NIRA 국제협력부 실장), Naoko Mori(NIRA 연구원), Yosuke Oneda(C.S. Japan Co. 대표)

중국

Xiao Jincheng(ISPRE 부연구실장), Jia Ruoxiang (ISPRE 연구원)

■ 발표내용

1. 하네다 국제공항의 현황 및 문제점과 베세토 에어서틀 서비스 향후 전망
- Naoko Mori(NIRA 연구원)
2. 베세토 회랑의 교류 강화 전략
- 류재영(국토연구원 교통연구실장) · 서민호(국토연구원 연구원)
3. 베세토 회랑: 현실과 비전
- 김원배(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4. 국제협력연구 총평 및 향후 연구협력 전망
- 국제협력연구 총평: Yasuo Sawai(NIRA 부원장), Xiao Jincheng(ISPRE 부연구실장)
- 향후 연구협력 전망: 김원배(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개최목적

본 국제워크숍은 베세토 회랑이 가지는 정치·경제학적 의미와 비전을 중심으로 베세토 회랑 구축의 근간이 되는 동북아 교통망의 현황, 문제점, 개선방향 및 실천적 과제에 대한 국제적(한·중·일) 논의를 통해 향후 베세토 회랑 구축과 관련된 국제적 연구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주요 내용

Session I에서는 일본 NIRA 국제협력부 실장인 Motoshige Kato의 사회로 NIRA Naoko Mori 연구원의 “하네다 국제공항의 현황 및 문제점과 베세토 에어셔틀 서비스 향후 전망”에 관한 주제발표가 있었다. Mori 연구원은 한·중·일의 수도가 연계되어 만들어진 베세토 회랑에서의 에어셔틀 서비스 개념과 의미, 향후 비전에 관해서 설명하였다. 또한, 베이징-도쿄 간의 에어셔틀을 활용한 일일 비즈니스 통행의 장·단점과 장애요인 극복을 위한 하네다 공항의 장기 발전전략 등도 언급하였다. Mori의 주제발표 이후 C.S. Japan의 사장인 Yosuke Oneda가 앞으로 증가할 항공수요를 예측하면서 한·중·일 간의 항공교통 발전현황과 동북아 국가 간 항공 협정을 통해 동북아 항공교통체제와 관련된 시사평을 하였고 참석자 간 토론이 진행되었다.

Session II에서는 국토연구원 김원배 선임연구위원이 사회를 맡아 두 개의 주제가 발표되었다. 먼저 국토연구원 류재영 교통연구실장은 “베세토 회랑의 교류 강화 전략”이라는 주제로 베세토 회랑의 인적·물적 교류 현황과 장기 전략 및 비전을 설명하고, 각국의 관련 정책 및 베세토 교류협력의 잠재력 분석을 통해 열차-페리 및 도로일관복합수송과 같은 복합수송체계 도입과 에어셔틀 확대 방안 등으로 구성된 단기적 실천방안과 한·중·일 삼국의 관·민·학계가 앞으로 추진해야 할 지원체계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국토연구원

김원배 선임연구위원은 “베세토 회랑: 현실과 비전”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제조, 산업, 자본 및 서비스와 혁신이 연계된 베세토 선형회랑이 삼국 간 협력적 수송체계 구축과 제도적 장벽이 완화될 경우 동북아 지역의 경제발전과 교류협력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며, 먼저 수송회랑, 지식회랑, 도시 간 연계망 구축에서 베세토 회랑 구축을 실천할 수 있을 것으로 역설하였다.

이어진 Session III와 Concluding Session에서 NIRA의 Yasuo Sawai 부원장, ISPRE의 Xiao Jincheng 부연구실장, 국토연구원의 김원배 선임연구위원은 각기 총평을 통해 동북아 발전과 관련하여 베세토 회랑이 갖는 정치·경제학적 의미에 공감하면서 베세토 회랑 구축과 관련한 구체적 실천방안에 대해 추가적 연구의 필요성을 역설하였고, 앞으로도 동북아 지역 내 국제협력연구가 지속될 필요에 대해 뜻을 같이 하였다.

■ 시사점

본 워크숍에 참석한 한·중·일 국책연구기관 및 각계 교통전문가들은 동북아 발전과 관련하여 베세토 회랑이 갖는 정치·경제학적 의미에 동의하면서, 향후 베세토 회랑 구축 실현이 동북아시아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의 활성화에 있어서도 커다란 의미를 갖게 될 것으로 공감하였다.

또한 삼국 간 국제협력연구가 베세토 회랑의 실현과 관련한 동북아 교통망의 비전과 그 실천적 대안 모색에 대해 국제 전문가들의 열띤 논의로 확대될 필요가 있으며, 삼국 정부차원의 논의와 실천으로 이어지길 희망하였다.

>>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지역발전에 관한 국제세미나

International Seminar on Public Agency Relocation and Regional Development

■ 일시 : 2007. 7. 18 ■ 장소 : 조선포텔 그랜드볼룸



■ 참석자

국내

이용섭(건설교통부 장관), 성경룡(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최병선(국토연구원 원장), 김태환(국토연구원 연구위원), 김성제(건설교통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지원정책팀장), 박현주(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장), 이병렬(광주광역시 공동혁신도시 건설지원단장), 이태일(한국토지공사 국토·도시연구원장), 진영환(국토연구원 도시혁신지원센터 소장), 허문구(산업연구원 연구위원)

국외

Neill Marshall(영국 뉴캐슬대학 인문사회대 교수), Guy Baudelle(프랑스 렌대학 도시계획학과 교수), Sten Gunnar Johansson(스웨덴 메르데비 사이언스파크 CEO), Mayumi Edagawa(일본 국토교통성 쓰쿠바시 정책조정관), Takehiko Suzuki(일본 국토교통성 대도시권정비 담당관)

■ 발표내용

제1분과 : 선진외국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경험과 교훈
: 영국, 프랑스, 한국 사례

1. 영국의 공공기관 이전의 사회·경제적 효과
- Neill Marshall(영국 뉴캐슬대학 인문사회대 교수)
2. 프랑스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경험
- Guy Baudelle(프랑스 렌대학 도시계획학과 교수)
3. 한국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계획과 국제비교
- 김태환(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제2분과 : 공공기관 이전과 산·학·연 혁신클러스터
구축 : 스웨덴, 일본 사례

1. 혁신클러스터 구축과 공공기관의 역할 : 스웨덴 메르데비 사이언스파크 사례
- Sten Gunnar Johansson(스웨덴 메르데비 사이언스파크 CEO)
2. 산·학·연 혁신클러스터 구축과 도시발전 : 일본의 쓰쿠바 연구학원도시 사례
- Mayumi Edagawa(일본 국토교통성 쓰쿠바시 정책조정관)

■ 개최목적

본 국제세미나는 선진외국의 지방이전 사례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는 한편, 공공기관 중심의 혁신클러스터 형성에 대한 선진외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나라 공공기관 이전계획에 활용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주요 내용

제1분과 “영국의 공공기관 이전의 사회·경제적 효과”를 발표한 공공부문 이전 분야의 석학인 닐 마셜(Neill Marshall) 영국 뉴캐슬대 교수는 1960년대 영국 정부는 프레밍(Flemming)정책에 따라 “런던의 높은 임대료 및 인건비 증가에 따른 비용 절감”을 주된 목표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최근 수립된 리온(Lyons)정책은 이전의 정책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부 조직의 근대화 및 행정 개혁”을 핵심요소로 고려하여 이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0년까지 2만 개 이상의 공직을 런던과 남동부지역을 제외한 70여 개 도시로 이전토록 결정하였다고 설명하였다.

“프랑스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경험” 사례를 발표한 기 보텔(Guy Baudelle) 프랑스 렌대학 교수는 프랑스에서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 추진의 가장 근본적인 방향은 국토의 균형발전으로, 특히 1990년대 이후 프랑스 정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국토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지정한 지방거점도시의 육성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우리나라 공공기관 이전정책의 특징: 해외 선진사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를 발표한 국토연구원의 김태환 연구위원은 해외사례의 분석을 통해 볼 때, 우리나라 이전정책의 특징으로 영국, 프랑스, 일본과는 달리 중앙정부와 공공 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일괄 집단 이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영국의 경우 중앙부처의 일부 집행기능 중심으로 지방이전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최고의사결정기능을 포함한 기관 전체가 이전함으로써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고 프랑스의 경우 이전기관과 지역전략산업과의 연계가 고려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10개 혁신도시의 경우도 이전 공공기관의 기능적 특성에 따른 분류와 이전지역의 전략산업과 연계이전 방식을 통해 파급효과의 극대화를 추구하고 있다고 설명

하였다.

스웨덴 메르데비 사이언스 파크 사례를 발표하는 메르데비 사이언스파크 AB회사의 CEO 스텐 요한슨(Sten Gunnar Johansson)은 메르데비 과학기술단지, 린셰핑대학이 있는 스웨덴의 린셰핑시를 유럽에서 가장 흥미로운 트리플 헬릭스로 소개하며, 그 성공의 열쇠가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간기업과 지역대학의 성공적인 협력관계 형성에 있다고 강조하였다.

마유미 에다가와(Mayumi Edagawa) 국토교통성 정책조정관은 일본의 쓰쿠바 연구학원도시 사례 발표에서, 쓰쿠바 단지 내의 민간기업들은 쾌적한 환경이나 공향과의 근접성뿐 아니라, 국립연구소와의 공동연구 및 인력 교류가능성으로 인하여 쓰쿠바 연구학원도시에 매력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 시사점

본 국제세미나를 통해 본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공공기관 이전정책과 해외 사례들은 여러 측면에서 차별적 특징을 가진다. 먼저, 이전대상기관의 선정과 관련하여 수도권에 입지하는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전여부를 검토한 점을 볼 때 정부의 수도권기능 분산의 의지를 적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전방식에 있어서도 여러 해외사례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지방이전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공공기관 간의 클러스터링을 도모하는 집단이전 방식을 위주로 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공공기관의 특성을 감안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추어 이전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으나, 특정기능에 대해 제한적으로 시도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대부분의 공공기관에 대해 수행하는 기능이나 역할에 따라 이를 이전하는 지역의 지역산업 및 지역의 특성(발전전망)과 연계하여 배치하고 있다. 다만 이를 추진하는데 있어 이전하는 기능이 지역에서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 북한의 기반시설 재건을 위한 실행방안 워크숍

Reconstruction of Infrastructure in North Korea and the Framework for Implementation

■ 일시 : 2007. 9. 13 ■ 장소 : 국토연구원

■ 참석자

한국

김원배(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상준(국토연구원 연구위원), 나희승(한국철도기술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조동호(이화여대 교수), 장형수(한양대 교수), 양문수(북한대학원대 교수)

일본

Mimura Mitsuhiro(ERINA 책임연구위원)

미국

Edward Reed(아시아재단, 한국사무소장)

Graeme Auton(레드랜드대학교 교수)

Karl Kim (하와이대학교 교수)

■ 발표내용

1. 북한의 기반시설 개발을 위한 협력의 구도
 - 김원배(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 협력촉진사업과 다자 간 협력구도의 적용
 - 이상준(국토연구원 연구위원)

■ 개최목적

본 국제워크숍은 북한의 기반시설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체계 구축방향을 논의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주요 내용

Session I에서는 국토연구원 김원배 선임연구위원이 “Policy Framework for Economic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focusing on Infrastructure Development”라는 주제발표를 하였다. 김원배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에 대한 개발지원의 의미와 가능한 대안들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그는 관련국 간의 협력에 있어서 점진적 접근방법을 제시한 후, 초보적 수준의 개발지원을 위한 다자 간 협력메커니즘을 토대로 정상적인 개발지원을 위한 다자 간 협력의 구도를 제안하였다. 특히 그는 과거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모델을 변형한 한반도기반시설개발기구(KIDO: Korean Peninsula Infrastructure Development Organization)를 제안하였다. 그는 KEDO라는 협력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KIDO는 6자회담 참여국의 합의만 있다면 어렵지 않게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Session II에서는 국토연구원 이상준 연구위원이 “Catalyst Projects and Application of Multilateral Cooperation Framework”라는 주제발표를 하였다. 그는 KIDO라는 다자 간 협력체제하에서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서 “나진(Rajin)프로젝트”를 제안하였다. 이미 중국과 러시아는 나진항의 활용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또한 나진은 한반도종단철도(TKR)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의 연결지점으로 여러 가지 형태의 세부 프로젝트들이 통합적 다자 간 협력을 통해 진행될 수 있는 지역이다. 이 사업은 초기단계에 협력을 위한 인적 역량 강화와 관련된 사업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협력촉진사업(Catalyst Projects)의 경험을 토대로 장기적으로는 북한의 동서

축을 따라 대규모 기반시설 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업은 KIDO와 국제금융기구의 협력을 통해 가능할 것이다.

■ 시사점

북한의 기반시설 개발을 위해서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제협력은 필수적이다. 이번 워크숍에서 제시된 KIDO 모델은 북한에 대한 개발지원체제의 좋은 대안들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다. 이러

한 다자 간 협력체는 두 가지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 첫째, 북한의 책임있는 행동을 어느 정도 강제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이러한 다자 간 협력체를 통해 보다 용이하게 재원을 조달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6자회담이 성과를 거두게 될 경우 KIDO와 같은 다자 간 협력체를 통한 대북지원이 가능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협력체는 공적 자본을 통한 대규모 사업추진의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한·중 토지정책연구(VII) 국제공동워크숍

Joint Workshop on Land Policies of Korea and China(VII)
: Government, Locality and Land Policies

■ 일시 : 2007. 10. 10~10. 13 ■ 장소 : 중국 저장대학교

■ 참석자

한국

최병선(국토연구원 원장), 채미옥(국토연구원 토지·주택연구실장), 정희남(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최수(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김상조(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중국

오즈팡(저장대학교 동남토지관리학원 원장), 예옌메이(저장대학교 부원장), 박인성(저장대학교 교수), 진상무(저장대학교 교수)

■ 발표내용

1. 한국의 토지정책 변화와 지방화시대의 토지정책 방향
- 채미옥(국토연구원 토지·주택연구실장)

2. 농지전용 관리의 중앙과 지방의 경험모델
- 진상무(저장대학교 교수)
3. 도시계획의 중앙-지방 간 역할분담에 관한 연구
- 김상조(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정희남(국토연구원 연구위원)
4. 중국의 도시계획행정체제와 주요 쟁점 고찰
- 박인성(저장대학교 교수)
5. 부동산 관련 세부담의 지역적 불평등도에 대한 연구
- 최수(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 개최목적

국토연구원과 중국 저장대학교 동남토지관리학원은 장기연구협약서(2003~2007년)에 따라 매년 한 개의 주제를 정하여 공동연구하고 있다. 금년에는 토지정책

의 중앙-지방 간 역할분담이라는 주제로 공동 연구를 수행하였고, 그 성과를 공동워크숍을 통해 서로 교환하였다.

■ 주요 내용

오즈팜 저장대학 동남토지관리학원 원장(오전)과 예옌 메이 부원장(오후)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채미옥 국토연구원 토지·주택연구실장은 한국의 토지정책 변화와 지방화시대의 토지정책 방향을 논의하였다. 전국을 대상으로 획일적으로 추진되는 토지정책의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도록, 토지가 가진 공공재적 특성과 지역시장의 특성을 통합한 지역 적합성을 제고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진상무 저장대학교 교수는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농지의 비농지화(非農地化) 관리에 대한 중앙과 지방의 경험모형을 논의하였다. 현재 중국은 새로 늘어나는 건설용지의 공급을 위하여 '총량규제, 총충분해, 통일분배'라는 중앙집중적인 정책결정과 지령성 관리를 실행하고 있다. 이 글은 '총량규제-시장배치'와 '총량규제-배당량 관리-시장조절'이라는 분권모형을 비교 분석하고, 중국의 농지 전용 관리정책 결정추세에서 실질적인 분권화의 나갈 방향을 논의하였다.

김상조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과 정희남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을 사례로 도시계획의 중앙-지방 간 역할분담을 논의하였다. 이 논문은 1995년에 실시된 지방자치제가 빠른 속도로 정착단계에 접어드는 상황에서 각종 도시계획 권한을 차하위(次下位) 정부에 이양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짚어보고, 중앙과 지방의 역할 재정립을 통해 이들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박인성 저장대학교 교수는 중국의 도시계획행정체제와 주요 쟁점을 중앙과 지방의 역할 분담을 중심으로 고찰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분권화 추세 속에서 국가 전략체계 내에서 도시계획이 갖는 위치와 역할을 감독



및 통제하기 위한 중앙 및 성(省)정부 차원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이 글은 중국의 도시계획 행정체제와 관리상의 주요 문제를 중앙과 지방 간의 역할분담이라는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최수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한국의 부동산 관련 세 부담의 지역적 불평등도(不平等度)에 관한 실증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지역적 불평등도'를 분석한 결과, 부동산 관련 국세가 부동산 관련 지방세보다 세 부담이 지역적으로 불평등하고, 취득과세보다는 보유과세, 보유과세보다는 양도과세의 세 부담이 지역적으로 불평등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부동산 관련 조세의 세 부담이 다른 조세보다 불평등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근 도입된 종합부동산세는 세 부담의 불평등은 악화시킬 수 있을 것이지만, 지방정부의 '재정적 형평성'은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시사점

2003년에 체결한 장기연구협약서에 따른 지난 5년의 공동연구가 종료되었는 바, 그간의 연구성과가 좋았던 점을 고려하여 공동연구를 향후 5년간 연장하기로 하였다. 공동연구 주제 역시, 그동안 추진해온 토지정책을 바탕으로 도시정책, 기반시설, 환경정책 등 국토계획 관련 연구영역으로 넓혀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장기적인 과정에서 양국의 교류협력을 대만, 일본, 싱가포르

르, 인도 등 아시아 각국으로 확대하는 방안[가칭 “아주 국토연구회(또는 포럼)”]에 대해서 시간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합의하였고, 우선은 양국 내 관련 기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합의하였

다. 이를 위해 차차년도(제11차) 공동워크숍을 항주 또는 베이징에서 개최할 때 중국 중앙정부인 국토자원부를 옵서버로 참석시킬 수 있도록 합의하였다.

>> 동북아 핵심경제지역의 발전전망과 연계망 구축 세미나

International Conference on Development Prospects for and Interdependence of Core Economic Regions of Northeast Asia

■ 일시 : 2007. 10. 11~10. 12 ■ 장소 : 국토연구원

■ 참석자

한국

김원배(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의준(서울대 교수), 한동훈(가톨릭대 교수), 김홍배(한양대 교수), 한영주(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임정덕(부산대 교수), 김성배(송실대 교수)

일본

Masato Hisatake(경제산업성 과장), Kenkichi Nagano(오사카시립대 부교수)

중국

He Chanfei(북경대 부교수), Tu Qiyu(상해 사회과학원 교수)

- Tu Qiyu(상해 사회과학원 교수)
- 4. 경진기지역의 발전과 동북아 국가와의 경제연계
 - He Chanfei(북경대 부교수)
- 5. 일본과 동아시아의 지역경제체제의 변용
 - Masato Hisatake(경제산업성 과장)
- 6. 변화하는 지경학적 지평과 긴키경제
 - Kenkichi Nagano(오사카시립대 부교수)

■ 개최목적

본 국제세미나는 동북아 8대 핵심지역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들 지역의 성장전망과 지역 간 연계를 분석, 토의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 발표내용

1. 동북아 핵심경제지역의 경제지형 변화
 - 김원배(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 8대 핵심지역 간 경제적 상호작용의 도식
 - 김의준(서울대 교수)
3. 동북아에서 양자강삼각의 지경학적 위상

■ 주요 내용

Session I에서는 국토연구원 김원배 선임연구위원의 “동북아 핵심경제지역의 경제지형 변화”라는 주제에 관한 기초연설이 있었다. 김원배 선임연구위원은 동북아의 지경학적 지형이 일극체제에서 다극체제로 변모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향후 동북아 경제는 8대 핵심경

제지역이 주도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따라서 이들 8대 핵심지역 간의 경쟁과 협력은 동북아 경제 지리 변모의 핵심적 요소가 될 것이며, 이들 지역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역설하였다. 김원배 선임연구위원은 동북아 경제지리의 변화를 입지계수 분석을 통하여 설명하고, 장래의 변화를 좌우하게 될 한 가지 요인으로 각 지역의 산업클러스터 전략을 소개하였다. 또한 지역 간의 연계를 교역, 투자, 물류라고 하는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고, 결과적으로 한·중·일 3국의 교역과 투자도 이들 8대 핵심지역 간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제2주제는 서울대 김익준 교수의 “8대 핵심지역 간 경제적 상호작용의 도식”이었는데, 우선적으로 구매력지수에 의한 8대 핵심지역의 성장전망 결과와 8대 핵심지역 간의 상호작용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다. 주제발표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으로서 중국 장강지역의 부상을 들 수 있으며, 2020년경에는 중국의 3대 지역이 동북아 경제지형을 꾸며나가는 주도적인 세력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추가적으로 지역 간 관계 분석에서 김익준 교수는 계량모형을 적용하여, 8대 지역 간 경제적 상호작용 관계를 추정한 결과, 경진기지역이 동북아 8대 지역 중 가장 많은 지역연계를 보유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Session II에서는 국토연구원 김원배 선임연구위원이 사회를 맡아 네 개의 주제가 발표되었다. 먼저 상해사회과학원 Tu Qiyu 박사는 “동북아에서 양자강 삼각지역의 지경학적 위상”이라는 주제로 양자강 삼각지역의 현황을 검토하고 향후 발전을 전망하였다. 양자강 삼각지역은 중국경제의 견인차로서 섬유와 전자 같은 다수의 국제경쟁력을 갖춘 산업을 보유하고 있다. Tu Qiyu 박사는 양자강 지역의 발전이 대외지향적인 만큼, 동북아의 타 핵심지역과 경쟁과 더불어 협력해 나갈 수밖에 없는 구도를 강조하면서, 산업구조 고도화 전략을 발표하였다. 이는 결국 동북아에서 후발지역에 불리한 수직적 분업 구조를 극복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간주할 수 있으며, 양자강지역은 국제분업 구조에서 선도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북경대학의 He Canfei 교수는 “경진기지역의 발전과 동북아 국가와의 경제연계”라는 주제로 북경과 천진을 중심으로 하는 경진기지역의 발전을 전망하고, 경진기지역과 한국 및 일본과의 연계와 관련된 내용을 발표하였다. He Canfei 교수는 먼저 경진기지역의 팔목할 만한 경제성장에 따른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 경향을 분석하고, 그 이유로서 경진기지역의 부존자원, 풍부한 인적자원, 집적경제, 교통의 편의성, 그리고 정책이라고 제시하였다. 경진기지역의 경제발전에는 한국과 일본의 자본을 포함한 외국투자도 한몫을 하였고, 이는 결국 동북아 국가 간 상호보완성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향후 경진기지역의 발전은 중국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천진의 빈해신구와 하북성의 차오페이텐 개발이 이루어지면, 동북아 지역과의 연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 하였다.

세 번째 발표자인 일본 경제산업성의 Hisatake Masato 박사는 “일본과 동아시아의 지역경제체제의 변용”이라는 주제로 일본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지역경제체제의 변용을 제조업 집적의 변화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다. 히사타케 박사는 과거 일본은 중심, 중국과 동남아는 주변이라는 구조가 최근에는 중심-주변의 경계가 애매한 상황으로 변동되었다고 설명하고, 그 이유는 제조업의 분산에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분산 경향은 업종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섬유-의복 부문은 분산경향이 강하나 강한 집적경제를 보이고 있는 기계-금속부문은 아직도 일본의 우위가 지속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일본 내의 지역경제체제는 도쿄, 오사카, 나고야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짜여져 있으며, 최근에는 오사카권의 침체와 나고야권의 소강으로, 도쿄권만이 성장추세에 있다. 히사타케 박사는 이러한 변화의 주 원인이 일본경제의 탈제조업화, 즉

서비스 경제로의 이행에 있다고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오사카시립대학의 Kenkichi Nagao 교수가 “변화하는 지경학적 지평과 긴키경제”를 주제로 긴키지역의 경제침체 원인을 지역산업구조와 기업본사의 도쿄로의 이전에 있음을 지적하고, 향후 지역발전은 도쿄권과의 관계, 동아시아와의 연계, 중간재 교역 구조, 산업클러스터 형성에 좌우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특히 산업클러스터 형성과 관련하여, 긴키지역은 가전제품의 클러스터가 두텁게 형성되어 있어 가전제품의 전반적인 분산추세에도 불구하고 평판TV와 같은 디스플레이 산업에서는 집적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 시사점

본 세미나에 참석한 한·중·일 연구기관 및 학계 전문가들은 동북아의 핵심지역 발전과 관련하여 중국 3대 핵심지역의 부상과 증대하는 역할에 대해 공감하면서, 향후 동북아 지역경제의 구도는 이들 핵심지역 간의 관계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는가에 따라, 상호 보완적 또는 경쟁적 관계로 진화될 수 있음을 주목하였다. 지역 간 관계 변화에 있어, 정부의 역할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기업전략이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며, 특히 기업 간 부품의 거래와 조달은 공간적 분업체제의 변모를 초래할 것이므로 다국적 기업의 역할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의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다만 특정산업에서의 기업전략 중심의 연구가 지역경제와의 상관성을 갖기 위해서는 지역변수를 고려한 분석이 틀이 설정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하였다.

>> 제13회아시아 컨스트럭트 서울

13th Asia Construct Conference, Seoul, Korea

■ 일시 : 2007. 10. 18~10. 19 ■ 장소 : 서울교육문화회관

■ 참석자

한국

박상규(건설교통부 건설선진화본부장), 최병선(국토연구원 원장), 권홍사(대한건설협회 회장), 홍성웅(한국건설산업연구원 원장), 김홍수(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원장), 이태식(한양대 교수), 김정호(강원발전연구원 원장), 유재윤(국토연구원 실장), 문혁(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일본

Shinichi Isashiki(RICE 전무), Hiroki Kawata(RICE Senior Researcher), Tomohisa Hirakawa(RICE Researcher), Yuichiro Nakagawa(RICE Researcher), Hirohito Nakata(국토교통성 사무관), Noriyuki Fukuoka(JETROS 부장)

홍콩

Michael Anson(Polytechnic University 교수),



Franky Wong(Polytechnic University 교수), Heng Li(Polytechnic University 교수), Chiang Yat Hung(Polytechnic University 교수), Henry Cheung(Bayer MatrialScience Officer)

인도네시아

Akhmad Suradji(NCSDB 회장), Sulistijo Sidarto Mulyo(NCSDB 사장), Dadan Krisnandar(NCSDB 전무), H. Sarwidi(Islamic University of Indonesia 교수)

베트남

Nguyen Bao Lam(Hanoi Architectural University 교수)

■ 발표내용

18일

1. 건설산업의 혁신 : 위기와 기회
 - 홍성웅(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원장)
2. 홍콩의 건설산업
 - Franky Wong(Polytechnic University 교수)
3. 혁신은 무엇인가?
 - Michael Anson(Polytechnic University 교수)
4. 베트남 컨트리 리포트
 - Nguyen Bao Lam(Hanoi Architectural University 교수)

5. 일본 컨트리 리포트

- Shinichi Isashiki(RICE 전무)

19일

1. 한국의 건설경제와 혁신
 - 유재윤(국토연구원 실장), 문혁(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2. 인도네시아 컨트리 리포트
 - Sarwidi(Islamic University of Indonesia 교수)
3. 한국건설산업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 김홍수(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원장)
4. 각국 대표 회의
 - 참가국 대표

■ 개최목적

본 국제컨퍼런스는 아시아-태평양지역 각국의 건설산업 구조, 시장, 주요 정책, 건설경기 등에 대한 주요 정보를 교환하고 토론하는 만남의 장으로 1995년 제1회 도쿄를 시작으로 제2회 서울을 거쳐 올해 13회로 다시 한국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2007년 아시아컨스트럭트 컨퍼런스는 "Creating Construction Innovation"이라는 주제로 개최되었으며, 아시아-태평양지역 각국의 건설혁신 사례 및 혁신방안에 대한 다양한 토론을 통해 건설산업 혁신을 위한 계기가 되는 동시에 아시아-태평양 국가

간 발전을 위한 협력의 장이 될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주요 내용

첫째 날에는 최병선 국토연구원장의 개회선언과 박상규 건설교통부 건설선진화본부장의 축사, 그리고 권홍사 대한건설협회장의 환영사의 순으로 개회행사가 진행되었다. 이후 '건설산업의 혁신: 위기와 기회'라는 주제로 홍성웅 전 한국건설산업연구원장의 기조연설이 있었다. 홍성웅 전 원장은 건설산업의 생산 방식에 있어서의 혁신관점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기본적 발표 형식은 각 참여국가별로 건설산업의 혁신이라는 주제와 자국의 건설경제상황의 리포트를 발표하는 형식을 채택하였는데 사회는 이태식 한양대학교 교수가 진행하였다. 세션1에서는 Polytechnic University 교수인 Franky Wong이 홍콩의 건설경제 및 산업의 현황을 발표하였고 이어 Michael Anson 교수가 '혁신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건설산업에서의 혁신의 정의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어 두 번째 세션에서는 베트남 컨트리 리포트를 Nguyen Bao Lam 하노이건축대학 교수가 발표하였고 다음 일본 컨트리 리포트를 Shinichi Isashiki RICE 전무가 발표하였다. 발표자들은 자국의 건설산업의 혁신사례도 같이 발표했는데 주로 CALS, ITS, BIM 같은 정보화사례와 건설현장에서 관리 또는 원가 혁신 등에 관한 사항을 발표하였다.

둘째 날에서는 한국 컨트리리포트와 건설기업중심의 혁신사례를 유재운 선임연구위원이 발표하였고 이어 인도네시아 컨트리리포트와 지진방재 관련 혁신사례를 Sarwidi 교수가 발표하였다. 이어 김홍수 건설산업연구원 부원장이 한국건설산업 60주년을 되돌아보는 '한국건설산업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동영상으로 발표하였다. 오후 세션에서는 각국 대표만 모인 가운데 차기 컨퍼런스의 주제와 차차기 개최국가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 시사점

본 컨퍼런스에 참석한 각국의 건설산업 전문가들은 혁신과 관련하여 서로의 경험과 경제개발 상황에 따라 다른 건설혁신의 진행 정도에 대해서도 지식을 공유할 수 있었다. 또한 각국의 건설경제 현황을 공유하여 상호 건설시장에 대한 이해와 진출가능성에 대한 의견도 나눌 수 있었다.

또한 본 컨퍼런스의 연장선상에서 향후 각국의 정보 교류를 강화하자는 의견을 공감하고 현재의 컨퍼런스형태보다 진전된 기구의 설립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다.

>> 제11차 GIS 국제세미나: 공간정보사회를 향한 협력적 GIS 활용방안

The 11th International Seminar on GIS

: Collaborative GIS toward Geospatial Information Society

■ 일시 : 2007. 10. 24 ■ 장소 : 국토연구원



■ 참석자

한국

김결(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김병국(인하대학교 교수), 김은형(경원대학교 교수), 김형복(한국토지공사 국토정보팀장), 박양호(국토연구원 부원장), 박종현(한국전자통신연구원 텔레매틱스연구그룹장), 사공호상(국토연구원 국토정보연구센터 소장), 윤석찬(다음커뮤니케이션 R&D센터 팀장), 이명노(건설교통부 토지기획관), 이한주(대한주택공사 도시정보팀장), 조명희(경일대학교 교수), 조종배(건설교통부 국토정보기획팀장), 최봉문(목원대학교 교수), 최윤수(서울시립대학교 교수)

미국

KyungHwa Kim(포틀랜드메트로 팀장), Wansoo Im(Vertices 대표)

일본

Hiromochi Fukui(게이오대학교 교수), Ryosuke

Shibasaki(동경대학교 교수)

홍콩

Anthony G.O. Yeh(홍콩대학교 교수)

대만

Chih Hong Sun(국립대만대학교 교수)

■ 발표내용

1. Geospatially enabled Society and NSDI Law of Japan
- Ryosuke Shibasaki(동경대학교 교수)
2. Digital City and GIS
- Anthony G.O. Yeh(홍콩대학교 교수)
3. Towards GIS 2.0 - Spatial Thinking and PPGIS change Society
- Hiromichi Fukui(게이오대학교 교수)
4. The User-participated Geospatial Web as Open Platform

- 윤석찬(다음커뮤니케이션 R&D센터 팀장)
- 5. Google Maps -Reshaping PPGIS
 - Wansoo Im(Vertices 대표)
- 6. Korea Planning Support Systems
 - 김걸(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 7. GeoSemantic Web Service Framework for Spatial Decision Support System
 - Chih Hong Sun(국립대만대학교 교수)
- 8. Analysis of MetroScope' s Practical Implementation of the Planning Support System
 - KyungHwa Kim(포틀랜드메트로 팀장)

■ 개최목적

본 국제세미나는 유비쿼터스 사회를 대비한 국가공간 정보기반 고도화를 위해 향후 GIS의 발전방향을 모색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각종 공간계획 및 정책 결정 지원을 위한 GIS 및 첨단정보기술, 그리고 공간분석기법의 협력적 결합에 관한 국제적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 정보 교류를 통해 글로벌한 연구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 주요 내용

본 국제세미나는 박양호 국토연구원 부원장의 개회사와 이명노 건설교통부 토지기획관의 축사로 시작하여, 총 3개의 세션에서 8편의 주제 발표 및 각 세션별 패널 토론이 진행되었다.

Session I에서는 GIS in Society라는 부제하에 인하대학교 김병국 교수의 사회로 2편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첫 번째 주제는 동경대학교 Ryosuke Shibasaki 교수의 “Geospatially Enabled Society and NSDI Law of Japan”으로, 유비쿼터스 사회를 위한 공간정

보의 역할 및 이를 실현하기 위한 일본의 국가공간정보 기반 관련 기본법에 관해 설명하였다. 공간정보가 미래 사회에 미치는 영향 및 그 비전에 관해 언급하고, 이러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 열쇠로서 일본 정부가 제정한 「지리공간정보활용추진기본법」을 발표하였다.

두 번째 주제는 홍콩대학교 Anthony Yeh 교수의 “Digital City and Geographical Information System”으로, 디지털시티의 주요 개념과 구성요소를 정의하고, GIS와 Digital City 간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였다. 디지털 도시는 GIS를 협력적으로 이용하여 위치정보를 중심으로 사이버상에서 구현될 수 있으며, 모든 정보들은 연계되어 Digital Earth로 확장된다고 전망하였다.

Session II에서는 Web & GIS라는 부제하에 경일대학교 조명희 교수의 사회로 3편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첫 번째 주제는 일본 게이오대학교 Hiromichi Fukui 교수의 “Towards GIS 2.0-Spatial Thinking and PPGIS Change Society”로 공간 중심적 사고와 GIS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고, Web 2.0, 오픈소스, UbiGIS 등의 협력적 결합에 의해 Geo-Spatial World로 확대되어 가는 트렌드에 관해 언급하였다. 또한, 이러한 현상들이 참가형 GIS(Participatory GIS, PPGIS)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Sentinel Asia 및 Digital Earth 사례를 통해 전망하였다.

두 번째 주제는 다음커뮤니케이션의 윤석찬 팀장의 “The User-participated Geospatial Web as Open Platform”으로 공간 정보 웹 서비스의 변화 모습에 대해 발표하였다. 특히, 웹 종사자 입장에서 전통적인 GIS 소프트웨어 플랫폼 혹은 서비스 트렌드에 관해 언급하며, 과거 공공 서비스 위주의 정보 전달 중심 서비스에서 최근 구글맵 이후 사용자 참여형 서비스로 전환되고 있는 현상에 대해 발표하였다.

세 번째 주제는 미국 Vertices사 임완수 사장의 “Google Maps-Reshaping PPGIS”로 전통적인 GIS

의 5가지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PPGIS를 둘러싼 변화를 언급하고 이와 관련된 최신 Web GIS 서비스 사례들을 발표하였다. 전문가 중심이었던 GIS는 다양한 정보기술의 발달에 의해 손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GIS=Communication”이라는 개념 및 시사점을 발표하였다.

Session III에서는 Spatial Decision Support Systems라는 부제하에 경원대학교 김은형 교수의 사회로 3편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첫 번째 주제는 국토연구원 김걸 책임연구원의 “Korea Planning Support Systems(KOPSS)”로 KOPSS의 기본구상, 개념 및 구성, 개발전략에 관해 발표하였다. KOPSS를 다양한 국토정보를 활용하여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국토공간계획을 지원하는 한국형 공간의사결정지원시스템으로 정의하고, KOPSS 시스템의 구성 및 각종 모형에 대한 소개, 활용 데이터, 활용분야 등에 관해 설명하였다.

두 번째 주제는 대만국립대학교의 Chih Hong Sun 교수의 “GeoSemantic Web Service Framework for Spatial Decision Support System”로 GeoSemantic Web 및 온톨로지(Ontology) 개념에 대한 설명 및 사용자 포털, 공간 및 도메인 온톨로지, SDI 검색, 그리고 서비스체인을 포함한 GeoSemantic 웹서비스의 아키텍처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타이페이시를 대상으로 GeoSemantic 웹서비스의 니즈를 만족시키는 공간과 도메인 온톨로지의 통합 사례를 소개하였다.

마지막 주제는 미국 포틀랜드 김경화 팀장의 “Analysis of MetroScope’s Practical Implementation of the Planning Support System”으로 Metro의 개념 및 MetroScope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MetroScope의 구조 및 개발경위를 설명하였다. 또한 MetroScope의 활용 사례분석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 및 시사점 등을 도출하여,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제시하였다.

■ 시사점

본 국제세미나에 참석한 국내외 전문가들은 유비쿼터스 사회 구현을 위해서는 공간정보 및 GIS가 그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며 이는 기존의 사회를 변화시킬 것이라는 전망에 공감하며 GIS의 변화 동향 및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특히, GIS는 다양한 정보기술과 융합되고 서로 협력적(Collaborative)으로 작용함으로써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 가능한 각종 공간계획 및 정책결정을 지원하고 미래 사회의 커뮤니케이션 도구로도 활용되는 등 새로운 패러다임을 맞고 있음에 동의하며 향후 공간정보사회에서 GIS가 어떻게 활용될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었다.

>> 제16차 한·일건설경제워크숍

16th Korea-Japan Joint Workshop on the Construction Economy

■ 일시 : 2007. 11. 13~11. 15 ■ 장소 : 일본 KKR Hotel Hakata

■ 참석자

한국

박양호(국토연구원 부원장), 유재운(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윤하중(국토연구원 연구위원), 김민철(국토연구원 책임연구위원), 권오현(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구본상(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임기수(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일본

Shigeo Kondo(일본건설경제연구소 이사장), Nobuyuki Kimura(일본건설경제연구소 전무이사), Takayasu Matsuura(일본건설경제연구소 상무이사), Toshiro Matsushita(일본건설경제연구소 상무이사), Hiroshi Oshima(일본건설경제연구소 연구위원), Mitsuharu Doyo(일본건설경제연구소 팀장), Tomohiro Otake(일본건설경제연구소 연구위원), Akira Ikeda(일본건설경제연구소 연구위원), Masaru Otsuyama(일본건설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안상경(동양대학교 교수), 황정연(동양대학교 석사과정)

■ 발표내용

1. 거시경제 동향 및 건설산업
 - Hiroshi Oshima(일본건설경제연구소 연구위원)
2. 한국의 거시경제 추세와 건설투자
 - 유재운(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3. 건설부문의 생산성 제고 방안

- Toshiro Matsushita(일본건설경제연구소 상무이사)
4. 건설 노동 부족 해결을 위한 차세대 기술 활용 방안
 - 구본상(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5. 건설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방안
 - Takayasu Matsuura(일본건설경제연구소 상무이사)
 6. 한국의 사회기반시설 시장 현황과 민간투자제도
 - 윤하중(국토연구원 연구위원)

■ 개최목적

본 국제 워크숍은 한국과 일본 양국 간의 건설경제 분야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고 우호를 증진하는 데 있다.

■ 주요 내용

Session I에서는 거시경제 및 건설산업의 동향과 전망에 대하여 양국에서 발표하였다. 일본측에서는 오시마 연구위원이 일본의 사례를 발표하였다. 일본의 정부부문 건설투자가 9년째 감소한 데다 최근 건축법 개정으로 건축기준이 강화되고 인구 고령화로 주택구매 수요가 감소하여, 2007년 건설투자는 3% 감소할 것으로 추산되며, 2008년에는 0.8% 증가에 그치는 등 향후 전망은 밝지 못한 상황이다. 유재운 선임연구위원이 한국의 동향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한국의 건설산업은 2001~2003년 기간중 잠시 호황 국면에 있었으나, 거시경제 침체와 부동산 규제 등에 기인하여 침체 양상



■ 시사점

건설경기 동향 및 향후 전망에 대한 토론을 통하여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같이 국제적인 형태의 위험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게 되었다. 양국의 건설 노동시장은 모두 인력 부족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 일본은 고령화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에 직면해 있으며, 한국의 경우도 고령화로 숙련 노동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노동 수요를 줄이는 방안도 필요하나 건설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처우개선 및 교육시스템 개발을 통한 인력 양성이 필

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그리고 일본경제가 회복되는 데는 토요다 자동차와 같은 기업들의 역할이 컸으며 토요다 자동차의 매출이 신장되면서 해당 지자체의 경기가 활성화되는 효과도 거두었으며, 한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업도시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을 보이고 있다. 향후 건설산업은 정부의 재정운용 기조와 해외건설 성과 등의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판단된다.

Session II에서는 건설노동시장을 주제로 한 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일본 측에서는 마츠시다 상무이사가 일본 건설업의 생산성을 분석하고 향후 생산성 향상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홋카이도 정부에서 시범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1일 응답 시스템'을 소개하였다. 한국 측에서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구본상 연구위원이 건설 노동력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건설공급 증가의 한계를 인식하고 건설수요를 감소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건설수요를 줄이기 위해서는 차세대 기술을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대표적으로 건설자재의 고성능화와 시공의 모듈화 등을 제안하였다.

Session III에서는 자유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한국 측에서는 윤하중 연구위원이 한국의 인프라 시장과 민간투자제도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한국의 민간투자제도는 1994년 처음 도입되었으며, 2005년에는 BTL방식이 추가되면서 매우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하였다. 일본 측에서는 마츠우라 상무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일본의 사례를 발표하였다.

2. 국제연수교육

국토연구원은 매년 개발도상국 중견공무원들을 초청, 한국의 국토정책 수립 및 추진경험을 공유하고 관련 지식과 기술을 전수하는 연수 과정을 운영하여, 개도국의 공간정책 수립집행 능력제고 및 이에 필요한 인재양성에 기여하고 있다. 2007년에는 이집트 토지관리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토지개발 관리정책 과정, 이라크 쿠르드 지방정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지역개발정책 과정을 실시하였으며, 에티오피아, 네팔, 요르단 등 전 세계 11개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도시개발과 지역개발 과정을 실시하는 등 총 3회의 연수과정을 운영하였다.

>> 토지개발 관리정책 과정

■ 일시 : 2007. 3. 18~3. 28 ■ 장소 : 국토연구원

■ 참석자

Fahima El Shahed(General Director and the Project Manager, GOPP), Mohammed Yousry Sobhy(General Director, GOPP), Alaa El Din Abd El Fatah(Department Director, Delta Regional Office, GOPP), Ahmed Mohamed Osama(Planner, Assuit Regional Office, GOPP), Mai Ali Ali(Computer Scientist, GOPP), Ekramy Abd El Razik(Planner, GOPP), Asmaa Mostafa Ali Mostafa(Planner, GOPP), Amira Abd Allah Abd El Aziz(Planner, GOPP), Sahar Afia(GIS Director, Ministry of State for Administrative Development), Mohamed Essam Saad Abd El Halem(Director of National Data Store, Cabinet)

■ 주요 내용

2005년부터 2년간 국토연구원은 이집트 정부와 공동으로, 이집트의 토지개발관리 역량제

고를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계기로 국토연구원은 동 연구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이집트 공무원들을 초청, 토지제도와 정책 등 한국이 지난 반세기 동안 국토와 토지를 개발하면서 축적한 지식과 기술을 공유하기 위한 연수과정을 2006년과 2007년에 각각 1회씩 운영하였다.

2007년 과정에는 상기 공동연구에 참여한 기술자와, 중앙정부 부처 소속의 중견 관리 및 전문가 총 10명이 참가하여 한국의 토지정책 수립 집행 경험을 배우고, 아울러 현재 이집트가 당면한 토지정책 분야 도전



과제에 대해 함께 토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참가자들은 연수 과정에서 제공된 다양한 전문강의를 통해, 한국의 경제발전과 국토정책 전개과정, 한국의 토지 및 주택정책, 토지개발을 위한 민간참여 방법과 GIS 기술활용 등 토지개발 관련 지식과 기법을 전수받았다. 이들은 강의에 이어 한국의 대표적인 신도시인 분당과, 현재 개발 중인 송도신도시를 둘러보았으

며, 1박 2일의 일정으로 대전 대덕연구단지를 견학하여 국가와 지역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노하우를 배우기도 하였다.

연수 참가자들은 한국의 토지개발 경험으로부터 정책적 시사점을 얻고, 토의를 통해 양국 토지정책 현안을 논의함으로써, 앞으로 보다 효율적이고 선진적인 국토 및 토지개발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 지역개발정책 과정

■ 일시 : 2007. 5. 6~5. 21 ■ 장소 : 국토연구원

■ 참석자

Halmat H Ismail(IT Manager, Ministry of Planning), Suad I Wali(Civil Engineer, Ministry of Construction & Housing), Muhammed A Sofi(Psychiatrist, Ministry of Health), Payman Kh M Yousif(Consultant, Ministry of Communication), Abdulsamad A Khudhir(Accountant, Ministry of Finance & Economy), Hiwa M Yunis(Physicist, Ministry of Transportation), Farman Gh Saeed(Director of Legal, Administration & Finance, Council of Ministers), Lawin R Ahmed(Manager of Technical Department / Ministry of Municipalities), Razaq O Mustafa(G.D. of Planning & Follow up, Ministry of Industry), Tahir T Ahmad(Manager, Ministry of Labor &

Social Affairs), Karim I Hussein(Senior Director, Ministry of Agriculture), Fareeq S Ramadhan(G.D., Ministry of Finance & Economy), Niaz H Brayem(Manager, Ministry of Education) Halat H Hamzo(Manager Assist, Ministry of Tourism), Dana M Khidhir(Manager, Ministry of Education), Ranj Abbas Noori(G.D., Council of Ministers), Swar A Ali(Engineer, Ministry of Trade), Najla H Hamosh(Engineer, Ministry of Interior)

■ 주요 내용

지역개발 분야에 있어서 축적된 정책수립 노하우를 전수함으로써 전후 복구 및 재건 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라크를 지원하기 위해서 국토연구원은 2003년 이후 매년 이라크 중앙 및 지방정부 공무원을 초청, 한

국의 국토정책 경험과 사례를 소개하는 연수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2007년에는 이라크 북부 쿠르드 지방정부 소속 공무원 18명이 연수에 참가하였다.

총 16일 일정의 교육을 통해 연수 참가자들은 한국의 국토정책, 토지정책, 주택정책, 인프라 구축정책 등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이 시도한 다양한 공간정책과 제도를 배우고, 신도시 사업지, 고속도로 교통정보센터 등 관련 현장과 기관을 방문하여 한국의 국토정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기회를 가졌다. 특히, 참가자들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와 서울 양재천공원화사업지 견학을 통해 국토정책 수립 집행 과정에서 겪은 한국

의 시행착오로부터 정책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이외에도 연수 참가자들은, 3박 4일 일정의 한국의 주요 산업시설 시찰과, 서울과 지방에서의 다양한 문화 체험을 통해 한국 경제성장 동력과 고유하고 수준 높은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었다. ‘지역개발정책’ 과정을 통해 참가자들은, 전후 복구 재건사업을 위한 보다 효율적인 정책수립 집행 역량을 배양하게 되었음은 물론, 양국 간 이해의 폭을 넓힘으로써, 차후에 한국과 이라크 간 상호 협력 기반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를 가지게 된 것으로 평가한다.



>> 2007 도시 및 지역개발정책 과정

■ 일시 : 2007. 8. 21~9. 5 ■ 장소 : 국토연구원

■ 참석자

Bakir Ahmad Al Rahamnah(Municipal Budget Auditor, Ministry of Municipal Affairs), Anvar Zapparovich Djuraev(Main Specialist, Association “Toshshakhartranskhizmat”), Ou Dary(Deputy

Director, Ministry of Land Management), Mona Mahmoud El Morshidy(General Manager for Infrastructure, GOPP), Md. Mozibur Rahman (Deputy Secretary, Ministry of Housing and Public Works), Ndongo Alain(Architect,



Presidential Office), Khalid Abdelrahmdn Elzubair(Lt. Colonel, Sudan Police Forces), Guercy Mouscardy(Deputy Mayor and ING: Consultant Advisor, IOM), Ma Lourdes Damaso Lim(Regional Director, NEDA RO XII), Amrit Siddhi Bajracharya(Senior Divisional Architect & Planner, DUDBC), Faridun Anvarovich Asadov (Senior Specialist, Ministry of Economic Development and Trade), Martha Bistrat (Statistician, Ministry of Works and Urban Development)

■ 주요 내용

한국의 압축성장과 국토개발 과정에서 축적한 경험과 정책사례를 소개하여, 개발도상국가들이 보다 선진적이고 효율적인 국토정책을 수립하고, 아울러 이에 요구되는 인재양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토연구원은 매년 전 세계 개도국을 대상으로 ‘도시 및 지역개발정책’ 연수과정을 실시하고 있다. 2007년에는 요르단,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이집트, 방글라데시, 콩고, 에티오피

아, 아이티, 필리핀, 네팔, 타지키스탄 등 총 11개국 공간정책 분야 종사 공무원들이 동 연수에 참가하였다.

도시개발과 지역개발 주제의 연수과정은 참가자들에게 토지, 주택, 교통 등 국토정책 전반에 걸친 전문 강의를 통해, 한국이 지난 반세기 동안 이룩한 국토개발의 성과와 시행착오를 소개하였다. 전문 강의는 신도시 사업지역, 고속도로 교통정보센터 등 유관 기관 및 현장 방문으로 이어져, 해당 정책과 제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연수 참가자들은 또한, 연수과정 동안 3박 4일 간 포항제철, 현대중공업 등 한국의 대표적인 산업시설을 시찰하였고, 서울과 지방에서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가지면서, 한국 경제와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더욱 넓힐 수 있었다.

참가자들은 연수과정을 통해 한국의 국토정책 사례로부터 다양한 시사점을 얻고, 이를 바탕으로, 자국 국토개발 도전과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계기를 가졌다. 나아가 참가자들은 자국 국토정책 현안 해결을 위한 한국의 지원 및 추후 한국과의 공동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하기도 하였다.

3. 국제학술교류

■ 몽골 국가개발전략 수립 특별조사단 내원

지난 2007년 4월 11일 몽골개발연구원의 Tsedendamba 원장과 Byambaa 부원장, 대통령 자문관 Batmend 등 몽골 특별조사단이 내원하여 국토연구원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몽골 국가개발전략에 대하여 심도 깊은 논의를 하였다. 이 자리에서 몽골 특별조사단은 한국 국토종합계획의 수립 과정, 수립 주체 및 주요 내용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으며, 국토연구원의 지역 개발, 교통, 관광 분야 전문가들은 현재 수립 중인 몽골 국가개발전략에 대하여 부분별 검토와 자문을 제공하였다.



■ 방글라데시 공무원 교육

교육정보통계국 Md. Mofazzal Hossain 국장을 비롯한 방글라데시 공무원 4인이 KOICA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2007년 5월 18일 국토연구원 국토정보연구센터를 방문하였다.

국토정보연구센터는 이들에게 한국의 국가GIS정책 동향 및 국토정보연구센터의 역할과 주요 연구 프로젝트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방글라데시 공무원들은 한국의 GIS 기술, 특히, 공간데이터 구축에 있어 항공사진 및 위성영상에서 데이터를 추출하는 방법과, 관련 소프트웨어에 대해 높은 관심을 표명하였다.

■ 이라크 공무원 교육

한국도로공사 연수프로그램에 참가 중인 이라크의 토목분야 종사 공무원 7명이 5월 31일 내원하여 국토연구원 전문가들로부터 한국의 국토종합계획과 지능형 교통시스템(ITS) 구축을 위한 국가전략을 교육받았다. 한국의 선진 국토정책과 정보기술 관련 지식을 전수받기 위하여 방문한 이라크 공무원들은, 전문 강의에 이어 강의 내용과 국토정책 전반에 대해 국토연구원 전문가들과 심층적인 토론 시간을 가졌다.

■ 네팔 공무원 내원

지역개발청 차관, 국토계획청 도시개발건축국장 등 네팔 중앙 및 지방 공무원 9인이 한국의 도시개발과 주택 정책에 대한 이해 제고를 목적으로 11월 2일 국토연구원을 방문하였다. 이들은, 국토연구원 도시 및 주택 분야 전문가들과 토론시간을 갖고, 네팔의 도시개발과 주택정책 현황 설명 및 도전 과제에 대한 자문을 받기도 하였다. 또한, 두 기관은 2007년 하반기부터 추진 중인 두 기관 간의 연구 협력 양해각서 체결에 관해 협의하였다.



IV 연구지원사업

1. 연구혁신활동	106
2. 국토연구원 연구관리시스템(PMS) 도입	108
3. 부설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 설립	110
4. 도로정책연구센터 설립	111
5. 제6회 국토연구 우수논문상 시상	112
6. 제12회 전국초등학생 국토사랑 글짓기대회 개최	113
7. 기획단행본 발간	114
8. 연구관련 주요 행사·교육	115

1. 연구혁신활동

■ 연구결과 우수성 확보

국토연구원에서는 정부의 정책의제 발굴뿐만 아니라 정책을 선도·지원하고, 정책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학술적·정책적 기여도가 높은 연구보고서를 생산하기 위해 완전공모제와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해 우수한 과제발굴 및 선정에 힘쓰고 있다. 지난해에는 연구관리시스템(Project Management System: PMS)을 이용하여 체계적이고 엄격하게 연구수행을 관리하고, 연구수행단계별로 4단계 심의·평가를 통해 학술적·정책적 기여도와 완성도가 높은 양질의 연구보고서를 생산하고자 노력하였다. 그 결과 정관상 기관설립 목적, 2007년도 연구사업목표, 대내·외적 환경 및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는 29개 기본과제를 수행하였다.

■ 연구 및 사업성과의 보급·확산

첨단정보화 수단을 이용한 연구성과 확산 노력의 일환으로 홈페이지 일본어번역 기능, 동영상, Web-mail, RSS(RDF Site Summary), 홈페이지 카페 기능 등 트렌드형 기법을 활용한 연구성과 확산체제를 구축·운영하였다. 특히 특화된 홈페이지인 '세계도시정보(UBIN)'의 콘텐츠를 전년 대비 25%(총 2,350건) 확대하였고, 장애인 등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시각장애인

용 홈페이지', 어린이들의 국토정보 이용도 제고를 위한 '어린이 국토홈페이지'를 구축하였다. 또한, 총 318건의 연구성과 전량을 생산 즉시 등록하여 자료의 최신성을 확보하고, 발주기관의 저작물 이용 동의를 얻어 수탁과제 55건을 등록하였으며, IKIS 이용활성화 및 홍보를 위해 정기적인 이용자 교육을 2회 실시하였다.

또한 해외 688개 유관기관 및 전문가 DB를 구축·운영하고, 국회전자도서관, 국가기록원, 기획예산처, 한국사회과학자료원과 정보제공협약을 체결하는 등 관련 전문가에게 특화된 정보네트워크를 확대하였다.

■ 인적자본 및 관계자본 증진을 위한 대외활동

국토연구원은 2007년 국내 1개, 해외 5개 기관과 연구협력(MOU)을 체결하여 국내 26개, 해외 11개국 27개 기관으로 MOU 체결기관을 확대하였고 이를 통해 국내·외 연구교류 기반 다양화 및 전문적인 지식교류 활성화를 통한 연구의 선진화체계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와타나베 순이치(도쿄대 교수) 등 해외전문가 연구 참여 19건, 해리 리차드슨(미국 USC) 등 해외석학 초청세미나 13회, 국제GIS대회(공간정보사회)를 향한 협력적 GIS 활용방안을 위한 국제세미나 등 국제세미나 9회 등 국제적 연구역량 강화와 해외 전문가와의 인적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으며, 국토관련 분야의 축적된 경험과 기술전수 및 정책사례 소개를 통





해 개발도상국의 발전에 필요한 인재양성을 지원하기 위한 KOICA 위탁교육프로그램을 2007년 총 3회 개최하였다. 또한 개발도상국과의 모범적 국제협력 사례제 공 등 국제교류 협력 강화를 위해 캄보디아, 베트남 등에 이어 2007년 이집트 정부에 “토지개발 및 계획적 관리방식”에 관한 국토연구원의 축적된 전문지식과 기술을 전수하였다.

■ 원내 의사소통 활성화

정보의 공유와 ‘진솔한 소통’ 문화를 유도하기 위한 ‘열린 소리함’ 설치로 구성원의 민원을 원장에게 직접 전달하고, 직급·부서별 간담회, 호프파티 등 공식·비공식 만남을 통해 조직의 문제, 개인적 애로사항을 경청하는 등 구성원과의 유대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자발성과 참여를 바탕으로 연구혁신 워크숍(2회), 외부전문가 초청



특강(연 39회), 세미나(연 59회), 연구소모임(연 71회) 등 자율적 연대 및 소통과 학습기회를 확대하였다.

한편, 연구원의 내재된 문제점을 파악하고 조직의 점진적 발전을 위해 전 직급의 대표가 참여하는 ‘Vision KRIHS’를 구성하여 자발적 문제제기 및 해결의 장을 마련하였으며, 매일단위의 일일점검회의, 매주 단위의 경영혁신부서장회의, 매월단위의 연구경영혁신 월요회의로 회의방식을 체계화하였다.

■ 국토연구 가치관 확립

국책연구기관으로서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1사1촌 운동(강원도 철원



군 금화읍 도창리), 안양노인전문요양원 매일 자원봉사, 안양시 관내 기업 릴레이 봉사(2회), 불우이웃돕기(총 3,598만 원) 등에 적극 참여하였으며, 태안 허베이 스피리트호 원유유출 사고지역에 대한 자원봉사 실시(2회) 및 동 지역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 환경영향 조사 및 지역사회 회회 회회 ·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수행을 계획(08년 수시연구과제로 선정 · 추진)하였다. 또한 안양시 인덕원 지역의 거리를 대상으로 당해 지역의 사회시민단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연구원 고유의 전문적 지식과 연계하는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발굴 · 실천하였다.

한편, 국토균형발전 및 신국토가치 창조를 위한 원내외의 협동연구 정책과제 발굴의 일환으로 ‘지방분산 · 분권’, ‘미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국토어메니티’, ‘재정투자 파급효과 측정시스템’ 등 다양한 분야의 대형 · 협동연구과제를 수행하였으며, 혁신성과를 공유하고 연구과정에 체화시키기 위해 혁신경진대회(도시혁신지원센터 정책지원 활동 선정), 혁신특강(4회), 연구방법 혁신워크숍(2회) 등을 실시하였으며, 사회의 국토가치관 고취를 위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국토사랑 글짓기대회’를 확대 실시하여(3,113편 응모) 국토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키고자 노력하였다.

■ 연구 · 경영 관리시스템 효율화

기본연구과제 선정 시 직급과 부서를 초월한 완전경쟁방식을 채택하여 창의적 · 도전적 연구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그 결과 책임연구원급이 제안한 과제 중에서 3개가 선정되었고 공동연구책임자로 연구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또한 총 24개 우수연구보고서에 대한 성과보상금으로 5,100만 원을 지급하여 연구내용의 질적 향상을 위한 동기를 부여하였다. 한편, 국내 · 외 전문가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연구를 대폭 확대하여 연구진의 최신정보, 첨단기법, 접근성을 높이는 등 연구역량 강화에 노력하여 국내전문가 협동연구의 경우 전년대비 3.0% 증가, 해외전문가 협동연구는 전년대비 375% 증가하였다.

■ 투명경영의 대내 · 외 천명과 실천

투명경영 · 윤리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2005년 10월 이후 기획예산처의 ‘알리오’에 경영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공개해 오고 있으며, 2006년 12월 말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과 청렴계약을 체결하고, 이어 2007년 3월에는 전 구성원이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윤리의식을 고취시켰다. 또한, 연구의 투명성 실천을 위해 ‘연구표절방지 전문가 특강’을 실시하고, 기존 연구보고서에 대한 표절여부를 확인하였다.

2. 국토연구원 연구관리시스템(PMS) 도입

2007년 10월 국토연구원은 기존 연구관리체계를 개선하고 과거 1세대의 연구진행중심시스템에서 연구성과중심 연구관리시스템으로의 개편을 단행하였다.

이번 시스템 개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성과평가를 중심으로 하는 연구관리시스템으로의 변화와

신전자문서시스템 도입 그리고 예산 및 재무회계시스템 구축을 통한 예산통제 등이다.

1990년대 후반 문서형태가 중심이 되던 연구관리체계에 전산화가 이루어지면서 대부분의 연구기관들이 그룹웨어 시스템과 연계된 연구관리시스템을 도입하게

되었고, 국토연구원 또한 2002년부터 전자결재의 완전 전산화 및 연구관리시스템의 전산화를 통해 연구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게 되었다. 이때 도입한 것이 KOALA 시스템이다. KOALA 시스템의 도입으로 연구업무 및 행정처리가 대부분 전산화되었고, 연구수행의 모든 부문에 걸쳐 업무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이때에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었던 예산 및 재무회계시스템이 전산화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완벽한 연구관리 및 행정 정보화라고는 할 수 없는 단계였다.

이러한 문제점들로 인해 2세대라 할 수 있는 PMS(Project Management System)를 도입하게 되었으며 기존 1세대 연구관리시스템의 문제점들과 예산 및 재무회계의 연동을 통한 연구관리 및 통합행정시스템을 완성하게 되었다.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PMS는 먼저 연구수행 중심의 연구관리시스템에서 연구이력관리 및 체계적인 연구수행평가 관리시스템으로의 변모에 중점을 두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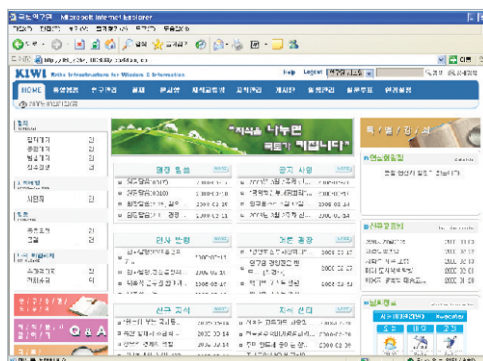
예비연구계획서 단계에서부터 연구진이 직접 시스템을 통해서 계획서 작성 및 연구예산을 수립하고 연구의 타당성 분석 및 운영위원회 개최, 또 실행연구계획서 및 예산확정부분의 전 과정을 온라인화하여 연구수행업무의 효율성을 높였다.

각종 연구심의부분도 심의계획에서부터 평가, 심의 결과까지 전 과정을 완전 전산화하여 연구심의의 투명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고 모든 데이터를 수시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다양한 연구에서 생산되는 공청회·세미나자료 및 각종 조사자료 그리고 회의자료 등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수집·관리할 수 있게 됨으로써 연구이력관리 및 연구자료활용 측면에서도 많은 발전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PMS와 전자결재 연동 및 통합행정 연동 부분도 많은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졌다. 전자결재문서시스템을 정부표준 양식의 전자전자문서시스템을 도입하여 PMS와 연동 처리하였으며 예산 및 재무회계 시스템 구축을 통해 연구사업 예산의 집행 및 운영관리를 완전전산화하여 연구사업 예산관리 투명성 확보 및 연구진 예산사용에 대한 편의성이 증대되었다

향후 국토연구원에서는 e-krihs 구축의 최종완성을 위한 3세대 연구관리시스템이라 할 수 있는 BPM(Business Process Management) 도입을 통해 연구사업의 평가 및 관리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연구수행의 표준 모델을 만들고 연구원 개인의 연구이력의 관리와 함께 이를 KMS를 통한 연구지식공유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예비연구계획	실행연구계획	계획관리	인도관리	연구실적	연구수행현황	현황조회	사후관리	행정정보	연구이력관리
I. 과제수행현황									
과제명	과제명	책임자	연구기간	현황					
가분과제 국도지방청 예산을 위한 지방청제도 추진방...	김영선	06.03.01 ~ 06.12.31	100%	100%					
나분과제 동북아 지역의 역점 Port Alliance 구축...	김영선	07.12.01 ~ 08.05.02	100%	100%					
다분과제 영국 Newcast Report 1949년 번역 및 정책적...	최대석	07.05.01 ~ 07.10.31	100%	100%					
라분과제 800구역을 통한 국가개발전략의 효과적...	김영선	07.03.14 ~ 07.09.30	100%	100%					
나분과제 2000년 지역간 산업현황의 구축	박성우	07.03.01 ~ 07.05.31	100%	100%					
다분과제 도시지역의 분포특성에 기초한 녹지공간...	최영국	07.03.01 ~ 07.08.31	100%	100%					
라분과제 한국철도 부가서비스 물류물류서비스 개발방안 연...	김영선	07.03.01 ~ 07.08.31	100%	100%					
가분과제 선진사회의 발전을 위한 토지개발방안 및 추진전략...	최대석	07.03.01 ~ 07.12.31	100%	100%					
나분과제 중점기 건설부흥사업 강령과 대안발안	김영선	06.11.01 ~ 07.10.31	100%	100%					
II. 예비계획서현황									
과제명	과제명	담당부서	책임자	연구기간	상태				
나분과제 동북아 교역량 구축에 관한 국제 공동연구	동북아발전연구센터	김영선		06.04.03 ~ 07.03.30	선정				
다분과제 국민안전대책 수요충당연구	토지·국책연구실	김영선		06.06.01 ~ 07.02.28	선정				
라분과제 최지도기업을 활용한 국가복합 소도 추진...	토지·국책연구실	김영선		06.09.01 ~ 07.02.28	선정				



3. 부설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 설립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 Architecture & Urban Research Institute)는 건축·도시 디자인의 국가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07년 6월 설립된 국토연구원 부설 연구기관이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주된 역할은 중앙정부를 위한 건축·도시분야에 대한 정책 방향 및 시책 제시, 건축도시 관련 업계의 창조적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환경 조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간의 가치와 건축문화 제고를 위한 지적 토대를 제공하는 것이다.

연구소의 설립은 2006년 6월, 대통령 자문회의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의 보고 시 “우리나라의 건축과 도시가 품격과 품질 양면에서 문화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제반연구와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싱크탱크(Think Tank)”로 기능하는 국책연구기관을 설립하라는 지시에 의해 전격 추진되었다. 동년 12월 설립예산안이 국회 심의를 통과하고 이듬해인 2007년 2월 연구소설립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2007년 6월 초대 소장인 운영태 소장의 취임 후 8월 17일 개소식이 개최되었다.

연구소 조직은 정책연구실, 설계연구실, 그리고 프로그램연구실의 3개 연구실과 기획조정실, 행정관리실로 나누어져 있으며, 2007년 12월 현재 총 22명의 정규직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7년에는 연구소 개소 초년도임을 감안하여 연구소의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국내 건축·도시공간 조성 여건과 현황을 진단하기 위한 연구과제들을 수행하였다. 기본연구과제로는 “공공건축의 가치 향상을 위한 정책 방향 및 추진 방안”, “도시공공공간 개선방향 설정을 위한 개념 정립 및 현황 조사 연구”, “공간정책의 인문학적 기초조성을 위한 연구”, “건축·도시공간의 정보인프라 구축을 위한 조사연구” 등을 수행하였다.

한편, 우리나라 공공건축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기 위해 2회의 공공건축설계포럼(제1회 “우리의 공공건축, 무엇이 문제인가”, 제2회 “우리 아이들의 교육시설, 이대로 좋은가”)을 개최하였으며, 또한 네덜란드 Berlage Institute 및 핀란드 건축박물관(MFA)과 MOU를 체결하고, 한국 건축가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S(e)OUL SCAPe’전의 이탈리아 등 3개국 순회전시를 주관하는 등 짧은 기간 동안 활발한 사업을 추진하였다.



소장 운영태

학력

전주교(69)
서울대학교 건축공학과(72)
서울대학교 도시계획학 석사(75)
University of Pennsylvania 도시계획학박사(88)

주요 경력

경희대학교 토목건축공학부 교수(92~현)
국토개발연구원 수석연구원(89~92)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 부설 지역개발연구소(80~81)
(주)정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과장(78~80)

4. 도로정책연구센터 설립

2007년 7월 국토연구원에 개설된 도로정책연구센터(Road Policy Research Center)는 도로분야 싱크탱크로서 중앙정부의 도로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수립을 보다 종합화, 체계화, 과학화하는 기능과 역할 수행을 통하여 도로정책 수립 및 도로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도로정책연구센터 설립배경은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우선 도로법 개정(04.1)으로 중앙정부는 전국차원의 도로정비기본계획과 지자체의 도로정비기본계획 간에 사업시기, 사업규모 측면의 일관성 확보를 통해 도로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수립한 도로계획 내용을 객관적으로 검토할 협의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전문가들에 의한 계획내용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둘째, 한 도로정책 수립과 관련된 각종 국내외 도로통계는 물론 개발된 도로기술 및 정책자료 등의 제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합리적인 도로정책 수립의 기반 마련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난 6개월간 연구센터의 주요 업무추진 실적으로는 첫째, 지자체 도로정비기본계획 검토 협의기준과 절차 마련 및 이에 따른 협의를 시행하였다. 지자체가 수립한 도로정비기본계획에 대한 객관적 검토기준을 마련과 함께 서울시, 경기도를 포함한 6개 광역 시·도의 도로정비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대한 검토 및 협의를 통해 중앙정부 계획과 계획내용의 일관성을 확보토록 하였다.

둘째, 중앙정부 도로행정 및 지자체 도로사업 조정 및 계획내용에 대한 검토 및 자문을 시행하였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노선 중 송도지구 통과노선에 대한 검토의견, 수도권 고속도로 노선번호체계 조정방안 협의 및 시행방안 제안, 지방도 1030호 등 지방도 및 광역시도 등 노선인정 승인요청에 대한 검토 등 10여 건 이상의 검토요청 사항에 대한 전문가 검토의견을 제시하여 중앙정부 정책수립에 일조를 하였다.



셋째, 국내외 도로정책 동향 파악 및 도로관련 정보 제공으로 도로정책 수립 및 도로투자의 중요성을 공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매월 도로정책 브리프 발간을 통하여 국내외 도로정책 관련 동향을 정책결정자 및 도로관련 전문가 집단에 배포하여 신속한 도로정책 동향파악에 도움을 제공하였다.

특히 도로정책 웹사이트(www.roadresearch.or.kr)의 구축 운영을 통하여 국민들의 다양한 도로관련 의견 및 시정요구 사항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 중심의 도로정책 수립에 기여하였다. 또한 도로정책 입안자 및 도로관련 전문가들에게 국내외 도로관련 통계자료, 정책동향을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정책입안자의 의사결정과 관련 전문가 연구수행에 기여하였다.

5. 제6회 국토연구 우수논문상 시상

국토연구 우수논문상은 국토관련 연구의 질을 제고하고 연구의욕을 진작시키고자 마련한 제도로써, 한 해 동안 게재된 논문 중 우수논문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다. 국토연구 편집위원회에서는 지난 2007년 12월 우수논문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2007년도 게재된 53편을 심사하였고 그 결과 최우수상 1편, 우수상 2편을 선정하였다.

제6회 국토연구 우수논문상의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논문은 「유지보수, 리모델링, 재건축의 의사결정에 관한 미시적 분석」이고, 우수상으로는 「명시선호실험과 현시선호자료를 이용한 대도시권 지하철역세권 설정연구」와 「우리나라 15개 시도의 일자리수 변화와 인구이동 간 인과성 검증」이다. 시상식은 2008년 3월 4일 국토연구원에서 개최되었다.

국토연구 우수논문상은 지난 2002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수상자들에게는 연구장려금과 상패가 수여된다.



■ 제6회 국토연구 우수논문상 시상내역

구 분	연구자	논문제목
최우수상	이용만(한성대학교 부동산학과 부교수) 배순석(국토연구원 토지·주택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유지보수, 리모델링, 재건축의 의사결정에 관한 미시적 분석
우수상	김재홍(울산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이승일(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부교수) 이신해(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명시선호실험과 현시선호자료를 이용한 대도시권 지하철역세권 설정연구
	오정일(경북대학교 행정학과 전임강사) 안기돈(산업연구원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 부연구위원)	우리나라 15개 시도의 일자리수 변화와 인구이동 간 인과성 검증

6. 제12회 전국초등학생 국토사랑 글짓기대회 개최

이 땅의 어린이들에게 삶의 터전인 국토의 중요성과 환경 보존의 필요성을 일깨우기 위해 마련한 국토사랑 글짓기 대회가 제12회를 맞이하였다. 이번 대회에는 총 230개 초등학교, 3113편의 작품이 응모하여 3차에 걸친 엄격한 심사를 거친 결과 대상 1편, 금상 2편, 은상 4편, 동상 50편, 단체상 3개교, 지도교사상 3인, 장려상 300편이 선정되었다.



- 주최: 국토연구원, 대한주택공사, 소년한국일보사
- 후원: 교육인적자원부, 건설교통부
- 기간: 2007. 8. 24~9. 28
- 시상식: 2007. 11. 5, 국토연구원 강당

■ 개인상(대상, 금상, 은상) 수상자 명단

구분	지역	학교	학년	성명	작품명
대상	경기안양	안양비산	3	이다솜	1평짜리 내 땅
금상	경북영주	경북영주	4	남건호	내가 살고 싶은 집
	경기고양	고양신촌	5	손예린	창릉천과 함께 흐르는 나의 꿈
은상	전북군산	군산진포	2	박세진	내가 국토를 사랑하는 방법
	경기안산	안산성포	4	김은경	서해안 조개들의 하소연
	경남마산	마산삼계	5	노희윤	할머니의 텃밭
	강원원주	원주태봉	6	신은경	내가 살고 있는 집, 내가 없앨지도 몰라요

■ 단체상

구분	지역	학교
대상	경기	고양신촌
금상	전남	광양제철
은상	서울	상명사대부속

■ 지도교사상

구분	지역	학교	성명
대상	서울	서울도곡	김용익
금상	경기	안양비산	곽옥희
은상	서울	서울알로이시오	장윤지

7. 기획단행본 발간

■ KRIHS 번역총서 4

- 시민이 참가하는 마치즈쿠리(커뮤니티 비즈니스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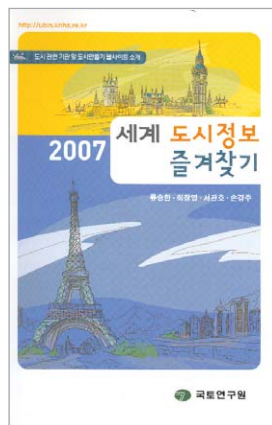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국토연구원이 공동으로 기획한 ‘시민이 참가하는 마치즈쿠리’의 완결편이다. 이 책은 마치즈쿠리의 핵심사업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커뮤니티 비즈니스에 초점을 맞춰 주민주도 아래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를 살리며 지역을 자립하게 하는 실천적 방안을 다루었다. 일본에서도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그 역사가 일천하고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지 얼마되지 않은 현시점에서 관련 분야의 배경과 사상부터 구체적인 사례에 이르기까지 깊이 있게 소개한 이 책은 살기좋은 도시만들기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줄 것이다.



▶ 신국판 / 298p / 반양장

■ 2007 세계도시정보 즐겨찾기

‘2007 세계도시정보 즐겨찾기’는 도시에 관심을 가진 이들이 한정되어 있는 국내 정보만이 아닌 세계의 보다 다양하고 깊이 있는 도시관련 정보들에 직접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이에 따라 이 책은 세계 도시정보 사이트(<http://ubin.krihs.re.kr>)에서 제공하는 세계의 선진 도시 및 살기좋은 지역에 대한 정보의 출처가 되는 웹사이트들을 지면을 통해 소개함으로써 보다 다양하고 심화된 최신정보의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용자 편의를 위해 이 책은 800여 개에 달하는 관련 웹사이트를 ‘세계도시정보’, ‘세계 주요도시’, ‘세계 도시만들기’, ‘세계 도시개발 사례 및 관련 기관’으로 분류, 정리하였다. 그중 170여 개의 사이트는 사이트(기관 및 도시 등)의 소개, 주요내용, 제공자료, 언어 등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수록하였고 나머지 630여 개의 사이트에 대해서는 간략한 안내와 URL 주소를 소개하였다.



▶ 신국판 / 241p / 반양장

8. 연구관련 주요 행사 · 교육

국토연구원은 연구성과의 질적인 향상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워크숍, 세미나 등 다양한 형태의 연구관련 행사를 개최해왔다. 지난 2007년에는 총 57건의 워크숍, 17건의 설명회, 14건의 간담회, 15건의 토론회, 3건의 공청회, 8건의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연구성과를 확산함으로써 연구정보의 공유와 국민들의 알권리 충족에 기여하였다.

1) 워크숍

■ 전주 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 워크숍

- 개최일 : 1차(1.8~9), 2차(2.6), 3차(2.26~27)
- 개최장소 : 1차(전주시 문화정보 114센터), 2차(3층 중회의실), 3차(한국토지공사 토지연구원)
- 주요내용 : 1차(연구기관별 과업진행방향 및 업무분담 토론), 2차(연구기관별 연구진행사항 토론 및 1차 중간보고회 사전협의), 3차(전주 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 선정 및 향후 추진일정 사전협의)

■ 경주 역사문화도시 조성 타당성조사 · 기본계획 및 선도사업 워크숍

- 개최일 : 1.10~11
- 개최장소 : 경주시청
- 주요내용 : 연구기관별 과업진행방향 및 업무분담 토론

■ 수도권외 계획적 관리방안 연구 시 · 도연구원 워크숍

- 개최일 : 2.2
- 개최장소 : 7층 회의실
- 주요내용 : 핵심 연구과제 논의 및 연구기관별 연구영역 분담 협의

■ 국가ITS 표준화 발전 워크숍

- 개최일 : 2.8~9
- 개최장소 : 평창 한화콘도
- 주요내용 : 2007년도 ITS 표준화 중장기 발전방향 실행계획 도출, U-T 국가표준 및 교통정보 연계를 위한 기술기준 연구관련 논의

■ 국가GIS 관계부처 워크숍

- 개최일 : 2.8
- 개최장소 : 대한주택공사 속초연수원
- 주요내용 : 국가GIS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부처 간 협력방안 논의

■ 동북아 교통망 구축에 관한 국제공동연구(NIRA-ISPRI-KRIHS) 3차 워크숍

- 개최일 : 3.8~9
- 개최장소 : 도쿄 NIRA
- 주요내용 : BESETO 회랑 구축을 위한 제안

■ 경주 역사문화도시 조성 타당성조사 · 기본계획 및 선도사업 세부실행 기본계획 수립연구 실무 연구진 워크숍

- 개최일 : 3.9
- 개최장소 : 3층 중회의실
- 주요내용 : 경주 역사문화도시 조성 선도사업 선정 및 향후 추진일정 협의

■ 한반도 기반시설 개발 기본계획 수립 연구(II) (교통부문, 에너지부문) 전문가 워크숍

- 개최일 : 3.13, 3.15
- 개최장소 : 6층 회의실
- 주요내용 : 교통 및 에너지부문의 동북아 협력실태와 문제점 파악

■ 천안-아산 광역버스정보시스템 워크숍

- 개최일 : 3.16
- 개최장소 : 도고 파라다이스호텔
- 주요내용 : 광역버스정보시스템 실시설계안 발표 및 세부검토

■ 주택종합계획(2003~2012) 수정·보완을 위한 연구/주거실태조사 합동워크숍

- 개최일 : 3.16
- 개최장소 : 3층 중회의실
- 주요내용 : 주택종합계획 중간연구결과 및 주거실태조사결과 발표, 전문가 및 담당실무진 토론

■ 전주 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연구 실무진 워크숍

- 개최일 : 3.22
- 개최장소 : 3층 중회의실

■ 국토어메니티 발굴과 창출전략 연구 실무진 워크숍

- 개최일 : 3.30
- 개최장소 : 3층 소회의실
- 주요내용 : 협동기관 간 연구내용 협의 및 계획 논의

■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 수립연구 워크숍

- 개최일 : 4.2~5
- 개최장소 : 한국토지공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본부
- 주요내용 :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 최종(안) 축조심의

■ 북한인프라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전문가 워크숍

- 개최일 : 4.17
- 개최장소 : 6층 회의실

■ 수도권 계획적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릴레이 워크숍

- 개최일 : 4.20~21(1차), 5.30(2차), 6.8(3차), 6.15(4차), 6.29(5차), 7.6(6차), 7.13(7차), 7.20(8차), 7.27(9차), 8.13(10차), 8.23~24(11차), 9.12(12차), 10.12(13차), 10.26(14차), 11.1(15차), 11.9(16차), 12.5(17차), 12.17(18차)
- 개최장소 : 용인한화콘도(1차), 경기개발연구원(2차), 서울시정개발연구원(3차), 인천발전연구원(4

차), 국토연구원(5차), 경기개발연구원(6차), 서울시정개발연구원(7차), 인천발전연구원(8차), 국토연구원(9차), 경기개발연구원(10차), 제주풍림콘도(11차), 인천발전연구원(12차), 경기개발연구원(13차), 국토연구원(14차), 서울시정개발연구원(15차), 국토연구원(16차), 인천발전연구원(17차), 국토연구원(18차)

- 주요내용 : 참여 연구기관별 연구내용 및 향후 연구 추진계획 논의(1차), 성장관리 모니터링 이슈(2차), 기존 수도권계획의 실효성 검토(3차), 인접 도시 간 도시계획 및 개발사업의 협력방안(4차), 미국 워싱턴주 사례 발표 및 해외조사사례 형식 제안(5차), 수도권계획 체계의 현황과 과제 논의(6차), 수도권 토지이용관리방안 논의(7차), 수도권 정책관련 갈등사례 조사 및 유형분석(8차), 기반시설 공급비용 분담 체계(9차), 수도권 권역제도 개편방안(10차), 수도권 관련계획의 정합성 확보방안(11차), 제2차 해외출장자료 공유(12차), 새로운 수도권 계획의 내용과 구성요소(13차), 지방 대도시권 공동지역발전을 위한 연구동향 사례 발표(14차), 정부 및 지자체 보고 자료 사전 준비(15차), 정부 및 지자체 보고 자료(PPT) 검토(16차), 2차 중간보고 관련 사항 정리(17차), 수도권 3개 시·도 연구원 공동정책과제(수도권 광역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실현방안 연구) 및 경기개발연구원 기초과제(수도권 계획적 관리체계 도입을 위한 기본전략 연구)에 관한 토의(18차)

■ 공간정보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한 국가GIS 전략연구 워크숍

- 개최일 : 7.5~6
- 개최장소 : 부산대, 부경대
- 주요내용 : 공간정보 변화 트렌드의 핵심 키워드 도출

■ 토석정보시스템(EIS) 개선 워크숍

- 개최일 : 7.20
- 개최장소 : 강당
- 주요내용 : 토석정보시스템의 개편내용 설명, CFS(Critical Success Factor) 발굴 논의

■ 전주 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 계획수립연구 연구진 워크숍

- 개최일 : 8.2~3
- 개최장소 : 양평 남한강 콘도
- 주요내용 : 공청회(안) 및 최종보고서(안) 추진성과 검토 및 의견조율

■ 수도권 계획적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연구 공동연구진 워크숍

- 개최일 : 8.23~24
- 개최장소 : 제주도 풍림콘도
- 주요내용 : 수도권의 해외사례 보고 및 토론회 논의

■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에 관한 투자평가지침 전문가 워크숍

- 개최일 : 8.23
- 개최장소 : 3층 소회의실
- 주요내용 : 관계부처 회람을 위한 지침개정(안)의 최종 점검 및 부문별 보완사항 검토

■ 2007년도 균형발전영향평가단 워크숍

- 개최일 : 8.27~28
- 개최장소 : 제주대 연수원
- 주요내용 : 2007년도 평가결과 최종 검토, 제도개선 방안 등 토의

■ 경주 역사문화도시 조성 타당성조사·기본계획 및 선도사업 세부실행기본계획 수립연구 실무진 워크숍

- 개최일 : 9.4~5
- 개최장소 : 경주시청, 대명콘도
- 주요내용 : 경주 역사문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관련 연구내용 검토 및 향후 일정 토의

■ 북한 서해안권 주요 거점 개발 및 SOC 설치 구상 공동워크숍

- 개최일 : 9.4
- 개최장소 : 서울교육문화회관
- 주요내용 : 북한의 국토발전 방향과 서해안권의 개발

잠재력

■ 지방분산·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의 대응과제 연구 기관 합동워크숍

- 개최일 : 9.6
- 개최장소 : 3층 소회의실
- 주요내용 : 전략거점 개발 성과극대화를 위한 지역 간 연계방안에 대한 협의

■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 제도개선 연구 지방의견 수렴 워크숍

- 개최일 : 9.14
- 개최장소 : 3층 중회의실
- 주요내용 :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체제 전환에 관한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비수도권 의견수렴

■ 미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국토어메니티 발굴과 창출전략 연구 워크숍

- 개최일 : 10.1~2
- 개최장소 : 제주대
- 주요내용 : 도시, 농산촌, 연안어촌, 환경지역 어메니티 창출전략 발표 및 토론

■ 국가GIS 표준화 워크숍

- 개최일 : 10.22~23
- 개최장소 : 대한주택공사연수원
- 주요내용 : 국가GIS 사업의 상호 운용성 기반확보,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워크숍 및 분과위원회 회의

■ 낙동강 프로젝트 기본계획 수립 연구 워크숍

- 개최일 : 10.23
- 개최장소 : 3층 중회의실
- 주요내용 : 사업구상(안) 설명 및 의견수렴, 과업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방향 협의

■ 북한 서해안권 주요 거점개발 및 SOC 설치구상 워크숍

- 개최일 : 10.24

- 개최장소 : 3층 중회의실
- 주요내용 : 통일 이후 구동독 함만도시 개발과 시사점에 관한 논의

■ 제2차 한·일 공동워크숍

- 개최일 : 10.25
- 개최장소 : 2층 대회의실(동편)
- 주요내용 : “공간정보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국가 GIS 전략(기본과제)” 수행의 일환

■ 국토정보화 혁신을 위한 지능형국토 추진방안(I) 워크숍

- 개최일 : 11.2
- 개최장소 : 3층 중회의실
- 주요내용 : 국토 및 도시공간의 지능화 추진방안 워크숍

■ GIS 전문인력 양성사업 워크숍

- 개최일 : 11.30~12.1
- 개최장소 : 강릉대
- 주요내용 : GIS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실적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개선방안 모색

■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국회 공동정책 워크숍

- 개최일 : 12.4
- 개최장소 : 국회헌정기념관
- 주요내용 : 자전거 이용활성화 사업추진방향과 제도 개선방안 및 국회, 지자체, 전문가, 학회, 사회단체 간 협력체제 구축방안 등 논의

■ 하천복원사업의 사회·경제성 평가기법 개발 (2차연도) 워크숍

- 개최일 : 12.14~15
- 개최장소 : 단양 대명콘도
- 주요내용 : 각 연구기관에서 하천복원사업 2차 연도에 추진한 내용에 대한 중간평가 및 토론

■ 간선도로 기능제고 방안 마련 및 중장기계획

연구 전문가 워크숍

- 개최일 : 12.28
- 개최장소 : 강당
- 주요내용 : 국토기능분류(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수렴

■ 토석정보시스템(EIS) 개선 워크숍

- 개최일 : 12.18
- 개최장소 : 3층 중회의실
- 주요내용 : 토석정보시스템에 대한 개선사항 발굴

■ 글로벌 시대의 국토정책과 동북아 도시 간 연계·협력방안 연구 전문가 워크숍

- 개최일 : 12.18, 21
- 개최장소 : 6층 회의실
- 주요내용 : 동북아 대도시 간 인프라 연계

■ 파주시 도시성장 관리방안 수립연구 워크숍

- 개최일 : 12.20
- 개최장소 : 파주시 흥원연수원
- 주요내용 : 자문회의 후 과업 진행방향 및 파주신도시 개발방향 토의

2) 설명회

■ 광역교통개선대책 비용의 합리적 재원부담 방안 연구 지자체 설명회

- 개최일 : 1.12
- 개최장소 : 3층 중회의실
- 주요내용 : 연구결과에 대한 관련 지자체 설명 및 의견수렴

■ 제주광역도시계획 수립연구 읍·면지역 설명회

- 개최일 : 1.22~26
- 개최장소 : 제주도 읍·면사무소
- 주요내용 : 제주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읍·면 주민 의견수렴

■ 세계도시정보(UBIN) 웹 서비스 제공 기자설명회

- 개최일 : 1.17
- 개최장소 : 건교부
- 주요내용 : 세계도시정보(UBIN) 구축사업 설명 및 시연

■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지역 난개발방지 방안 설명회

- 개최일 : 1.29
- 개최장소 : 9층 회의실

■ 고도지역 지구지정(안) 사전설명회

- 개최일 : 1차(2.15), 2차(2.28)
- 개최장소 : 1차(익산시청), 2차(부여군청)
- 주요내용 : 1차(고도보전법령 개정(안), 익산시 고도법역 및 보존지구 지정(안), 보존지구관리방안, 주민지원대책 설명), 2차(고도보존 방향, 고도지역의 특별보존지구와 역사문화환경지구 지정(안), 주민지원방안 논의)

■ 고도지역 지구지정을 위한 기초조사 사전설명회

- 개최일 : 3.7
- 개최장소 : 익산시청
- 주요내용 : 익산시 지구지정(안) 및 고도관리방안 설명

■ 고도지역 지구지정 연구 사전설명회

- 개최일 : 5.17
- 개최장소 : 경주시청
- 주요내용 : 고도보전 방안 및 보전 지구지정(안) 논의

■ 하도급건설 공사대장 통보제도 시행 설명회

- 개최일 : 9.12(서울지역), 9.20(경기지역)
- 개최장소 : 전문건설공제조합(서울지역), 강당(경기지역)

■ 하도급건설 공사대장(전자) 통보제도 설명회

- 개최일 : 1차(12.20), 2차(12.26), 3차(12.27), 4차(12.28)

- 개최장소 : 1차(전북대 교육문화회관), 2차(창신대), 3차(평송청소년수련원), 4차(국토연구원)

3) 간담회

■ 혁신도시 관련 간담회

- 개최일 : 2.9
- 개최장소 : 건교부
- 주요내용 : 혁신도시 관련 용역과제별 연구현황 및 향후 추진방향 논의

■ 도로관련 정책간담회

- 개최일 : 3.21
- 개최장소 : 건교부
- 주요내용 : 도로정책 지원 강화방안, (가칭)도로계획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방안 등 논의

■ 동북아 핵심경제지역 발전전망과 연계망 구축(I) 연구간담회

- 개최일 : 3.29
- 개최장소 : 6층 회의실
- 주요내용 : 동북아 지역경제 동향에 관한 주제발표 및 토론

■ 물류부문 정책간담회

- 개최일 : 7.28
- 개최장소 : 3층 세미나실
- 주요내용 : 물류기업, 화주기업, 공공부문의 물류경쟁력 평가지표(KPI) 및 기준설정 등 경쟁력 향상방안, 2008년도 한국물류대상 주제도출 논의

■ 생활교통 관련 정책간담회

- 개최일 : 7.30
- 개최장소 : 2층 대회의실
- 주요내용 : 광역교통, 도시교통 등의 정책현안 협의

■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안양지역 전문가 초청간담회

- 개최일 : 8.13
- 개최장소 : 2층 대회의실(동편)
- 주요내용 : 안양지역의 살고 싶은 도시·마을만들기 현황과 과제

■ 물류분야 신규발굴을 위한 간담회

- 개최일 : 8.16
- 개최장소 : 중소기업협동중앙회
- 주요내용 : 중소기업 물류자원을 위한 DB구축, 물류 단지개발 모형 등 신규과제 도출방안 토의

■ 남북정상회담 관련 건설교통부문 과제 전문가 간담회

- 개최일 : 8.22
- 개최장소 : 3층 중회의실

■ 마산자유무역지역 활성화방안 간담회

- 개최일 : 9.13
- 개최장소 : 3층 중회의실

■ 국가GIS 운영실태 조사 간담회

- 개최일 : 9.18
- 개최장소 : 2층 대회의실(동편)
- 주요내용 : GIS 산업실태 분석, 지자체 GIS 실태 분석

■ 지방분산·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의 대응과제 초청간담회

- 개최일 : 10.9
- 개최장소 : 3층 소회의실
- 주요내용 : 진주, 진천·음성혁신도시 개발특성에 관한 논의

■ 지방분산·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의 대응과제(III) 실무자 초청간담회

- 개최일 : 10.16
- 개최장소 : 3층 세미나실
- 주요내용 : 광주·전남 혁신도시 및 원주 기업도시 개

발특성에 관한 논의

■ 농촌토지이용의 계획적 관리방안 정책간담회

- 개최일 : 11.27
- 개최장소 : 3층 소회의실
- 주요내용 : 개선대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조율

■ 제3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 수립 정책간담회 및 공청회

- 개최일 : 정책간담회(12.14), 공청회(12.21)
- 개최장소 : 3층 중회의실, 강당
- 주요내용 : 제3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안)에 대한 각계 의견수렴 및 조정

4) 토론회

■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지역 관리방안 공개토론회

- 개최일 : 1.11
- 개최장소 : 고려대 서창캠퍼스
- 주요내용 : 주변지역 계획적 관리방안 등 주제발표 및 토론

■ 국가GIS표준 중장기 계획 공개토론회

- 개최일 : 1.31
- 개최장소 : 강당
- 주요내용 : 국가GIS표준체계 확립을 위한 중장기계획에 대한 전문가 의견수렴 및 토론

■ 행정도시 주변지역 관리방안 토론회

- 개최일 : 3.20
- 개최장소 : 연기군민회관(조치원)
- 주요내용 : 주변지역 계획적 관리방안, 주변지역 지원사업계획 수립에 대해 발표

■ 재해에 안전한 국토기반 구축 정책토론회

- 개최일 : 3.26
- 개최장소 : 3층 중회의실

- 주요내용 : 2006년 수해특성과 수해 최소화 정책방안 (강원 평창·인제군을 중심으로) 등 주제발표 및 토론

■ 수도권 계획적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연구 토론회

- 개최일 : 5.10(1차), 8.10(2차)
- 개최장소 : 3층 중회의실(1차), 경기개발연구원(2차)
- 주요내용 : 과업의 개요, 연구추진 현황 및 연구계획 보고, 민간협의회 및 관계기관 참석자 의견 청취(1차), 연구용역 1차 중간보고 및 수도권 정책혁신 민간협의회 토론(2차)

■ 지역문화 발전과 지역공동체 형성 전략 모색 토론회

- 개최일 : 7.19
- 개최장소 : 3층 중회의실
- 주요내용 : 현대사회에서 지역공동체의 의미와 지역 문화 활성화 방안 등의 주제발표와 토론

■ 고도지역 주민대표 합동토론회

- 개최일 : 7.26~27
- 개최장소 : 전주리베라호텔
- 주요내용 : 고도지역 지구 지정(안)에 대한 토의 및 주민의견 수렴

■ 노후 산업단지 재정비 실행방안 연구 토론회

- 개최일 : 9.3
- 개최장소 : 2층 대회의실(동편)
- 주요내용 : 노후산업단지 재정비 실행방안을 위한 기관별 전문가 의견수렴 및 논의

■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 구축 연구(2차) 토론회

- 개최일 : 9.6~7
- 개최장소 : 3층 중회의실

■ 첨단미래지식 중심도시 연구용역 제1회 전문가 초청토론회

- 개최일 : 9.13
- 개최장소 : 3층 소회의실

- 주요내용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글로벌 지식경제자유구역 육성전략의 모색

■ 첨단미래지식 중심도시 연구용역 제2회 전문가 초청 토론회

- 개최일 : 9.20
- 개최장소 : 2층 대회의실(동편)
- 주요내용 : 대구시의 바람직한 산업구조 개편 및 고도화 방안의 제시

■ 제2차 국토문화네트워크 토론회

- 개최일 : 10.18
- 개최장소 : 3층 중회의실
- 주요내용 : 보호구역과 지역공동체 복원방안 발표

■ 국토어메니티 발굴과 창출전략에 관한 정책토론회

- 개최일 : 11.7
- 개최장소 : 3층 중회의실
- 주요내용 : 국토어메니티 발굴과 창출전략 등 주제 발표와 토론

■ 도시권 확정연구 전문가 정책토론회

- 개최일 : 12.7
- 개최장소 : 2층 대회의실(동편)
- 주요내용 : 도시권 확정방안에 대한 논의

5) 세미나

■ 북한 주요항만의 배후산업단지 개발전략에 관한 연구 전문가 정책세미나

- 개최일 : 7.5
- 개최장소 : 3층 중회의실
- 주요내용 : 연구성과 발표 및 향후 연구계획 논의

■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지역발전에 관한 국제세미나

- 개최일 : 7.18

- 개최장소 : 조선호텔
- 주요내용 : 선진외국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경험과 교훈(영국, 프랑스, 한국사례) 등 사례발표

■ 하천복원사업의 사회·경제성 평가기법 개발 정책세미나

- 개최일 : 7.24
- 개최장소 : 2층 대회의실
- 주요내용 : 하천복원사업의 평가기준에 대한 전문가 의견수렴

■ 한반도 국토기반시설 개발 기본계획 수립연구(II) 국제세미나

- 개최일 : 9.13~14
- 개최장소 : 강당
- 주요내용 : 북한 인프라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논의

■ 동북아 핵심경제지역의 발전전망과 연계망 구축 (I) 국제세미나

- 개최일 : 10.11~12
- 개최장소 : 강당
- 주요내용 : 중국과 일본 핵심경제지역의 성장과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변국과의 연계관계를 파악하여 장래 발전전망 논의

■ 제11차 GIS 국제세미나

- 개최일 : 10.24
- 개최장소 : 강당
- 주요내용 : 공간정보기반의 미래사회 전망, 유비쿼터스 환경과 참여형 PPGIS, 공간의사결정지원시스템, 계획지원시스템 등 발표 및 논의

■ 밀양 첨단과학산업단지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 수립연구 세미나

- 개최일 : 11.27
- 개최장소 : 백스코
- 주요내용 : 밀양 첨단과학산업단지 개발과제의 방향 선정, 필요성 및 타당성, 계획수립 방향 등에 관한

의견제시 및 토론

■ 동아시아 지역 내 주요 도시의 국경 간 협력 국제세미나

- 개최일 : 12.13~14
- 개최장소 : 제주 신라호텔
- 주요내용 : 국경 간 협력에 관한 국가전략, 환황해권 지역 내 주요도시의 기회와 도전, 동아시아 내 지역 간 협력을 위한 향후 과제 등 발표 및 토론

6) 공청회

■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안) 공청회

- 개최일 : 3.28
- 개최장소 : 강당
- 주요내용 : 수도권,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의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안) 발표 및 종합토론

■ 전주 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연구 공청회

- 개최일 : 11.1
- 개최장소 : 전주시 전통문화센터

■ 경주 역사문화도시 조성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및 선도사업 세부실행기본계획 수립연구 공청회

- 개최일 : 11.21
- 개최장소 : 경주시청
- 주요내용 : 경주 역사문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연구내용 의견수렴

7) 기타

■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 구축연구(2차연도)

사업설명회 및 사용자교육

- 개최일 : 1차(3.20), 2차(4.3~4)
- 개최장소 : 1차(대구광역시), 2차(제주특별자치도청)
- 주요내용 : KOPSS 사업설명회, 보전·개발가능지 모형 외 5개 모형 사용자교육

■ Air-City 개발기본계획 및 수립연구 외국 용역사 선정을 위한 공항주변지역 개발사례 발표회

- 개최일 : 3.26(1차), 3.30(2차)
- 개최장소 : 2층 대회의실

■ 공간정보사회 연구포럼

- 개최일 : 5.14
- 개최장소 : 3층 중회의실
- 주요내용 : 현대공간정보의 지리학적 원류(이민부 대한지리학회장 주제발표)

■ 물류산업 평가지표 전문가회의

- 개최일 : 7.11
- 개최장소 : 3층 소회의실
- 주요내용 : 물류·화주산업의 물류경쟁력 평가지표 표준화, 심사방안 등 논의

■ 2011년 세계도로대회 관련 한·일 협력회의

- 개최일 : 9.4
- 개최장소 : 일본 국토교통성
- 주요내용 : 세계도로협회 이사회(9.15, 파리) 관련 일본측 동향파악, 지원요청 및 향후 도로연구의 협력확대 등 논의

■ 바른 글쓰기 강좌

- 개최일 : 9.18
- 개최장소 : 강당

- 주요내용 : 맞춤법, 공문서 바로쓰기, 바른문장 쓰기
(강사: 이정미 국립국어원)

■ 산업단지 공급확대를 위한 혁신포럼

- 개최일 : 10.11
- 개최장소 : 한국국학진흥원

■ 제13회 아시아 컨스트럭트 회의

- 개최일 : 10.18~19
- 개최장소 : 교육문화회관
- 주요내용 : 각국 건설산업 현황 소개와 건설혁신 관련 사례 발표 및 토론

■ 미래 도시정책방향 수립연구 포럼

- 개최일 : 11.13
- 개최장소 : 건교부
- 주요내용 : 영국 도시계획체계의 변화와 중앙정부의 도시계획 지침사례 발표

■ 표절예방강좌

- 개최일 : 11.26
- 개최장소 : 강당
- 주요내용 : 표절 정의 및 예방절차, 표절대응방안 등
(강사: 이호홍 저작권협회)

V 정기간행물 목차

1. 국토(303호~315호)	126
2. 국토연구(52권~55권)	136
3. 건설경제(51권~54권)	138
4. 국토정책Brief(121호~163호)	140
5. 도로정책Brief(1호~2호)	143

1. 국토(303호~315호)

■ 303호(2007. 1)

국토시론 _ 비전2030과 국토정책	최병선
짧은 글 긴 생각 _ 삼라만상과 네트워크	김영표
특집: 비전2030 실현을 위한 국토균형발전 방안	
1. 2030년을 향한 국토미래상과 향후과제	이원섭
2. 차세대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산업 클러스터 확충 방안	권영섭
3. 생활자 관점의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정책방향	박재길
4. 농촌의 활력증진을 위한 국토정책과제	김창현
5. 품격 있는 국토조성을 위한 갈등관리시스템 구축방안	박형서, 김선희
용어풀이 101 _ 함께가는 희망한국: 비전2030 외	김형진
지역통신 _ 원주 군지사 이전 급물살, 도심권개발 탄력 외	
이슈와 사람 28 _ “지구사회적 관점에서 미래를 보는 연구가 필요합니다” - 김진현 세계평화포럼 이사장	최영국
세계의 도시 101 _ 과학과 경제, 예술의 첨단산업지구 소피아 안티폴리스(Sophia Antipolis)	신동호
가던 길 멈추고	김선규
@-interview _ 로렌스 브라운(Lawrence Brown): 다민족 사회에서의 혁신확산과 공간분화	반효원
해외리포트 _ 살기좋은 도시의 측정지표와 적용 - 미국 331개 도시권 사례를 중심으로	차미숙
알기 쉬운 연구방법론 11 _ 인터뷰조사기법: 질적 연구를 위한 인터뷰 성공기술	이영희
국토논단 _ 남북한 국토정책의 전개와 접경지역에서의 협력적 국토 이용전략	김영봉
KRIHS FOCUS	
1.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시설물 평가지표 작성 및 DB구축 연구	오선영
2. 2006년 주거실태조사: 주거실태 및 수요조사	김태환
KRIHS 보고서	
1. 낙후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역개발법인 활용방안 연구: 개발촉진지구를 중심으로(이원섭 외 지음)	이동민
2. 개발제한구역의 친환경적 보전 및 관리를 위한 내셔널트러스트 도입방안 연구(김선희 외 지음)	김승환
서평 _ Power: Building Community, The Seattle Way(Jim Diers)	박경현
간추린 소식 _ 고속도로 하이패스 5% 할인, 연말까지 연장 외	
국토연구원 판매보고서 목록	
독자와 함께	
우리 문화유산의 향기 83 _ 황산벌과 논산팔경(論山八景)	박영순

■ 304호(2007. 2)

국토시론 _ 국토잠재력과 국가경쟁력	박삼옥
짧은 글 긴 생각 _ 인연이란...	김의식
특집: 국토 잠재력의 재발견과 정책과제	
1. 한반도의 지정학적 재발견과 동아시아 중추국가 전략	임희백
2. 우리 자연의 재발견과 국토정책 방향	최영국
3. 국토 해양 잠재력의 재발견과 미래 전략	정봉민
4. 국토의 문화적 잠재력의 재발견과 정책과제	김효정
5. 우리 국토의 지리적 잠재력의 재발견과 과제	임덕순
용어풀이 102 _ 국제연합환경계획 외	박정은
해외리포트 _ 일본의 지역과 함께하는 상업환경 만들기	임준홍
이슈와 사람 29 _ “수자원 문제의 갈등해결과 환경보전에 앞장서겠습니다” - 한승수 한국물포럼 총재	김종원

세계의 도시 102 _ 자연과 어우러진 리틀 빅 시티, 취리히(Zürich)	이종오
가던 길 멈추고	김선규
@-interview _ 바니 워프(Barney L. Warf): 텔레커뮤니케이션과 사이버공간의 지리학	김 걸
정책해설 _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김동천
KRIHS FOCUS	
1. '세계도시정보(UBIN) 웹서비스 구축' 기자간담회	정윤희
2. '교통연구의 새로운 방향' 인프라21 세미나	정선영
지역통신 _ 충북도 경제특별도 선포식 외	
알기 쉬운 연구방법론 12 _ 공간계량경제모델링: 지리학의 제1법칙과 공간회귀모델	변필성
KRIHS 보고서	
1. 고속철도와 국토공간구조의 변화(II)(이용우 외 지음)	이정식
2. 국토의 자연훼손 진단 및 대책에 관한 연구(최영국 외 지음)	계기석
KRIHS 서평 _ 지역신문과 지역혁신-Regional Newspaper Innovation(김중석 지음)	강호재
간추린 소식 _ 전월세 지원센터, 세입자 도우미 역할 톡톡히 해내 외	
연구보고서 구입 안내	
독자와 함께	
우리 문화유산의 향기 84 _ 신도내(新都內) 주초석재(柱礎石材)와 계룡팔경	박영순

■ 305호(2007. 3)

국토시론 _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와 도시재생의 의미	권원용
짧은 글 긴 생각 _ 어느 봄날의 영상	정용철
특집: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 대응하는 도시재생정책	
1. 지구화시대 경제사회의 변화와 도시재생의 중요성	조명래
2. 국내 도시재생사업의 추진동향과 과제 - 서울 · 인천 · 대전을 중심으로	양재섭, 장남종
3. 도시재생에 대응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박환용
4. 선진국의 도시재생전략과 시사점	박세훈
5.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활용한 도시재생 방안	전상익
용어풀이 103 _ 서울시 뉴타운 사업	김중은
정책해설 _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주요내용	박승기
이슈와 사람 30 _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 박병석 국회 정부위원회 위원장	진영환
세계의 도시 103 _ 첨단산업이 선도하는 녹색도시, 밴쿠버(Vancouver)	남기범
가던 길 멈추고	김선규
@-interview _ 푸롱 우(Fulong Wu): 시장개혁 이후 중국의 도시 거버넌스와 뉴어버니즘	신현방
국토논단 _ 농촌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정책과제	이동필
해외리포트 _ 이집트 탄타(Tanta)시의 도시성장 특성과 향후 과제	안용진, 박은관
알기 쉬운 연구방법론 13 _ GIS의 활용: 미국의 센서스 적용을 중심으로	최현선
KRIHS FOCUS	
1. SOC · 건설경제연구회 초청세미나- 사회간접자본 연구의 과제: 시장과 정부	안흥기
2. '국가GIS표준 중장기계획' 공개토론회	김보영
지역통신 _ 충북도 낙후지역에 2015년까지 2,500억 원 차등지원 외	
KRIHS 보고서	
1. 선진사회를 향한 토지정책 방향 및 추진전략 연구(I)(채미옥 외 지음)	서순탁

2. 건설수요구조의 변화 전망 및 대응방안 연구(유재윤 외 지음)	이재우
KRIHS 서평	
1. 가난한 부자이야기(한영주 지음)	차미숙
2. 박찬석의 세계지리산책(박찬석 지음)	정옥주
간추린 소식 _ 항공기 출발 · 도착정보, 인터넷 · 휴대폰으로 서비스 외	
광고 _ 행정중심복합도시 중앙녹지공간 국제설계공모	
연구보고서 구입 안내	
독자와 함께	
우리 문화유산의 향기 85 _ 내포(內浦)땅 예산과 대흥 임존성(任存城)	박영순

■ 306호(2007. 4)

국토시론 _ 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도시문화의 창조	김문환
짧은 글 긴 생각 _ 혼자 먹는 밥의 즐거움	최갑수
특집: 삶의 질은 문화가 좌우한다	
1. 문화와 환경이 어우러진 국토만들기	최영국, 김명수
2. 지역축제를 통한 지역활성화 방안	오순환
3. 공공디자인을 통한 도심 정비방안 - 안양아트시티21 사례를 중심으로	조광희
4. 지역문화시설 건립의 성과와 실패 - 문화예술회관 사례를 중심으로	김규원
5. 역사적 건축물 보존을 고려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사례와 과제 - 명동 국립극장 보존 사례를 중심으로	유나경
용어풀이 104 _ 문화기반시설 외	박정은
지역통신 _ 충북 수계관리기금 520억 원 배정 외	
이슈와 사람 31 _ “정쟁력 있는 도시문화, 디지털로그시티로 구현” - 이어령 중앙일보 상임고문, 전 문화부 장관	채미옥, 조남건
세계의 도시 104 _ 자연 속의 도시 · 도시 속의 자연, 뉴질랜드 오클랜드	산봉섭
가던 길 멈추고	김선규
@-interview _ 마이클 레드클리프트(Michael R. Redclift): 지구환경변화와 지속가능한 발전	김소연
해외리포트 _ 일본의 도시권 정의 및 획정기준	변필성, 왕광익
국토논단 _ “2006년 수해현장조사”를 통한 수해특성분석 및 정책과제	심우배
정책해설 _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령 주요내용	한정희
알기 쉬운 연구방법론 14 _ 다중통합적방법론(A Multi-dimensional Package Methodology): 양질의 다차원 데이터 수집을 위한 사례연구기법	양도식
KRIHS FOCUS	
1. 동북아포럼 정기세미나 - 중국 조선족 동포들의 국내 이주	이상준
2. 도시연구실 특별강연회 -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미국 시애틀 사례	손동욱
KRIHS 보고서	
1. 도시 주거공간의 사회통합 실현방안 연구(배순석 외 지음)	하성규
2. 교통서비스 지표 개발 및 활용 방안 연구(김호정 외 지음)	김경석
KRIHS 서평	
도시와 농촌이 공생하는 마을만들기: 농업과 함께하는 지역재생(아마모토 마사유키 지음)	김창현
간추린 소식 _ 중소도시 육성 · 낙후지역 개발에 민간참여 확대 외	
연구보고서 구입 안내	
알림	
우리 문화유산의 향기 86 _ 추사고택(秋史古宅)과 예산팔경(禮山八景)	박영순

■ 307호(2007. 5)

국토시론 _ 미래사회와 u-City

짧은 글 긴 생각 _ 아버지의 라면

특집: 미래도시를 위한 u-City 추진전략

1. 성공적인 u-City 구현을 위한 정책과제
2. 신도시의 u-City 구현방향
3. 기존도시의 u-City 추진사례
4. 행정중심복합도시의 u-City 추진전략
5. u-City 구현을 위한 기업의 역할
6. '유시티' 구현을 위한 법적기반 조성

용어풀이 105 _ 광대역 통합망 외

알기 쉬운 연구방법론 15 _ 심층인터뷰 연구방법론: 타인에게 배우는 데이터 수집·분석기법

이슈와 사람 32 _ "삶의 질 향상, 유비쿼터스 사회가 열여깁니다" - 김창곤 한국정보사회진흥원장

세계의 도시 105 _ 창조도시로 도약하는 녹색항구, 뒤셀도르프(Düsseldorf)

가던 길 멈추고

해외리포트 _ 런던의 랜드마크 경관보호 정책

@-interview _ 객 내서(Jack L. Nasar): 삶의 질 측면에서의 환경행태 연구와 계획

국토논단 _ 개성공단의 합리적 개발을 위한 과제

KRIHS FOCUS

1.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안) 수립을 위한 공청회
2. 재해에 안전한 국토기반 구축 정책토론회
3. 찾아가는 포럼 - 북촌한옥마을: 미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국토어메니티 발굴과 창출전략 연구 워크숍

지역통신 _ 원주기업도시 구역지정 및 기본계획 최종확정 외

KRIHS 보고서

1. 시공간통합 국토시물레이션모형 개발 연구(II)
- 국토정책시물레이션을 위한 시공간통합모형 개발방안(최병남 외 지음)
2. 효율적인 교통혼잡통행료 정책의 도입방안 연구(정일호 외 지음)

KRIHS 서평

1. 송재구의 전남부국론(송재구 지음)
2. 광양만권 잠재력과 비전(이정록 지음)
3. 도시풍수 - 도시, 집, 사람을 위한 명당이야기(최창조 지음)

간추린 소식 _ 집값 하락세, 서울·수도권 포함 전국으로 확산 외

연구보고서 구입 안내

독자와 함께

우리 문화유산의 향기 87 _ 한산(韓山) 건지산성(乾芝山城)과 소곡주

■ 308호(2007. 6)

국토시론 _ 우리나라의 하천정책과 패러다임의 전환

짧은 글 긴 생각 _ 한밤중의 인사

특집: 홍수와 친수를 함께 고려한 친환경 하천정비

1. 친환경 하천정비의 추진실태와 평가

윤석호

이문재

김정훈

박용철

이병철

이연호

손대일

박민우

김동한

신혜란

사공호상

이용우

김선규

김정후

허미선

이상준

강민구

이보경, 심우배

윤윤정

최재현

정진혁

이원섭

류재영

옥한석

박영순

권진봉

이상희

김종원

2. 친환경 하천정비사업의 추진사례	이상만
3. NGO 시각에서 본 하천정비사업의 개선방향	김진홍
4. 하천복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술기반 조성	김창완
5. 친환경 하천정비를 위한 법·제도 구축 방안	김석현
용어풀이 106 _ 추이대 외	이정현
해외리포트 _ 일본 간사이문화학술연구도시 건설 및 운영 현황	김진범
알기 쉬운 연구방법론 16 _ 사전사후 비교연구방법: 공공사업의 효율성 평가를 위한 연구기법	조남건
국토연구 논문모집 안내	
이슈와 사람 33 _ “물로 더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 광결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심우배
세계의 도시 106 _ 호주 속 작은 유럽, 멜버른(Melbourne)	신봉섭
가던 길 멈추고	김선규
지역통신 _ 강원도 내 6개 시군 공동협의회 발족 외	
②-interview _ 피터 테일러(Peter J. Taylor): 세계화 속의 월드시티 - ‘장소의 공간’ 정책에서 ‘흐름의 공간’ 정책으로	양도식
국토논단 _ 프랑스 수도권 광역계획(SDRIF 2030)의 성격과 시사점	정옥주
정책해설	
1. 도시개발법 개정안의 주요내용	이강녕
2.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의 주요내용	문현규
KRIHS FOCUS	
1. SOC·건설경제연구회 초청세미나: 한미 FTA 이후 건설부문의 쟁점과 과제	이희구
2. 공간정보사회 연구포럼 정기세미나: 디지털 이슈와 트렌드	박종택
기고 _ 주민 참여·대화모형에 기초한 보상행정의 성공사례 - 행정중심복합도시 사례를 중심으로	남일석
KRIHS 보고서	
1. 지방도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혁신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연구(권영섭 외 지음)	송인성
2. 북한지역 국토이용실태 조사방안 연구(사공호상 외 지음)	최윤수
간추린 소식 _ 세계 유일 스마트홈 네트워크 쇼 개최 외	
연구보고서 구입 안내	
독자와 함께	
우리 문화유산의 향기 88 _ 한산모시와 서천팔경(舒川八景)	박영순

■ 309호(2007. 7)

국토시론 _ 한국 건축도시공간의 미래	운영태
짧은 글 긴 생각 _ 묘각스님과 아산 봉곡사	김재영
특집: 한국 건축도시공간의 현재와 미래	
1. 해방 이후 건축문화의 전개와 미래방향	전봉희
2. 친환경적이고 인간중심의 건축도시공간	민범식
3. 한국 도시공간의 디자인 실태와 개선방향	정 석
4. 전통건축도시공간의 보전과 현대화	권영상
5. 건축문화 발전을 위한 제도의 기본방향	김광현
용어풀이 107 _ 교통정온화(traffic calming) 외	안용진
해외리포트 _ 영국 그린벨트 관리정책의 변화와 시사점	최영국, 김명수, 안종천
이슈와 사람 34 _ “건설산업, 미래산업의 성장동력으로 도약합니다” - 권홍사 대한건설협회장	김성일
세계의 도시 107 _ 중세의 숨결을 살린 북유럽의 관광도시, 헬싱키(Helsinki)	안흥기, 김지연

가던 길 멈추고	김선규
@-interview _ 앤 파워(Anne Power): 도시재생 및 사회통합에서의 지역공동체 역할	신현방
국토논단 _ 한미 FTA의 타결과 국토전략	김근용
알기 쉬운 연구방법론 17 _ 시공간분석기법: 시공간분석의 변화와 응용	강호제
KRIHS FOCUS	
1.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지표(안) 공청회	유현아
2. GIS KOREA 2007대회: GIS 혁신경진대회	서기환
지역통신 _ 한미 FTA 대응 전북발전전략 세미나 개최 외	
KRIHS 보고서	
1. 지역특성을 고려한 농촌활성화 방안 연구(김창현 외 지음)	한경수
2. 물 수요관리 평가모형의 구축방안 연구(김종원 외 지음)	최지용
KRIHS 서평 _ 한국의 장수인과 장수지역 - 변화와 대응(박삼옥 외 지음)	이상준
간추린 소식 _ 건축사의 설계면제대상 건축물 확대시행 외	
연구보고서 구입 안내	
독자와 함께	
우리 문화유산의 향기 89 _ 연기(燕岐) 운주산성(雲住山城)과 연기팔경	박영순

■ 310호(2007. 8)

국토시론 _ FTA 시대의 글로벌 연성국토 개척	박양호
짧은 글 긴 생각 _ 까마귀 생각	황명찬
특집: FTA 시대의 국토전략	
1. 건설 및 교통 분야의 협상 결과와 향후 전망	박수민
2. 지역산업 및 농촌정주 기반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전략	김창현, 장철순
3. 부동산 부문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전략	지대식
4. 환경정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전략	김승희
5. 국토발전에 대한 영향과 대응전략	이원섭
용어풀이 108 _ 투자자 - 국가 간 소송제도(ISD) 외	전성제
해외리포트 _ 런던의 고층건물 관리정책과 시사점	김정후
지역통신 _ 통영 앞바다에 국내 첫 '바다목장' 외	
이슈와 사람 35 _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환인제로 행정구역과 교통수단의 칸막이 허물어" - 김문수 경기도지사	박양호
세계의 도시 108 _ 북유럽의 베네치아, 물류도시 암스테르담(Amsterdam)	이종오
가던 길 멈추고	김선규
@-interview _ 리 보스크(Leigh Boske): 국제무역 및 복합운송체계의 환경변화	조희덕
알기 쉬운 연구방법론 18 _ 순서화 로짓모형(Ordered Logit Model): 설문조사에 적용되는 척도의 종류	김호정, 김종학
KRIHS FOCUS	
1.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 방지대책' 을 위한 세미나	심우배, 이보경
2. '지역문화발전과 지역공동체 형성 전략 모색' 토론회	오선영, 박정은
3.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지원협의회 역할정립을 위한 토론회	최창영
4.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지역발전에 관한 국제세미나	이승옥
5. 국토연구원 소식: 도로정책연구센터 개소 외	
KRIHS 보고서	
1. 지역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SOC투자 연계집행 방안(김재영 외 지음)	김명수
2. 도로교통 통계정보기반 정비방안(이상건 외 지음)	박동주

KRIHS 서평 _ 내일의 전원도시(에베에서 하워드 지음)
 간추린 소식 _ 한·중 간 트럭복합일관수송제도 도입 외
 연구보고서 구입 안내
 독자와 함께
 우리 문화유산의 향기 90 _ '이즈 대전'과 계족산성

이우중

박영순

■ 311호(2007. 9)

국토시론 _ 이제는 손뼉을 마주칠 때다
 짧은 글 긴 생각 _ 박꽃이 필 때면
 특집: 남북한 교류전망과 한반도 개발방향

김원배
 조정제

1. 남북경협이 여건 변화와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
2. 동북아 협력시대의 한반도 개발전략
3. 경제특구와 TKR을 중심으로 한 한반도의 통합적 개발방안
4. 북한개발과 남북협력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5. 중국-대만 양안 간 경제협력 확대와 남북경협에 대한 시사점

양문수
 오용석
 이상준
 임성훈
 조명철, 박현정

용어풀이 109 _ 한반도종단철도(Trans Korean peninsula Railway) 외
 지역통신 _ 부산 쓰레기 처리계약 경쟁체제 도입 외

박찬호

해외리포트 _ 해외의 섬 개발정책 사례와 시사점 - 그리스 산토리니섬과 이탈리아 카프리섬을 중심으로
 이슈와 사람 36 _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새로운 기회와 도전 - 이수훈 대통령자문 동북아시아위원회 위원장
 세계의 도시 109 _ EU, NATO가 동지 든 '유럽의 수도' 브뤼셀(Brussels)
 가던 길 멈추고

차미숙
 이상준
 김나래
 김선규

@-interview _ 무라야마 유지(村山祐司): GIS기술 발달에 따른 공간분석기법의 변화
 알기 쉬운 연구방법론 19 _ 구조방정식모형: 데이터를 이용한 체계적 효과분석 및 전망
 KRIHS FOCUS

이호상
 김민철

1. 'ArcGIS 기술혁신 과정과 향후 전략' 전문가 특강
2. 국토연구원 소식: 국토연구원 부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개소

김동한

KRIHS 보고서

1. u-City(時空自在도시) 구현을 위한 국가전략 연구(김정훈 외 지음)
2. SOC 재정사업의 사후평가모형 구축방안 연구(김성일 외 지음)

최봉문
 권순옥

KRIHS 서평 _ 시민이 참가하는 마지즈쿠리(커뮤니티 비즈니스판) - 지역의 자립과 지속가능성(최선주 외 옮김)

김선희

간추린소식 _ 고속도로 하이패스 단말기 인증제도 시행 외
 연구보고서 구입 안내

독자와 함께

우리 문화유산의 향기 91 _ 보문산성(寶文山城)과 대전팔경(大田八景)

박영순

■ 312호(2007. 10)

국토시론 _ 도로예산과 투자, G-10 수준으로
 짧은 글 긴 생각 _ 우리나라의 신분제도
 특집: 투자환경 변화와 도로정책 방향

류재영
 김의원

1. 전환기의 도로부문 정책과제와 대응방향
2. 도로투자재원의 지속적 확충방안
3. 민자도로사업의 발전방향과 전망

정일호
 하현구
 윤하중

4. 도로 공간의 복합적 기능 활성화 방안	이춘용
5. 미래 교통기술 발전과 도로정책 방향	강정규
용어풀이 110 _ 적격성 조사 외	고용석
지역통신 _ 광주 제2순환도로 완공 외	
정책해설 _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	김동수
이슈와 사람 37 _ “고객가치 향상을 위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권도엽 한국도로공사 사장	김호정
세계의 도시 110 _ 작은 어촌에서 세계도시로 성장한 두바이(Dubai)	조판기
가던 길 멈추고	김선규
@-interview _ 리우 Bing 리엔(Liu, Bing Lian): 중국물류시장의 발전과 물류계획	김상옥
해외리포트 _ 다뉴브강의 활용과 관리체계 - 비엔나, 부다페스트, 다뉴브 델타지역을 중심으로	최영국, 전대운, 박정은
KRIHS FOCUS	
1. LA 대도시권 성장계획 과정 - 외부초청 강연	손동욱
2. 미국의 노인주택정책 - 전문가 특강	김태환
3. 국토연구원 소식: ‘균형발전 국제 컨퍼런스’ 개최 외	
알기 쉬운 연구방법론 20 _ 시스템 다이내믹스 기법: 미래예측에서 정책효과 측정까지	김영표
KRIHS 보고서	
1. 한반도 기반시설 개발의 기본구상 연구(I)(김원배 외 지음)	양문수
2. GIS를 활용한 난개발 상시 감시체계 구축방법 연구(이종열 외 지음)	이희연
간추린소식 _ 4분기 국민임대주택 2만 1,895호 공급 외	
연구보고서 구입 안내	
독자와 함께	
우리 문화유산의 향기 92 _ 익산(益山)의 백제문화유적과 미륵산성	박영순
 ■ 313호(2007. 11)	
국토시론 _ 도시설계의 본질 회복을 위한 과제	김기호
짧은 글 긴 생각 _ 깨끗한 환경과 자연, 그리고 어메니티	김정호
특집: 지구단위계획의 성과와 개선방향	
1. 지구단위계획 관련제도의 변천과 역할	김영환
2.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서울시를 중심으로	임희지
3. 제2종지구단위계획과 개발행위허가제도의 개선방향	이희정, 신태형
4. 지구단위계획 용적률인센티브제도의 개선방향	이인성
5. 주민참여 환경정비형 지구단위계획의 경험과 활성화 방안	배용규
용어풀이 111 _ 주민협정제도 외	이범현
글로벌정보 _ 자연친화적 도시를 위한 정부부처, ‘Le MEDAD’의 탄생 외	
이슈와 사람 38 _ “품격과 경쟁력을 갖춘 서울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최창식 서울시 행정2부시장	박은관
세계의 도시 111 _ 다문화가 공존하는 국제도시 고베(神戸)	김진범
가던 길 멈추고	김선규
@-interview _ 기 보델(Guy Baudelle): 세계로의 지역개발과 국토개발	정옥주
해외리포트 _ 케이브(CABE)와 21세기 영국 공공공간 정책의 시사점	김정후
국토논단 _ 지속가능한 국토관리를 위한 국토생태망 구축 및 활용방안	최영국
정책해설 _ 경관법 제정의 기본방향 및 주요 내용	장순재
알기 쉬운 연구방법론 21 _ 時 · 空 · 人 통합모형: 시간 · 공간 · 인간 요소의 대통합	김영표
지역통신 _ 서귀포 관광미항 개발사업 외	

KRIHS FOCUS

1.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라운드 테이블 - 살고싶은 지역만들기를 위한 지역역량 강화방안	손경주
2. 제2차 국토문화네트워크 토론회 - 보호구역과 지역공동체 복원방안	김태영, 박정은
3. 국토연구원 소식: 한중 토지정책워크숍, 중국 항저우 절강대학에서 개최 외	
기고 _ 토석정보시스템을 통한 혁신과 도전 - 건설현장의 토석정보 공유 거래장터, 'TOCYCLE' 탄생	유한준
KRIHS 보고서	
1. 교통기반시설투자의 지역간배분과 지역경제성장에 관한 연구(안흥기 외 지음)	허문규
2. 지역 간 · 계층 간 주거서비스 격차 완화방안 연구(II): 시도별 정책방안 모색(윤주현 외 지음)	장영희
간추린 소식 _ 내년부터 특별건축구역제도 시행 외	
제12회 전국 초등학교생 국토사랑 글짓기 대회 수상작	
연구보고서 구입 안내	
독자와 함께	
우리 문화유산의 향기 93 _ 왕궁평성(王宮坪城)과 익산팔경(益山八景)	박영순

■ 314호(2007. 12)

국토시론 _ SOC 투자에 대한 새로운 시각	김수삼
짧은 글 긴 생각 _ 때가 되었다	유승도
특집: 전환기의 SOC 투자전략	
1. SOC 투자여건의 변화 전망과 과제	유재운
2. SOC 투자와 건설산업	김재영
3. SOC 투자와 민간의 역할	김이탁
4. SOC 투자의 효율적 추진방향	김성일
5. 주요국의 SOC 투자동향과 국제비교	박용석
용어풀이 112 _ 실적가치관리체계 외	김민철
지역통신 _ 무안국제공항 개항 외	
해외리포트 _ 오사카시 주택정책의 환경변화와 방향	박천규 · 엄근용
이슈와 사람 39 _ "사회적 자본의 확충으로 국가경쟁력과 국민행복지수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	김선희
세계의 도시 112 _ 생동감 넘치는 그린시티, 포틀랜드(Portland)	정진규
가던 길 멈추고	김선규
@-interview _ 해리 팀머만(Harry J. P. Timmermans): 교통계획을 위한 새로운 미시적 시뮬레이션, 알바트로스	이백진
국토논단 _ 베세토 비즈니스 회랑의 구축 - 동북아 교통망의 비전과 실천 방안	김원배 · 오성호 · 서민호
글로벌정보 _ '영국 여왕 국회 연설'에서 발표된 2008년도 영국 주택정책의 방향 외	

KRIHS FOCUS

1. 정책토론회 - 미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국토 어메니티 발굴과 창출전략	윤운정
2. 인프라 21 원외 전문가 초청세미나 - 네트워크 설계(NDP)모형 연구	고용석
3. 국토연구원 소식: 도로정책연구센터 홈페이지 오픈 외	
KRIHS 보고서	
1. 북한 관광자원의 효율적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북한 관광사업의 협력적 추진방안(김영봉 외 지음)	김영운
3. 여가통행수요를 고려한 교통시설 투자평가 개선방안(오성호 외 지음)	정진혁
알기 쉬운 연구방법론 22 _ 질적 연구데이터 분석방법: 많이 생각해야 남을 설득할 수 있다	이영아
기고 _ 불교와 환경	김의식
간추린 소식 _ 여수엑스포 성공 개최 위해 SOC 입체지원 외	

2007년 국토 총목차(통권 303호~314호)

연구보고서 구입 안내

독자와 함께

우리 문화유산의 향기 94 _ 군산 오성산성(五聖山城)과 군산팔경(群山八景)

박영순



2. 국토연구(52권~55권)

■ 52권(2007. 3)

경제자유구역 추진에 따른 지역 - 산업별 생산유발효과 분석	박추환, 김의준, 신동진
지역개발사업의 통합적 추진방안: 신공공관리적 접근방법을 중심으로	우윤석
대도시 광역도시권 설정과 권역별 공간 특성 비교	권창기, 정현욱
공공시설 복합화의 적용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이준희, 이주형
강북 뉴타운사업지구 주민의 주거가치관과 선호 주택유형에 관한 연구	최장민
재건축사업이 재산세입에 미치는 영향 분석: 강남구 재건축 사례를 중심으로	고재풍, 문영기
교통계획체계 정립을 위한 법률정비방향 설정에 관한 연구	황상규, 성현곤
명시선호실험과 현시선호자료를 이용한 대도시권 지하철역세권 설정 연구	김재홍, 이승일, 이신혜
물류시설의 체적률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김경석
도시고속도로 진출램프제어를 위한 통합신호제어모형 개발	임광수
3차원 수치영상 지형지도의 제작에 관한 연구:	
항공레이저측량자료, 항공사진, 대축적 수치지도를 활용하여	이재빈, 배환성, 유기운
가중치 모형을 이용한 u-City 유망서비스 우선순위에 관한 연구	정우수, 조병선

■ 53권(2007. 6)

창조적 지식창출량의 분포와 네트워크로 본 국토공간 계층구조	김홍주
Decentralization of Urban Industries and Urban Scale Economies in Korea	김명수, 이영준
한국과 일본의 오피스시장 발전의 지역격차와 도시집적의 경제성에 관한 비교연구: FIRE산업을 중심으로	장용삼, 신태호
우리나라 15개 시도의 일자리 수 변화와 인구이동 간 인과성 검증	오정일, 안기돈
버퍼링 방법에 기반한 공간내삽법 적용이 해도닉 분석에 의한 대기질의 한계 잠재가격 추정에 미치는 영향	손철, 신상영
다기준의사결정기법을 이용한 안동다목적댐의 수문학적 안정성 증대방안 결정	이재운, 남동선
서울시 청계천복원사업에 대한 도시유형론적 분석	김병철
공간특성에 따른 지역별 주거만족도 결정요인 분석	김태경, 이승일
서울시 인구구조에 따른 공동주택수요 특성 및 전망	임종현, 이천기, 이주형
2000년 이후 공공임대주택정책의 특징과 지속성 강화방안	진미운
서울시 재건축아파트와 신축아파트 가격의 상호관계에 관한 연구	최성호, 이창무, 이정수
양택풍수의 속성이 아파트가격에 미치는 영향: 양택3간법과 동·서사택론을 중심으로	천인호
Changes in Commuting Patterns and Determinants of Commuting Time: Seven Korean Cities	김동수
영국 PFI사업의 교훈과 한국 BTL사업 개선방안 연구	주재홍
A Study on the u-City's Concept Model with an u-IT Evolution	박웅희, 조병선
공동주택 외부공간의 주거만족도 분석	김철수, 정병두, 이원수

■ 54권(2007. 9)

Regional Governance and Council of Governments(COG) in the United States Implications of ISTEA/CAAA	최현선, 최성연
현장 실무자 인터뷰를 통한 공동주택단지 친환경요소 변경원인과 결과에 대한 연구	송병화, 이경진, 최 운
역사적 도심부의 보전·재생·창조를 통한 도시만들기: 일본 교토시(京都市)를 중심으로	안인향, 하성규
기업도시의 상대적 효율성 측정에 관한 연구	이재길
길음 뉴타운의 원주민과 이주민 간 도시 만족도 비교에 관한 연구	구용현
21세기 새로운 도시계획 패러다임에 따른 도시형태 연구: 행정중심복합도시 국제공모작품을 중심으로	이준희, 이주형

The Effect of Spatial Autocorrelation in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aracteristics of Walkable Neighborhoods and Multi-Family Residential Property Values
주택자금 대출규제가 주택구입능력에 미치는 영향: 서울시 아파트를 중심으로
Exchange Rates and Housing Market: Korean Case
위성영상을 이용한 북한지역 국토이용실태 조사: 평양시를 사례로
주택 재건축사업의 소형평형 의무비율 규제정책의 제도개선 방안

손동욱
신상영, 이성원
한동근
사공호상, 서기환
한형수, 문영기

■ 55권(2007. 12)

관광지 개발유형별 선택요인에 관한 연구: 신세대를 중심으로
시공간 상대수용력을 활용한 수용력 평가모델 연구
원자력의 사회적 위험에 대한 인식 분석: 타 발전원들과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자연환경 훼손방지 수단에 관한 연구: 일본사례를 중심으로
몽골의 방목지 관리제도의 특성과 공유자산 관리체계의 함의
공공R&D지출과 지역경제의 효과: 광역시 간 비교
우리나라 6대 광역 경제권역 간 산업연관관계
도시규모별 혁신잠재력과 혁신창출능력 간의 연계성에 관한 연구
뉴어바니즘의 국내 적용 가능성 분석: 수도권 주민에 대한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기업도시 시범사업의 개발 특징과 추진 과정상의 문제점 분석
중국 서북부지역의 퇴경환립환조정책 고찰
유지보수, 리모델링, 재건축의 의사결정에 관한 미시적 분석
사교육시장 및 교육성고가 아파트가격에 미치는 영향: 2004년 이후 아파트가격 상승기를 중심으로
일대일재건축과 리모델링 사업결정방식에 관한 사례연구: 강남권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을 중심으로

곽재용, 하정순
손민호, 이우균, 이주희
김태진, 이재은, 정윤수
문채
장수환, 김미숙
김일태, 김봉진, 나주몽
박창귀
변창흠, 권영섭
김홍순
진미운
박인성
이용만, 배순석
김경민, 이양원
고재풍, 이민권, 유선종

3. 건설경제(51권~54권)

■ 51권(2007. 봄호)

건설경기진단

1. 2007년 上半期 建設景氣動向
2. 2007년 상반기 해외건설 전망

김재영
김종현

특집: 민간투자사업의 최근동향과 향후 추진전략

1. 민간투자사업 추진현황 및 제도변화
2. 민간투자사업의 재원조달시장 현황
3. 민간투자사업(BTL)의 추진전략 및 사례
4. 민간투자사업(BTL)의 사업성분석과 리스크 관리 방안

조용만
송승익
양백식
김남용

논단 _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이성준, 이정기

외국의 건설정보 _ 일본의 민간투자사업 사례

이승수

주요 건설통계

이승훈

■ 52권(2007. 여름호)

건설경기진단

1. 2007년 下半期 建設景氣動向
2. 최근 부동산시장의 정책 및 동향
3. 2007년 하반기 해외건설 전망

김재영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 연구단
김종현

특집: 건설관련 제도개선에 대한 업계의 제언

1. 최고가치 낙찰제도 적용방안
2. 순수내역입찰제의 필요성과 도입방안
3. 저가심의제도의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
4. 지방건설육성을 위한 입찰계약 제도 개선방안

이상호
천길주
노의래
채훈

논단 _ 건설시장 선진화의 당위성과 전략

김명수, 김태환, 박재룡

주요 건설통계

이승훈

■ 53권(2007. 가을호)

건설경기진단

1. 건축허가·착공 및 건설계약 추이와 건설경기 동향
2. 2007년도 해외건설 동향

김재영
김종현

특집: 건설 산업을 위한 제언

1. 새로운 건설수요 창출을 위한 방안
2. 해외건설 활성화를 위한 방안
3. 건설산업 글로벌스탠다드 촉진을 위한 계약제도 개선방안

이충렬
김태엽
이재식

논단 _ 중소건설업체 금융실태와 향후과제

김명수

특별기고 _ 건설혁신의 장애와 기회

홍성웅

해외건설 _ 해외의 도로공사 정보제공 서비스 사례

고용석, 김종학

주요 건설통계

이승훈

■ 54권(2007. 겨울호)

건설경기 진단

1. 2008년 건설경기 전망
2. 2007년 부동산시장의 동향 및 향후 전망
3. 2008년 해외건설 전망

김재영
최수, 박지영
김종현

특집: 건설·부동산 분야의 새정부 정책과제와 대응방안

1. 경제성장과 SOC투자
2. 대·중소 업체간 상생협력 방안
3. 주택 부동산 시장의 규제실태와 정비방안

안흥기
홍갑표
장성수
이승수
홍정열
이승훈

지상중계 _ 제3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안) 공청회

외국의 건설정보 _ 미국의 Rails-to-Trails 개발에 따른 자전거도로 건설 사례

주요 건설통계

4. 국토정책Brief(121호~163호)

호	발간일	제목	저자명	소속
121	1. 2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동북아 물류허브 구축 전략과 과제	류재영	교통연구실
122	1. 8	선진사회 구현을 위해 주거복지를 어떻게 확충할 것인가?	윤주현	토지·주택연구실
123	1. 15	부동산시장의 선진화를 통한 가격안정 방안	손경환	토지·주택연구실
124	1. 22	스마트성장 방식의 이해와 시사점	손동욱	도시연구실
125	1. 29	'비전2030' 실현을 위한 건설산업 양극화 해소방안	김재영·권혁진	SOC·건설경제연구실
126	2. 5	국토공간 속에 환경과 문화를 어떻게 담을 것인가	최영국·박정은	국토환경·문화연구실
127	2. 12	u-City 구현을 위한 정책과제와 추진전략	김정훈	국토정보연구센터
128	2. 20	아일랜드의 국토개발전략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박정은	국토환경·문화연구실
129	2. 26	낙후지역개발 성공모델과 시사점 - 미국 애팔래치아 사례를 중심으로 -	박양호	부원장
130	3. 5	두바이의 꿈과 미래 - 주요 프로젝트의 성공가능성과 시사점 -	조판기·성은영	토지·주택연구실
131	3. 12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개발법인의 설립과 추진방안	이원섭	국토·지역연구실
132	3. 19	지역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도관련 외국 사례와 시사점 - 프랑스 코빈간 협력을 중심으로	정옥주	국토·지역연구실
133	3. 26	대도시권 교통혼잡 완화를 위한 혼잡도로 통행료 추진방안	정일호·정선영	교통연구실
134	4. 2	도로교통 통계정보 기반정보를 위한 정책방향 및 과제	고용석·이상건	교통연구실
135	4. 9	다핵연계형 국토공간을 위한 고속철도의 역할과 시사점	이용우	국토·지역연구실
136	4. 16	고속도로 건설의 뉴프런티어 정책이 필요 - 고속도로 사업의 효과측정 및 정책시사점	김호정·정선영	교통연구실

호	발간일	제목	저자명	소속
137	4. 23	국토의 세계화 차원에서 본 관문(關門, Gateway)의 역할과 시사점	류재영 · 이정윤	교통연구실, 한국교통연구원
138	5. 21	주민참여 · 대화모형에 기초한 맞춤형 보상 행정의 성공사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경우	김상권 · 조판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토지 · 주택연구실
139	5. 28	공간정보시장의 구조변화와 대응전략	최병남	국토정보연구센터
140	6. 4	중심상업지역 지정에 따른 향후 도심부 관리방향 - 서울시 명동 관광특구 사례를 중심으로	김현식 · 안용진	도시연구실
141	6. 11	미국의 환경전략계획 수립 동향과 시사점 - 'EPA Strategic Plan(2006~2011)'의 성과평가체계를 중심으로	이순자	국토 · 지역연구실
142	6. 18	미국 플로리다주 잭슨빌시의 스마트성장 전략과 시사점	최현선 · 권영섭	노스플로리다대학교, 국토 · 지역연구실
143	6. 25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간 차등지원 정책과제: 필요성 · 사례 · 시사점	이원섭	국토 · 지역연구실
144	7. 9	전국 간선도로망의 발전적 재편을 위한 정책과제	정일호 · 정선영	교통연구실
145	7. 16	주말 여가통행수요를 고려한 교통시설 투자 필요	오성호	교통연구실
146	7. 23	선진외국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경험과 교훈: 영국과 프랑스 사례	김태환	국토 · 지역연구실
147	7. 30	한반도의 지정학적 재발견에 근거한 동아시아 중추국가 전략이 필요	임혁백	고려대학교
148	8. 6	주말 여가통행의 시간가치를 고려한 교통시설 투자평가 필요	오성호	교통연구실
149	8. 13	스마트 하이웨이(Smart Highway) 개념과 개발방향	류재영	교통연구실
150	8. 20	공항복합도시 개발의 필요성과 정책과제	박형서	국토 · 지역연구실
151	8. 27	도시재생사업 모델 탐색: 영국의 사례와 시사점	이영아	도시연구실
152	9. 3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의 실체와 시사점	손경환 · 이수욱 · 박천규	토지 · 주택연구실

호	발간일	제목	저자명	소속
153	9. 10	대도시권 성장계획과 광역행정기구의 사례와 시사점: 미국 남캘리포니아 대도시권의 경우	손동욱	도시연구실
154	10. 1	고령사회에 대응한 건강·문화생태회랑의 구축과 활용구상	양진홍	연구혁신본부
155	10. 8	공간정보 패러다임 변화 : 공간정보기술 트렌드	서기환·사공호상	국토정보연구센터
156	10. 15	공간정보 패러다임 변화 : 공간정보산업 트렌드	이영주·사공호상	국토정보연구센터
157	10. 22	공간정보 패러다임 변화 : 사회문화 트렌드	박종택·사공호상	국토정보연구센터
158	11. 12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지원제도의 해외사례와 시사점	강호제	국토·지역연구실
159	11. 26	한반도와 동북아 공동시장 차원에서의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의 비전과 발전구상	박양호·이상준	부원장, 동북아발전연구센터
160	12. 3	일본건설산업의 경기 및 정책동향 : 제16차 한일건설경제위크숍의 의제를 중심으로	히로시 오시마· 토시로 마츠시다· 타카야스 마츠우라	일본건설경제연구소 (RICE)
161	12. 10	서울시 오피스시장의 중장기 수요 및 공급 전망	조판기·박천규	토지·주택연구실
162	12. 17	중국의 환경문제와 중국정부의 대응	김천규	동북아발전연구센터
163	12. 24	초광역경제권 중심의 국토발전방향	이원섭	국토·지역연구실

5. 도로정책Brief(1호~2호)

■ 1호(2007. 11)

도로정책연구센터의 기능과 역할

1. 도로정책의 발전을 기대하며
2. 도로정책연구센터의 사명

해외정책동향

1. 프랑스 A86 도시고속도로: 도심의 지하고속도로 건설
2. 선택과 집중: 미국의 도로혼잡관리
3. 일본고속도로주식회사(NEXCO), 2007년도 고속도로 사업계획 개요

국내동향 _ WRA(PIARC)이사회 및 제23차 세계도로회의 참석결과 보고

이슈 _ 사회적 할인율 조정

조용주
정일호

■ 2호(2007. 12)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투자협력체계

해외정책동향

1. 아시안 하이웨이 개발과 우리의 전략
2. 미국의 시대별 유료도로사업 변화
3. 차량-노변-센터간 통신방식 통합기술 개발동향

이슈_전국간선도로망 구축에 따른 직간접효과

간추린 소식

1. 20년간 전철, 간선도로 3배로 늘어... 광역교통기본계획 확정
2. "제1차 민자사업 혁신포럼" 개최
3. "길 포럼" 정책토론회 개최

정일호

V 부서 소개

1. 원장·부원장	146
2. 국토·지역연구실	149
3. 국토환경·문화연구실	157
4. 도시연구실	161
5. 토지·주택연구실	165
6. 교통연구실	171
7. SOC·건설경제연구실	177
8. 국토정보연구센터	181
9. 동북아발전연구센터	187
10. 도시혁신지원센터	191
11. 행정부서	195

01

President & Vice President

최병선 원장

공학 박사(도시 및 지역개발학 전공), Munique University of Technology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 위원,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위원,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고문, 경원대학교 도시계획학과 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 민간위원장, 건설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원장을 역임하였다. 주요 연구로는 「각국의 도시 및 농촌공간관리체계 연구」(2002), 「도시계획의 새로운 패러다임」(1999) 등이 있다.



김영표 부원장

도시계획학 박사, 경원대학교

「우리산맥바로세우기포럼」 상임대표 등으로 활동 중이며, 주요 연구분야는 토지정책, 국토정보화, GIS, 공간분석, 국토정책시물레이션모형분야다. 연구실적은 「재정투자과급효과측정시스템 개발 및 국가발전지수 정립 연구」(2007),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연구」(2007), 「균형발전영향 평가 연구」(2006~2007), 「시공간통합 국토정책시물레이션모형 개발연구」(2005), 「한반도 산맥체계 재정립 연구」(2004), 「時空自在의 세상을 향한 사이버국토 창조방안」(2004), 「GIS기반 공간분석방법론 개발연구」(2003), 「국토종합정보체계 구축 및 추진전략 수립연구」(2003), 「국공유지 관리 및 효과적 활용방안」(1995), 「토지공개념 연구」(1989), 「대도시 적정규모에 관한 연구」(1980) 등 다수가 있다.

02

c h a p t e r VI

국토 · 지역연구실

1) 연구실 소개

국토·지역연구실은 국토 전체의 균형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연구와 각 지역의 경쟁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지역단위의 계획 및 관련정책을 연구하고 있다.

국토단위에서는 제2차국토종합개발계획(1982~1991)을 수립한 데 이어 제3차(1992~2001)와 제4차국토종합계획(2000~2020) 및 제4차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2020)을 수립하였으며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기초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지역단위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한 지역경제정책, 지역분석, 수도권 및 산업입지 연구와 이들 연구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분석 방법론, 지역계획 및 산업정책과 관련된 기초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세계화에 따른 지역 간 경쟁시대의 전개와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실시라는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지역발전 정책의 실효성 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사회통합발전체제 구축과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연구기관, 지역전문가와의 협력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국토·지역연구실은 국토 및 지역관련 정책의 연구개발뿐만 아니라 관련 연구에 대한 지침제공 및 연구성과의 종합을 통해 국토와 지역발전에 대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국토종합계획 수립 및 국토정책 개발

- 지역 간 격차 해소 및 국토균형발전대책
- 국토정주체계 구축 및 낙후지역발전대책
- 지방분권과 분산정책
- 국토종합계획의 수립 및 수정
- 국토관련 기초조사
- 국토계획 및 정책추진 실적의 종합평가

지역분석

- 지역경제 분석 및 예측을 위한 이론과 모형의 정립
- 수도권정책 및 관련계획 연구
-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제시 및 개발계획 수립

산업입지 및 지역혁신

- 지역혁신체제 구축 및 혁신클러스터 육성방안 연구
- 산업입지의 공급 및 정보체계 구축
- 지역경쟁력 강화 및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산업입지 정책수립

지역경영 및 지역발전체제

- 지방 행·재정 분석
- 지방정부 경영평가 및 전략계획 수립
- 지자체 간 협력 및 사회갈등 해소방안 연구

2) 연구진 소개

박형서 연구위원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 University of Liverpool
현재 국토·지역연구실장을 맡고 있으며 주요 연구실적은 「공공갈등지표 설정과 활용방안」(2007), 「공공사업 자자체 참여제도 방안」(2006), 「공공갈등 관리 매뉴얼 구축연구」(2006), 「한일 해협권 통합지역경제 기반구축을 위한 전략」(2005), 「환동해경제권 형성을 선도하기 위한 동해안지역의 대외 전략」(2005), 「공공시설 입지갈등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연구」(2004) 등이 있다.

박양호 선임연구위원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국토 및 지역계획 분야 전문가로서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건설교통부장관 자문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 국토연구원 부원장, 국토연구원 기획조정실장, 국토계획·환경연구실장 등을 역임하였고 건설교통부 수도권정책혁신민관협의회 위원,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였다. 주요 연구로는 「통합국토를 향한 지역간 공동발전방안 연구」(2004), 「제4차 국토종합계획 연구」(1999),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연구」(1991) 등 다수가 있다.

박상우 선임연구위원

지역경제학 박사, University of Pennsylvania
「첨단미래지식중심도시 연구」(2008), 「신행정수도 건설의 사회·경제적 파급영향분석 연구」(2003), 「지역간 산업연관표 작성에 관한 연구」(2003), 「수도권 정비계획수립」(1994), 「행정중추기능의 분산」(1992) 등의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지역분석실장을 역임하였고, 국무총리실 자문위원, 수도권정비 실무위원 등으로 활동하였다.

양하백 선임연구위원

조경학 석사, 서울대학교
지역계획, 자원 및 환경계획 분야의 전문가로서 주요 연구로는 「개발제한구역의 제도개선을 위한 환경평가」(1999), 「국도이용계획을 위한 GIS활용방안 연구」(1998), 「제주도 중산간지역 종합조사」(1997) 등이 있다.

김동주 선임연구위원

지역경제학 박사, University of Pennsylvania
「균형발전 선도도시 건설과 살기좋은 도시 만들기」(2006), 「혁신주도형 균형발전정책의 성과와 미래상」(2006), 「혁신클러스터와 지역경제발전: 국제비교연구」(2003), 「지식정보화시대의 산업입지 군집체계」(2002) 등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서태성 선임연구위원

공학 석사, 연세대학교
국토 및 지역계획, 지역개발정책, 관광개발계획 등의 분야를 연구하고 있으며 국토계획·환경연구실장을 역임하였다. 현재 기후변화에 대응한 국토분야 과제를 연구하고 있으며,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수립 연구」(2006),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연구」(2004), 「신행정수도 후보지선정 및 평가관리 연구」(2004),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연구」(2002), 「남해안국제관광벨트 개발계획 연구」(1999), 「광양만·진주권 광역개발계획 수립연구」(1998) 등 다수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동우 연구위원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 University of Tsukuba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기초연구」(2006), 「분권화시대 중앙정부의 지역정책 방향연구: 국제비교분석을 중심으로」(2006),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개발투자재원 확보방안 연구」(2005), 「자립형 지역발전 기

반 구축-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2005) 등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김상욱 연구위원

행정학 석사, 서울대학교

「Air-City 개발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용역」(2007), 「2025 수원도시기본계획(변경) 수립 연구용역」(2006), 「대전-통영 고속도로 주변지역의 효과적 개발방안 연구」(2004), 「지식기반산업 입지정책 연구」(2003), 「산업입지제도 개편방안 연구」(1998), 「산업입지정보망 구축방안」(1998) 등 국토 및 지역개발계획 수립과 산업입지 분야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용우 연구위원

지리학 박사, University of Bonn

국토 및 지역계획과 지속가능발전 분야의 전문가로서, 주요 연구로는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지표 설정과 활용에 관한 연구」(2007), 「고속철도와 국토공간구조의 변화(II)」(2006), 「고속철도 주변지역의 효과적 개발방안」(2006), 「전략환경평가 시행지침 개발 연구」(2006), 「서해안 관광벨트 개발계획」(2005), 「과천지식정보타운 개발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연구」(2005), 「지역의 특성화 발전을 위한 산업별 수위도시 육성방안」(2004), 「서해안고속도로 개발계획 수립연구」(2003), 「지속가능한 국토개발지표 설정에 관한 연구」(2003), 「환경친화적 국토발전을 위한 전략 연구」(2001) 등 다수가 있다.

김태환 연구위원

지리학 박사, University of Newcastle upon Tyne
수도권 및 지역계획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주요 연구로는 「충주기업도시 개발구역 지정요건 검토 및 사업성분석 등에 관한 연구」(2007), 「수도권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지방이전추진방안」(2005), 「자립적 지역

발전을 위한 잠재력 분석연구(I)」(2004), 「수도권 집중요인 분석 및 기능 분산방안 연구」(2003), 「지역개발제도 개선방안 연구」(2000) 등이 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김광익 연구위원

지리학 박사과정수료, 서울대학교

「도시권 확장 연구」(2007), 「도시화지역 확장을 위한 시스템개발」(2006), 「수도권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지방이전 추진방안」(2005), 「지역통계생산을 위한 도시화지역 설정」(2004), 「지역소프트웨어산업의 활성화 방안」(2001), 「대도시산업구조변화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2001) 등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원섭 연구위원

지리학 박사, Michigan State University

국토계획 및 낙후지역정책 분야 전문가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 등을 역임하였으며, 주요 연구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개발정책의 혁신방안」(2007), 「지방분산·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의 대응과제(I), (II), (III)」(2005, 2006, 2007), 「통합국토를 향한 지역간 공동발전방안 연구(I), (II), (III)」(2003, 2004, 2005),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연구」(2005) 등이 있다.

권영섭 연구위원

행정학 박사, 서울시립대학교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전략산업 클러스터 촉진방안」(2007), 「지방도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혁신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연구」(2006), 「지역특성화 발전을 위한 혁신 클러스터 육성방안 연구」(2005), 「정보통신기술(ICT)산업의 지역간 기능분담방안 연구」(2004), 「지역별 지식기반산업과 지역혁신체계 구축방안」(2003), 「지식기반산업의 입지특성과 지역경제활성화 연구」(2002), 「시범 테크노파크사업과 지역혁신체

제 구축」(2001), 「지역 지식기반산업육성을 위한 잠재력 제고방안」(2000) 등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김천규 연구위원

경제학 박사(자원 및 환경경제), 中國人民大學
지역계획, 자원 및 환경경제 분야의 전문가로서 주요 연구로는 「개발제한구역의 제도개선을 위한 환경평가」(1999), 「국토이용계획을 위한 GIS활용방안 연구」(1998), 「제주도 중산간지역 종합조사」(1997) 등이 있다.

김창현 연구위원

경제학 박사, 국립경상대학교
국토계획 분야 전문가로서 주요 연구로는 「농촌지역 특성의 진단지표 개발과 정책적 활용방안」(2007), 「지역특성을 고려한 농촌활성화 방안 연구」(2006), 「유역통합관리를 위한 재원확보방안 연구」(2005), 「정주공간의 구조적 변화와 대응방향」(2003),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중추기능의 공간적 재편방안」(2002), 「공공시설부담금제의 도입에 관한 연구(I, II)」(1995, 1996) 등이 있다.

문정호 연구위원

계획학 박사,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주요 연구로는 「국토종합계획 실천계획 평가체계 정립 연구」(2007), 「지방분산·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의 대응과제(III)」(2007),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 수립연구」(2007), 「제주 광역도시계획 수립연구」(2007), 「참여정부 공공계획의 패러다임에 관한 연구」(2006), 「지방분산·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의 대응과제(I)」(2005), 「자립적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단위 설정 연구」(2003) 등이 있다. 현재 「글로벌 시대의 국토정책과 동북아 도시 간 연계·협력방안 연구」, 「국토 및 지역개발사업의 법적 분쟁 실태와 대처방안」 등의 연구를 수행 중이다.

차미숙 연구위원

행정학 박사, 연세대학교
「미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국토어메니티 발굴 및 창출 전략 연구」(2007), 「개발제한구역의 친환경적 보전 및 관리를 위한 내셔널트러스트 도입방안 연구」(2006), 「국가균형발전사업의 지역 내 추진체계 구축연구」(2004), 「지역발전을 위한 거버넌스체계 구축 및 운용방안 연구」(2003), 「지역발전론」(2003), 「유럽의 지역발전정책」(2003),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유형별 입지특성과 지역연계연구」(2002),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구상 및 지정타당성 조사연구」(2001), 「지역개발사업의 파급효과 분석기법 및 적용연구」(2001)를 수행하였다.

이순자 책임연구원

정치학 박사(환경정책 및 자원관리), Colorado State University
주요 연구로는 「전주 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연구」(2007), 「공공사업 갈등지표 설정과 활용방안 연구」(2007), 「새만금 간척용지의 토지이용계획 수립 연구」(2006), 「제주 광역도시계획 수립 연구」(2006), 「평택시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2005), 「수자원관리 및 국토방재기반 구축을 위한 국토계획 수립연구」(2005) 등이 있다.

정옥주 책임연구원

지리학 및 지역계획학 박사, University of Paris-IV-Sorbonne
주요 연구로는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2007), 「지방분산·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의 대응과제(II, III)」(2006, 2007),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기초연구」(2006),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연구」(2005), 「통합국토를 향한 지역 간 공동발전방안 연구(II, III)」(2004, 2005) 등이 있다.

변필성 책임연구원

지리학 박사(도시계획 부전공), University of Arizona

「지역발전을 위한 향토자원의 상품화 사례로서 보령시 머드화장품 사업에 대한 고찰」(2006), 「분권화시대 중앙정부의 지역정책 방향연구: 국제비교분석을 중심으로」(2006), 「A Revisionist Model of Suburbanization and Sprawl: the Role of Political Fragmentation, Growth Control, and Spillovers」(2005)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강호제 책임연구원

도시정책학 박사, Cleveland State University

지역경제개발, 산업클러스터, 산업단지 및 개별입지, GIS 공간분석 전문가로 「서해안 고속도로의 지역성장 효과분석」(2007), 「준산업단지 실행방안 연구」(2006), 「노후산업단지 재정비 실행방안 연구」(2006), 「지방분산·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의 대응과제(III)」(2006), 「지방분산·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의 대응과제(II)」(2006), 「지역특성화 발전을 위한 혁신클러스터 육성방안 연구」(2005) 등의 연구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후원으로 이집트 토지개발정책 평가감시능력 강화를 위한 이집트 파견교육(2008)을 수행하였다. 2005년 미국 서부지역학회 최고논문상(Springer Award)과 Honorable mention for Tiebout prize를 공동 수상하였다.

변세일 책임연구원

경제학 박사, 경북대학교

주요 연구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전략산업클러스터 촉진방안」(2007), 「2006년도 균형발전영향평가 연구용역」(2006), 「제4차 국토계획 수정계획 수립 연구」(2005), 「수도권 대규모개발사업의 집합적 파급 영향 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2005),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방안」(2004), 「ICT 산업의 지역간 기능분담에 관한 연구」(2004),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혁신 클러스터 육성방안」(2003), 「지역별 지식기반 산업 육성과 지역혁신체계 구축방안」(2003), 「지역 간 산업연관표 작성연구(III)」(2003) 등이 있다.

박인권 연구원

현재 Ohio State University, City & Regional Planning, Ph.D 과정 중.

박경현 연구원

지리학 박사과정 수료, 서울대학교

주요 연구로는 「지방분산·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의 대응과제(III)」(2007), 「농촌지역 특성의 진단지표 개발과 정책 활용방안」(2007), 「살고싶은 도시만들기와 도시계획의 역할에 관한 연구」(2006), 「지역특성화 발전을 위한 혁신클러스터 육성방안 연구」(2005), 「인구저성장시대의 도시관리정책 방향 연구」(2005), 「ICT산업의 지역간 기능분담 방안 연구」(2004) 등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임상연 연구원

행정학 석사, 서울시립대학교

주요 연구로는 「2007년 균형발전영향평가 연구」(2007), 「전략환경평가 시행지침 개발연구-국토관련 계획을 중심으로」(2006), 「지방분산·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의 대응과제(I)」(2005),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2005), 「국토·교통계획에 대한 전략환경평가 시행방안 연구」(2005), 「전략환경평가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2004) 등이 있다.

장은교 연구원

조경학 석사, 서울대학교

「공공사업 갈등지표 설정과 활용방안 연구」(2007), 「경주 역사문화도시 조성 타당성조사·기본계획 및 선도

사업 세부실행기본계획 수립연구」(2007), 「전주 전통 문화도시 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연구」(2007), 「참여시대 공공계획의 패러다임에 관한 연구」(2006), 「새만금 간척용지의 토지이용계획 수립 연구」(2006) 등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윤영모 연구원

도시정보공학 박사과정 수료, 안양대학교

주요연구로는 「고속철도 주변지역의 효과적 개발방안에 관한 연구」(2006),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 수립 연구」(2007), 「국토종합계획 실천계획 평가체계 정립방안 연구」(2007) 등이 있다.

03

c h a p t e r VI

국토환경 · 문화연구실

1) 연구실 소개

국토환경·문화연구실은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환경과 문화를 고려한 국토정책을 연구·개발하고 있다.

21세기에 요구되는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국토건설을 위해 국토의 환경성을 제고하고 부족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토의 생태적 관리, 갈등관리, 기후변화 및 동북아환경, 자원 및 에너지관리, 수자원정책, 유역 및 하천관리 등을 연구하고 있다. 또한, 안전한 국토를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여가활동 확대를 위하여 국토 및 도시방재, 지역문화정책, 국토개발에 따른 지역문화와 정체성 제고, 국토어메니티 증진, 지속가능한 관광정책, 광역관광개발계획 수립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국토환경분야

- 국토계획의 환경성제고 및 평가
- 국토의 생태적 관리
- 갈등관리
- 기후변화
- 동북아환경

자원관리분야

- 농촌, 산지, 연안, 도서관리
- 자원 및 에너지관리
- 보호지역관리
- 환경가치

수자원 및 방재분야

- 수자원정책
- 국토 및 도시방재
- 유역권 및 하천관리

문화분야

- 국토 어메니티
- 지역문화정책
- 국토개발과 문화영향
- 국토공간의 역사·문화변화
- 지역지지
- 지역공동체·사회적 자본

관광 및 여가분야

- 지속가능한 관광
- 관광정책연구 및 관광개발 효과분석
- 관광자원 개발 및 광역관광 개발계획
- 여가활동 및 성향분석

2) 연구진 소개

최영국 선임연구위원

조경학 박사, Agricultural University of Norway
자연환경관리, 생태관광 및 경관계획 분야의 전문가로서 현재 국토환경·문화연구실장이며, 환경부 중앙환경정보전자문위원과 산림청 산림정책평가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연구로는 「국토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보호지역의 위계정립 및 관리방안」(2007),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시설물 평가지표 작성 및 DB구축 연구」(2007), 「국토의 자연훼손 진단 및 대책에 관한 연구」(2006), 「생태관광 활성화방안 연구」(2005), 「신행정수도 입지선정 및 평가기준작성 연구」(2003), 「백두대간의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2002),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체계의 연계방안 연구」(2002) 등이 있다.

김선희 연구위원

공학 박사, 서울시립대학교
국토환경 및 어메니티 계획, 갈등관리 분야 전문가로서 현재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위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앙하천관리위원회 위원, 백두대간보호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주요 연구로는 「미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국토어메니티 발굴 및 창출전략 연구」(2007), 「효율적인 수계별 하천관리방안 연구」(2007), 「개발제한구역의 친환경적 보전 및 관리를 위한 내셔널트러스트 도입방안 연구」(2006), 「국책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사회합의형성시스템 구축방안 연구」(2005), 「국토개발사업의 환경가치평가 기준설정 및 적용방안 연구」(2004), 「자원절약적 국토발전방안 연구」(2003) 등이 있다.

김종원 연구위원

자원경제학 박사, West Virginia University at Morgantown
환경 및 수자원 분야 전문가로서, 현재 감사원 건설물

류분야 자문위원, 건설교통부 전략환경평가위원 등을 역임하고 있으며, 주요 연구로는 「환경용수의 확보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분담과 정책과제」(2007), 「하천복원사업의 사회·경제성 평가기법」(2007), 「물 수요관리평가모형 구축방안 연구」(2006), 「유역통합관리를 위한 재원확보방안 연구」(2005), 「하천 유역별 오염총량관리제도의 도입에 따른 지역경제 및 토지이용 전망과 정책과제」(2004), 「용수재배분을 통한 가용수량확보 방안(I), (II), (III)」(2004, 2005, 2006) 등이 있다.

박태선 연구위원

수공 및 환경공학 박사, 한양대학교
하천 및 수자원 분야 전문가로서 수자원정책, 자연형하천, 공업용수도, 내륙주운, 간이상수도, 치수경계성분석, 댐 사후평가 등 수자원 전반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한국수자원학회, 대한토목학회 등 관련 학회 회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주요 연구로는 「홍수피해 특성분석 및 홍수피해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2005), 「자연형하천정비를 위한 하천환경특성 분석연구」(2004), 「하천의 유지관리방안 연구」(2004), 「합리적 하천관리를 위한 하천등급 조정방안 연구」(2002) 등이 있다.

이문원 책임연구위원

도시공학 박사과정 수료, 서울시립대학교
국토자원 활용(연안 및 접경지역) 및 군사시설 이전정책 분야 전문가로서 국토연구원 출판팀장을 역임하였으며, 해양수산부의 어촌어항기본계획 수립 자문위원(2007), 어촌체험마을 건설당사업 및 사무장채용 지원사업 심사위원(2007)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연구로는 「미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국토 어메니티 발굴과 창출전략 연구」(2007), 「군사시설 이전적지 활용 및 사업화 추진에 관한 연구」(2007), 「북한 관광자원의

효율적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2006), 「북한강유역의 남북한 평화적 이용방안」(2005), 「춘천미군기지 이전 부지 및 그 주변지역 활용방안 조사연구」(2005), 「남북한 평화정착을 위한 비무장지대 활용방안」(2004) 등이 있다.

심우배 책임연구원

공학 박사, 홍익대학교

홍수 및 국토·도시방재 분야 전문가로서 현재 소방방재청 재해복구사업사전심의위원회 중앙심의위원, 환경부·기상청 기후변화연구회 연구위원, 한국방재학회 하천방재시스템 분과위원, 한국수자원학회 수문기상 분과위원, 하천협회 정책개발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연구로는 「환경영수 확보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분담과 정책과제」(2007),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계획」(2006),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기본계획」(2006), 「도시홍수관리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연구」(2006), 「현장중심적 접근을 통한 수해특성 분석 및 정책과제」(2006), 「방재국토 구축을 위한 GIS활용방안 연구(I)」(2005), 「국토·교통계획에 대한 전략 환경평가 시행방안 연구」(2005), 「수자원관리 및 국토 방재기반구축」(2005), 「효율적인 빗물관리방안 연구」(2005) 등이 있다.

김명수 책임연구원

공학 박사, 서울대학교

환경생태계획 및 경관계획 전문가로서 경관생태학에 대한 다수의 논문이 있다. 「국토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보호지역의 위계정립 및 관리방안」(2007),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시설물 평가지표 작성 및 DB구축 연구」(2007),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기본계획」(2006),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계획」(2006), 「도시경관 관리제도 정비방안 연구」(2005),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경관기본계획 수립」(2005), 「생태

통로 설계 지침서」(2005), 「포항제철소 그린마스터 플랜」(2005), 「경기도립 환경교육센터 기본계획수립 연구」(2004), 「도시지역의 자연환경성 확보방안 연구」(2004), 「서울의 주요 하천변 경관개선 방안 연구」(2002) 등을 수행하였다.

서연미 책임연구원

지리학박사, 서울대학교

지역산업정책 분야의 전문가로서 경기도 지역혁신협의회 분과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연구로는 「국토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보호지역의 위계정립 및 관리방안」(2007), 「경기도 산업클러스터 발전 기본 구상」(2007), 「실리콘밸리에 입지한 한국계 중소기업의 국제화와 국지화」(2007) 등이 있다.

박정은 연구원

공학 석사, 경원대학교

주요 연구로는 「국토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보호지역의 위계정립 및 관리방안」(2007), 「산업입지 공급 계획 수립지침 연구」(2007), 「지방분산·분권과 국토 균형발전의 대응과제(III)」(2006), 「국토개발전략의 국제비교와 한국에 대한 시사점」(2006), 「A Study on Energy Conservation Policy of Korean Cities」(2006),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지정기준항목에 관한 연구」(2004), 「노후불량주거지역의 효율적 정비방안연구」(2004), 「수원도시 200年史」(2002) 등이 있다.

04

c h a p t e r VI

도시연구실

1) 연구실 소개

도시연구실은 현재 우리나라 도시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와 미래의 도시여건 변화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도시발전 방향을 제시하며, 이렇게 제시된 도시정책이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관련법률과 제도의 개선방안을 연구한다.

또한 국가차원의 신도시계획 및 설계, 도시재생,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같은 물리적인 개발계획뿐만 아니라 도시생활 공동체 회복, 도시경제 활성화 및 도시행정의 효율성제고 등을 포함한 다양한 도시분야 연구를 수행한다.

도시정책 및 관련 제도

- 국가차원의 도시발전정책 제시
- 도시계획관련 법률과 제도의 개선방향 제시

신도시계획 및 설계

- 신도시의 계획기준 연구
- 신도시건설 타당성 조사 및 수요분석
- 신도시 개발계획안 작성

도시재생

- 도시재생정책 및 지원방안 연구
- 도시재생관련 제도 연구
- 도시재생을 위한 개발계획안 작성

지구단위계획 및 설계

- 지구단위계획제도 연구
-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연구
- 지구단위계획안 작성

커뮤니티정책

- 살기좋은 도시 · 마을만들기를 위한 정책제시
- 지원제도 및 시범사업 연구

도시경제 및 행정

- 도시경제 활성화 · 도시행정 효율화에 관한 연구

2) 연구진 소개

민범식 연구위원

도시공학 박사, University of Tokyo

현재 도시연구실장이며,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기본계획」(2006), 「주거지역 개발밀도 설정방안에 관한 연구」(2004), 「성남판교지구 택지개발사업 기본구상 및 개발수요 분석연구」(2003), 「기성시까지 정비기법에 관한 연구: 주거지역을 중심으로」(2002) 등 도시개발과 기성시까지 환경정비 분야 연구를 수행하여 왔다.

김현식 선임연구위원

도시계획학 박사, Princeton University

「The Role of Festivals in the Reproduction of the Urban Lifeworld」(2006), 「이집트 토지개발정책 평가 감시능력 강화사업」(2006), 「과천시식정보타운 개발전략 수립연구」(2005), 「도시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2001), 「제주국제도시 기본 계획 및 타당성조사 연구」(2000) 등의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지역 · 도시연구실

장을 역임하였고, 건설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정석희 선임연구위원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 University of Pennsylvania
주요 수행연구는 「경기 서북부 국제업무신시가지 개발구
상 연구」(2006), 「판교신도시 개발구상 및 타당성 분석」
(1999), 「경부고속철도 역 및 역세권개발 기본구상」
(1997), 「부산시 도시기본계획」(1992), 「일산 신도시개발
사업 기본계획」(1991) 등이 있으며, 도시계획연구실장을
역임하였다. 대외적으로는 건설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
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 서울시 건축위원을 역임하였
고, 현재는 건설교통부 신도시 자문위원, 행정자치부 균
형발전정책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박은관 연구위원

환경조경학 석사, 서울대학교
「도시개발제도 개선방안 연구」(2005), 「택지개발사업
지구 자족기능 강화방안 연구」(2004), 「대구권 광역도
시계획 수립연구」(2004), 「지구단위계획의 효율적 운
용방안 연구」(2001), 「도시계획체계정립 및 계획수립
기준 연구」(1993) 등 주로 도시계획 및 설계분야에서
연구를 수행해왔다.

이왕건 연구위원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 Texas A&M University
「도시주변부 녹지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경제적
보상방안에 관한 연구」(2007),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와 도시계획의 역할에 관한 연구」(2006), 「인구저성장
시대의 도시관리정책 방향연구」(2005), 「살고싶은 도
시만들기 추진방안 연구」(2005), 「행정중심복합도시
국제공모 관리」(2005), 「주거지역 개발밀도 설정방안
연구」(2004) 등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황성수 책임연구원

도시계획학 석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경기서북부국제업무 신시가지개발 타당성분석 연구」
(2006), 「중부내륙광역권개발계획」(2006), 「김포신도
시개발구상 및 주변지역 관리방안 연구」(2006), 「철도
역세권 개발계획」(2006), 「웅진군 종합발전계획」
(2005), 「도시수변공간의 이용특성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2002) 등의 연구를 기수행 및 수행 중에 있다.

김성수 책임연구원

현재 University of Hawaii at Manoa, Department
of Urban and Regional Planning, Ph.D 과정 중.

김상조 책임연구원

환경조경학 석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혁신도시 개발을 위한 계획기준 연구」(2006), 「행정중
심복합도시 건설기본계획 및 개발계획」(2005~2006),
「지방분권에 따른 국토도시계획체계 재정립방안 연구」
(2005), 「남해군 시범 군 기본계획 수립」(2004), 「도시
기본계획 결정권한 이양에 따른 제도보완방향 연구」
(2003) 등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영아 책임연구원

도시계획학 석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정보화시대 도시정책방향과 과제에 관한 연구」
(2002), 「도시환경개선을 위한 기성시가지 정비방안
연구」(2001),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도시시설 확충방안
연구」(2000) 등을 수행하였으며, 주요 연구분야는 도
시정비 및 사회정책이다.

박세훈 책임연구원

행정학 박사, 서울대학교
「동북아 대도시권 동태적 경쟁력의 비교연구」(2007),
「지방분산 · 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의 대응과제」(2005),

「신행정수도 후보지선정 및 평가관리 연구」(2004), 「지역의 특성화발전을 위한 산업별 수위도시 육성방안 연구」(2004) 등의 과제를 수행하였으며, 도시계획 및 지역개발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김형진 책임연구원

현재 Texas A&M University, Urban and Regional Planning, Ph.D 과정 중.

왕광익 책임연구원

도시공학 박사, University of Tokyo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 수립 연구」(2007), 「인구저성장 시대의 도시권 공간구조의 변화와 정책대응방향」(2006), 「도시구조, 교통, 사회인구학패턴이 도로교통부문의 CO₂ 배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2005), 「2020년 부산도시기본계획」(2004) 등 도시계획 공간구조 분석과 지구환경분야에서 연구를 수행하여 왔다.

이범현 연구원

도시설계학 석사, 서울대학교
「충주 기업도시 개발타당성 평가」(2007), 「행정중심복합도시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2006), 「국토의 자연훼손 진단 및 대책에 관한 연구」(2006), 「수도권 대규모 개발사업의 집합적 파급영향 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2005), 「성남판교지구 택지개발사업 기본구상 및 개발수요 분석 연구」(2003) 등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안용진 연구원

현재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Urban and Regional Planning, Ph.D 과정 중.

이진희 연구원

도시계획 및 설계 석사, 연세대학교
주요연구로는 「주민참여형 도시개발사업방식 연구」(2007), 「강화군 장기종합발전계획 연구」(2007), 「김포 신도시 개발계획 및 주변지역 관리방안 연구」(2006), 「광역대중교통체계 기반의 포천신도시 개발전략 연구」(2004) 등이 있다.

05

c h a p t e r VI

토지 · 주택연구실

1) 연구실 소개

토지·주택연구실은 한정된 토지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관리와 주거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연구, 개발하고 있다. 토지와 주택은 물리적 공간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와 삶의 질, 부의 배분, 국토환경 보전수준 등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다. 따라서 토지·주택시장과 정책의 변화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1990년대의 주택대량공급, 외환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급속히 변화된 토지와 주택시장은 새로운 패러다임에 기반을 둔 정책수립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공급자 중심의 부동산시장이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세계화·정보화 등 나라안팎의 여건변화가 가속화되면서 토지·주택시장의 투명성제고 및 환경보전의 중요성이 재인식되고 있다.

토지·주택정책은 이러한 여건변화를 수용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하여야 한다. 즉, 국민 주거생활의 향상,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함께 부동산시장의 선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또한 토지의 난개발 방지 및 친환경적 국토관리를 위하여 토지이용규제 및 개발제도를 친환경 체계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토지·주택연구실은 토지와 주택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복잡하고 다양한 움직임들을 분석·전망하고, 부동산시장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와 정책을 연구·개발하고 있다. 특히 소외계층의 주택문제를 완화하고 바람직한 주거공동체 의식과 주거문화를 형성하면서, 토지적성평가제도와 같은 친환경적 도시관리와 연계되는 토지·주택정책을 개발하고 있다. 아울러 토지·주택시장과 정책에 대한 선진국의 이론과 경험을 분석하고, 한국형 이론개발을 위한 폭넓은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토지·주택정책 연구

- 토지·주택정책의 평가 및 개발
- 토지·주택금융 및 조세정책 연구
- 토지개발 및 주택건설산업 등 관련산업 정책 연구
- 친환경적 토지이용 및 주택계획 연구
- 선진국의 토지·주택정책 연구
- 주거복지 제고방안 연구

토지·주택시장 연구

- 토지·주택시장 동향분석 및 전망
- 부동산증권화시장의 동향분석모형 개발
- MBS·ABS시장의 수익모형 개발

토지·주택 관련법제 및 행정체계 연구

- 토지·주택 관련법제의 정비 연구
- 토지·주택의 소유·임대차권 정비 연구
- 토지이용계획 및 주택건설 체계정비 연구
- 토지·주택의 행정체계 연구

토지·주택 정보체계 및 경영관리

- 부동산 정보체계의 관리 및 활용체계 연구
- 부동산 지적·등기제도의 통합관리 방안 구축
- 공시지가·주택가격 등 부동산시장 정보관리
- 토지·주택의 수급 및 재고관리체계 구축

2) 연구진 소개

채미옥 선임연구위원

공학 박사, 서울시립대학교

현재 토지·주택연구실장이며, 환경부 국토환경보전자문위원,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행정자치부 중앙지적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토지정책, 부동산평가, 토지적성평가 및 토지이용계획이며,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대규모 개발사업지 주변지역의 토지시장관리방안」(2007),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조성방안」(2007), 「선진사회를 향한 토지정책방향 및 추진전략연구(II)」(2007), 「선진사회를 향한 토지정책방향 및 추진전략연구(I)」(2006), 「계획적 국토관리를 위한 산지관리제도의 개선방향」(2005), 「계획적 국토관리를 위한 정책수단의 운용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2004), 「토지적성평가제도의 개선방안 연구」(2003), 「토지이용규제제도와 환경규제제도의 연계성 확보방안」(2002),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토지적성평가에 관한 연구」(2001) 등이 있다.

배순석 선임연구위원

도시계획학(정책분석) 박사, University of Washington

규제개혁위원회 전문위원, 민주당 소득격차완화 특별위원회 위원, 지방공영개발평가위원회 평가위원 등을 역임하였으며, 한국주택학회 운영위원장, 학회지 편집위원장 및 감사로 활동하였다. 주요 연구분야는 주택정책 및 택지개발 등이며,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주택수급여건 변화에 대응한 주택공급체계 개편방안: 주택보급률 110%, 고령화 및 저출산에 대한 대응」(2007), 「주택 재고관리 정책의 평가와 개선방안 연구」(2006), 「도시 주거공간의 사회통합 실현방안 연구」(2006), 「주택소비자 보호를 위한 주택품질보증체계 구축방안」(2005),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원주민 재정착 제고방안 연구」(2005), 「시장소외계층을 위한 주택정책 수립연구」(2002) 등이 있다.

정희남 연구위원

정책학 박사, University of Hawaii at Manoa

대통령비서실 경제구조조정기획단에서 활동한 바 있다. 주요 연구분야는 도시 및 토지정책, 토지 및 부동산시장과 법제, 부동산금융이며,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공공택지 공급방식의 다양성 확보방안 연구」(2007), 「토지관련 부담금제 개선방안 연구」(2006),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 실현방안 연구」(2005), 「토지구제개혁 추진과제」(2004), 「공공택지 및 분양주택 공급제도 개선방안」(2004), 「토지에 대한 개발이익환수제도의 개편방안」(2003), 「지역지구제의 행위규제 분석 연구」(2003, 2002) 등이 있다.

진정수 연구위원

행정학 박사, 건국대학교

현 한국주택학회 이사, 건설교통부 건설교통인재개발원 자문위원, 행정자치부 지방공사 경영평가위원을 역임하였다. 주요 연구분야는 주택정책 및 택지개발이며,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국민주택기금 관리체계 개편연구」(2007),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주거실태분석 연구」(2006), 「철원평화시 건설 기본구상 연구」(2006), 「지방분권시대의 주택거버넌스체계 정립방안 연구」(2005),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 실현방안 연구」(2005), 「개발이익의 발생규모와 영향요인 분석에 관한 연구」(1999), 「주거환경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1998), 「21세기 주택정책의 발전방향」(1997) 등 다수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지대식 연구위원

행정학 석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건설교통부 민원·제도개선협의회 및 부동산공개념검토위원회 실무위원 및 재정경제부 국유재산분과 위원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주요 연구분야는 부동산정책, 토지관리 및 도시 행·재정이며, 최근 연구실적으로는

「중장기 국유재산관리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2007),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토지보상체계 개선방안」(2006), 「국민경제 안정을 위한 주택산업 발전방향」(2005), 「부동산시장 선진화를 위한 기반정비」(2004), 「국공유재산 관리체계의 효율화 방안」(2004), 「부동산 관련세제의 정비·개선방안」(2003), 「고속도로 접도구역 지정범위 조정 및 매수청구제도 도입방안」(2002) 등이 있다.

김근용 연구위원

경영공학 박사, 한국과학기술원

현재 한국주택학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대통령 자문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전문위원, 국무총리실 정책평가위원회 전문위원, 감사원 특별조사국 자문위원을 역임하였다. 주요 연구분야는 부동산시장 및 정책, 부동산금융이며,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2006년도 주택수요조사 연구」(2007),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실현방안 연구」(2005), 「지역간·계층간 주거격차 완화방안 연구」(2005), 「공공임대주택배분체계 및 관리제도 개선방안 연구」(2004),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정책 개편방안 연구」(2003), 「주택사업 유형별 지원정책 평가에 관한 연구」(2002) 등이 있다.

김혜승 연구위원

이학(주거정책) 박사, 경희대학교

현재 한국주택학회 이사, 주거환경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대통령자문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수석전문위원 등을 역임하였다. 주요 연구분야는 주거복지정책 및 주택시장 분석이며 「최저주거기준을 활용한 2006년 주거복지 소요추정 연구」(2007), 「2006년도 주거실태조사」(2007), 「임대주택 체계개편 연구」(2006), 「주거양극화의 현황 및 과제」(2006), 「임대료 보조제도 확대도입방안 연구」(2004), 「주거복지 지원 및 전달체계 구축방안 연구」(2004), 「주택후분양제도

의 조기정착방안 연구」(2003) 등의 연구과제를 다수 수행하였다.

최혁재 연구위원

행정학 박사, 건국대학교

국무총리 물관리정책위원회 전문위원, 부패방지위원회 전문위원을 지낸 바 있으며,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위원, 농지전용조정심의위원회 위원,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위원, 경기도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등으로 활동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토지정책 및 환경정책이다.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농촌활력 증진을 위한 농촌 토지이용의 계획적 관리방안 연구」(2007),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지역 관리방안」(2006), 「유흥농지의 효율적 활용·관리방안 연구」(2005), 「농지규제 완화에 따른 투기방지방안 연구」(2004), 「지속가능한 하구역 관리방안 연구」(2004),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농지이용관리제도의 발전방향」(2003), 「농지제도 개선방안 연구」(2003) 등이 있다.

천현숙 연구위원

사회학 박사, 연세대학교

건설교통부 자체심사평가위원, 규제개혁위원회 전문위원을 지냈으며, 현재는 감사원 건설물류국 자문위원이면서 주택학회 이사로 활동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주거복지 및 도시재생정책이며,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도시주거공간의 사회통합 실현방안 연구」(2006), 「지방분권시대의 주택거버넌스체계 정립방안 연구」(2005),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정책개편방안 연구」(2003), 「주거정책과 복지정책의 연계방안 연구」(2002), 「수도권 주택건설과 인구집중」(2001) 등이 있다.

이수욱 연구위원

문학 석사, 한양대학교

주요 연구분야는 부동산 정책 및 주택금융이며 주요 연

구실적으로는 「부동산시장의 환경변화에 대응한 정책 방향 연구: 인구와 가계자산 변동을 중심으로」(2007), 「부동산정책의 성과와 과제」(2007), 「주택분양가제도 개선방안 연구」(2007), 「2007년도 부동산 시장 및 정책동향」(2007), 「부동산 정책의 효과분석체계 구축 연구」(2006), 「국민주택기금 관리체계 개편 연구」(2006), 「2007년 재정사업(안)에 대한 균형발전영향평가」(2006) 등 다수가 있다.

강미나 연구위원

경제학 박사,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주요 연구분야는 주택정책 및 부동산 시장이며,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국민임대주택 수요추정 연구」(2007), 「노인주거복지 제도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연구: 고령자 생활패턴 분석을 통한 주거환경 편리성 개선방안 연구」(2007), 「지역간·계층간 주거서비스 격차 완화방안 연구(II)」(2006),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비 산출체계 구축방안 연구」(2006), 「서울시 강남주택시장의 구조분석 연구」(2005),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금융 역할강화 방안」(2005), 「인구고령화와 노인주거」(2004) 등이 있다.

최 수 책임연구원

도시행정학 박사과정 수료, 서울시립대학교
주요 연구분야는 토지 및 주택정책, 부동산 시장분석이며,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2007년 국내의 부동산 시장 및 정책 동향 연구」(2007), 「행정중심복합도시 토지공급제도 마련을 위한 연구」(2007), 「재건축사업의 계획적 관리 및 개발이익환수방안」(2006), 「공공택지 조성원가 및 공급가격체계 개선방안 연구」(2006), 「주택 재고관리 정책의 평가와 개선방안 연구」(2006), 「토지관련 부담금제 개선방안 연구」(2005),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 실현방안 연구」(2005) 등이 있다.

조판기 책임연구원

행정학 석사, 서울시립대학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에서 전문위원으로 근무하였으며, 행정자치부 자체평가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주택·도시정책이며, 특히 도시의 물적 기반이 형성되어 온 과정과 요인에 대한 관심이 많다.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선진사회를 향한 토지정책 방향 및 추진전략 연구(II)」(2007), 「토지보상체계 개선방안 연구」(2004), 「공공택지 조성 및 공급제도 발전방안 연구」(2004), 「택지개발지구 자족성 강화방안 연구」(2004), 「도시개발의 재정영향분석 연구」(2002), 「서민주거안정과 주거기준 달성연구」(2002), 「도시경쟁력 비교분석 연구」(1998) 등이 있다.

김승중 책임연구원

법학 박사, 서울시립대학교
주요 연구분야는 토지법제와 토지정책이며,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농촌활력 증진을 위한 농촌토지이용의 계획적 관리방안 연구」(2007),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토지보상체계 개선 연구」(2006), 「유희농지의 효율적 활용 관리방안 연구」(2005), 「부동산시장 선진화를 위한 기반정비 연구」(2004), 「토지에 대한 개발이익환수제도 개편방안」(2003) 등이 있다.

손학기 책임연구원

지리학 박사, 서울대학교
주요 관심분야는 GIS, 공간통계, 부동산시장 모니터링 등이다. 주요 연구·프로젝트로는 「투기과열지역의 공간패턴 모형화」(2008)가 있다.

송하승 연구원

도시계획학 석사, 연세대학교
주요 연구분야는 도시계획 및 토지정책이며, 주요 연구로는 「선진사회를 향한 토지정책 방향 및 추진전략 연

구(II)』(2007), 「고도 보존을 위한 역사문화환경 관리 방안」(2007), 「선진사회를 향한 토지정책 방향 및 추진 전략 연구(I)」(2006), 「계획적 국토관리를 위한 산지관리제도의 개선방향」(2005), 「계획적 국토관리를 위한 정책수단의 운용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2004), 「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국토공간구조의 변화전망 및 대응방안 연구」(2003) 등이 있다.

박천규 연구원

경제학 박사과정 수료, 한양대학교

주요 연구분야는 주택정책과 부동산시장이며,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부동산시장 BSI 조사 및 분석체계 구축 연구」(2007), 「부동산시장의 환경변화에 대응한 정책 방향 연구: 인구와 가계자산 변동을 중심으로」(2007), 「주거양극화의 현황 및 과제」(2006),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한 주택산업 발전방향 연구」(2005), 「공공임대주택배분체계 및 관리제도 개선방안 연구」(2004), 「부동산시장 선진화를 위한 기반정비연구」(2004), 「주택자금대출시장의 개선방안 연구」(2003) 등이 있다.

전성제 연구원

지리학 석사, 서울대학교

주요 연구분야는 주택정책과 주거복지이며,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주택수급여건 변화에 대응한 주택공급체계 개편방안: 주택보급률 110% 초과, 고령화 및 저출산에 대한 대응」(2007), 「노인주거복지 제고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연구」(2007), 「주택분양가제도 개선방안 연구」(2007), 「주택종합계획(03~ 12) 수정보완을 위한 연구」(2007), 「도시주거공간의 사회통합 실현방안 연구」(2006) 등이 있다.

06

c h a p t e r VI

교통연구실

1) 연구실 소개

교통연구실은 지난 1978년부터 전국 단위의 간선도로망·철도망계획, 광역 종합교통계획, 대형교통사업의 타당성조사 등 국가차원에서의 주요 교통정책과 계획을 선도적으로 수립해 왔으며, 국토 공간의 균형발전과 경쟁력 향상, 국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통행권 향상,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종합교통체계의 창출'을 목표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중점 연구분야로는 국가 및 권역의 발전을 지원하는 주요 교통정책의 개발, 중장기 교통투자 계획수립, 공간구조와 연계한 교통축 개발계획 수립, 전국 만나질 생활권 형성을 위한 도로·철도 등 고속 간선교통망계획 수립, 21세기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지능형 교통체계(ITS: Intelligent Transport System)의 표준화와 아키텍처 연구 등이다.

이와 함께 국가 물류경쟁력의 향상을 위해 물류단지, 항만배후지 개발 등 물류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네덜란드 등 물류선진국과의 공동연구를 통하여 국제적 교류를 확대하고 선진시스템의 국내도입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한반도와 주변 국가가 포함되는 아시안하이웨이, 유라시안대륙횡단철도, 육·해·공 복합운송체계에 대한 연구, 한국-중국, 일본, 미국, 인도네시아 도로교류회의 등 국가 간 프로그램과 KOICA·AIDB(Inter America Development Bank)의 해외지원사업에도 참여하고 있으며 원내 국토, 도시, 동북아, SOC, 건설경제 전문가와의 협동연구, 'Infra 21' 세미나를 통한 국내외 산·학·연과의 교류로 연구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있다. 부문별 연구 특성화를 위해 우리나라의 도로정책 제시 및 도로계획의 협의 및 조정기능을 갖는 도로정책연구센터(2007), 국가 및 국제 ITS의 표준업무를 담당하는 ITS표준연구단(2006)을 설치하고 있다.

교통시설 계획관련 연구

- 7×9 등 국토간선도로망의 추진

- 경부 및 호남고속철도망, 광역철도망 구축
- 도시 우회도로 계획 및 연계교통망 구축
- 지방부 도로의 간선기능 향상 방안
- 국토 및 국가지원지방도 종합기본계획

교통정책 및 경제부문 연구

- 전국 교통 계획의 장기비전 구상(한반도, 동북아)
- 교통투자재원 확보 및 분담방안
-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
- 교통사업 타당성 조사 및 사후평가

교통운영 및 관리부문 연구

- 교통분야 지리정보시스템(GIS-T)
- 교통체계의 운영 및 유지관리의 효율화
- 교통수요관리, 수송에너지 대책
- 지속가능한 교통체계 수립

종합교통계획관련 연구

- 지표예측, 교통조사 및 수요예측
- 국토 및 지역계획지원, 광역대도시권의 종합교통계획
- 항만 및 공항, 산업시설 배후 연계교통망 체계
- 환경영향 및 에너지 저감을 위한 종합교통계획 수립
- 자전거 도로망 구상 및 이용활성화 방안

ITS관련 연구

- ITS '아키텍처'의 구축 및 표준화
- 교통시설 운영관리의 정보화
- U-Transportation
- 첨단교통모델도시 구축사업

물류관련 연구

- 물류구조 분석, 수요예측
- 물류단지 등의 물류시설 계획
- 물류산업의 발전전략 연구

2) 연구진 소개

류재영 연구위원

도시 및 교통계획학 박사, 한양대학교

현재 교통연구실장을 맡고 있으며 1978년부터 KIST 지역개발연구소, 국토연구원에서 도시 및 지역교통·물류분야의 계획을 주 연구분야로 하고 있다. 주요 연구 실적으로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수립연구」(2007, 1993), 「전국 무역항 배후단지개발 기본계획 수립연구」(2006), 「서남해안 국제관광 및 물류단지 개발 구상연구」(2004), 「국토공간이용 및 사회간접자본 최적화모형개발」(2000), 「Transforming Korea into a Logistics Center for Northeast Asia」(1998) 등이 있다. 2001~2005년에는 건설교통부 장관 자문관으로 근무하였고 현재 건설교통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 한국물류대상 심사위원장(2006~2007), 해양수산부 자체평가위원회 항만분과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춘용 연구위원

공학 석사, 한양대학교

주요 연구분야는 도로계획 및 정책, 교통계획, 지역계획이며,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도로 공간의 복합적 기능 활성화 방안 연구」(2007), 「행정중심복합도시 기본계획 및 광역도시계획의 교통부문」(2005~2006), 「도로정비 기본계획 재정비 수립 연구」(2004), 「일반국도 및 국도 대체우회도로 중장기계획 수립연구」(2003), 「수도권 및 지방 5대도시권 광역교통계획 수립연구」(2000, 2001), 「국도 기능분류 및 효율적 투자방안 연구」(1999), 「국도 대체우회도로 기본계획 조사」(1997), 「도로정비 중장기 계획 수립 연구」(1997) 등 다수가 있다.

정일호 연구위원

교통계획학 박사, University of Leeds

주요 연구분야는 SOC 투자계획 및 평가, 교통계획 수립 및 평가, 교통체계분석이며,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전국도로망체계 발전방안 연구(I)」(2007), 「공공교통

시설 투자평가지침 전면개정 연구」(2007), 「국가기간 교통망계획 수정계획 연구」(2007), 「수도권 고속도로 망 실행계획 연구」(2007), 「효율적인 교통혼잡통행료 정책의 도입방안 연구」(2006), 「호남고속철도 기본계획 조사연구」(2005), 「SOC 공급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체계 구축방안」(2004), 「교통수요예측을 위한 기준 및 절차 지침연구」(2004) 등 다수가 있다. 현재 건설교통부 예산자문위원회, 국가교통조정실무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조남진 연구위원

공학 박사, 서울대학교

주요 연구분야는 SOC 투자평가 및 사후평가, 고속철도 영향분석 등이며,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중부선(하남-호법간) 외 5개 노선 고속도로 건설공사 사후평가 연구」(2006), 「고속철도와 국토공간구조의 변화(I)」(2005), 「고속철도 역세권 개발관련 기본조사」(2005), 「창선삼천포 대교 건설공사 사후평가연구」(2004), 「제2차 수도권 광역교통5개년 계획 및 추진계획 수립연구」(2004), 「서해안선 외 2개 노선 고속도로 건설공사 사후평가 연구」(2004), 「고속철도개통에 따른 국토공간구조의 변화전망 및 대응방안 연구」(2003), 「고속도로 확장투자계획 수립 및 효과분석 연구」(2002), 「국토 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도로망체계 구축방향」(2002), 「지방5대도시권 광역교통계획 수립연구」(2001) 등 다수가 있다.

이상진 연구위원

공학 박사, Virginia Tech

주요 연구분야는 ITS 표준화, ITS 기본계획, SOC 투자평가 등이며,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디지털국토 기반조성을 위한 통합교통정보 인프라 구축방안」(2007), 「도로교통 통계정보기반 정비방안」(2006), 「국가 ITS 기술표준화 1~6단계 연구」(1998~2005), 「효율적인 광

역교통개선에 관한 연구」(2004), 「SOC 투자평가모형을 활용한 지역파급 효과 실증분석 연구」(2004), 「안양시 ITS, BIS 기본계획」(2003), 「SOC 투자평가모형의 개발 1, 2, 3단계」(2000~2003) 등 다수가 있다.

김홍석 연구위원

공학 학사, 성균관대학교

주요 연구분야는 SOC 종합계획 및 운영·관리, 교통 계획수립 및 교통정책방향, 공공사업 및 수요분석관련 연구 등이며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광역대도시권 SOC 정책의 새로운 방향」(2004), 「철도역세권 개발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2003), 「고속도로 확장투자계획 수립 및 효과분석 연구」(2002), 「서천-보령간 국도 확장사업」(2001), 「도로사업 투자분석기법 정립」(1999) 등 다수가 있다.

정진규 연구위원

도시학 박사, Portland State University

주요 연구분야는 교통 및 토지이용, 광역 및 도시교통 계획, 정보화와 교통, 계획이론 등이다. 주요 연구실적은 「광역교통개선타협의 합리적 재원부담 연구」(2007), 「기업도시 기반시설 국고지원 기준 연구」(2006), 「대도시권 교통개선을 위한 재택근무 활성화 방안 연구」(2005), 「대도시권 SOC정책 결정체계에 관한 연구」(2004), 「고속철도가 국토공간에 미치는 영향 연구」(2003), 「자원절약적 국토공간구조에 관한 연구」(2002) 등 다수가 있다.

김호정 연구위원

공학 박사, 홍익대학교

주요 연구분야는 교통계획과 도로계획이며,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수정계획 연구」(2007), 「수도권 고속도로망 실행계획 연구」(2007), 「전국도로망체계 발전방안 연구」(I)(2007), 「공공교통

시설 투자평가지침 전면개정 연구」(2007), 「고속도로 사업효과 조사 연구」(2006), 「교통서비스 지표 개발 및 활용방안 연구」(2006), 「국가기간교통망의 유고대응전략 연구」(2005), 「민간투자사업 중간평가와 효율적 추진방안 연구」(2005), 「국가지원지방도 5개년계획 수정 계획 연구」(2004) 등 다수가 있다.

오성호 연구위원

공학 박사,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현재 첨단교통(ITS) 표준연구단장을 맡고 있다. 주요 연구분야는 교통정보(ITS), 교통계획이며,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2006년 국가 ITS 기술표준화 연구」(2007), 「u-City의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방안 연구」(2007), 「표준 노드/링크 체계 구축사업」(2005), 「고속도로 확장 투자 5개년 계획」(2004), 「제2차 수도권 광역교통 5개년 계획 및 추진 계획」(2003), 「장기 수도권 고속도로망 종합체계 조사 연구」(2003) 등 다수가 있다.

임영태 책임연구위원

공학 박사, 서울시립대학교

주요 연구분야는 교통경제와 물류계획이며,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한국형 부가가치 물류클러스터 창출방안 연구」(2007),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2007), 「효율적인 교통혼잡통행료 정책의 도입방안 연구」(2006), 「전국 무역항 항만 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수립 연구」(2006), 「연계성을 고려한 수송물류결절점 평가기법 연구」(2005) 등 다수가 있다. 현재 건설교통부 중앙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 서울특별시 물류정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고용석 책임연구위원

공학 석사, 한양대학교

주요 연구분야는 교통계획, ITS, 대중교통 등이며,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디지털국토 기반조성을 위한 통합

교통정보 인프라 구축방안」(2007), 「제2관문공항(남부권 신공항)건설여건 검토 연구」(2007), 「대중교통시설 설치를 위한 대규모 개발사업 계획기준 연구」(2007), 「도로교통 통계정보기반 정비방안」(2006), 「SOC 투자 평가모형을 활용한 지역파급효과 실증분석 연구」(2004), 「안양시 버스정보시스템 기본계획수립 연구」(2003) 등 다수가 있다.

이미영 책임연구원

공학 박사,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주요 연구분야는 교통계획 및 ITS이며,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전국도로망체계 발전방안 연구(I)」(2007),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수립연구」(2007), 「도로교통 통계정보기반 정비방안」(2006), 「ITS 장비 성능평가 및 검·교정체계 실용화연구(3단계)」(2006), 「ITS 장비성능평가 및 검·교정체계 구축연구(2단계)」(2005) 등 다수가 있다.

이백진 책임연구원

공학 박사, Hiroshima University

주요 연구분야는 교통계획 및 ITS이며,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초기 유비쿼터스 환경과 대도시권 교통정책에 관한 연구」(2007), 「디지털국토 기반조성을 위한 통합 교통정보 인프라 구축방안」(2007), 「TAGO 기본계획 및 유지관리 방안」(2007), 「효율적인 교통혼잡통행료 정책의 도입방안 연구」(2006), 「고속도로 교통정보 제공에 따른 이용자 편익연구」(2006), 「2006년 국가ITS 표준적용방안 연구」(2006) 등 다수가 있다.

김종학 책임연구원

공학 석사, 홍익대학교

주요 연구분야는 교통계획 수립 및 평가, 교통체계분석이며, 주요 연구실적은 「광역교통 기본계획 수립」(2007), 「교통서비스 지표개발 및 활용방안 연구」

(2006), 「호남고속철도 기본계획 조사 연구」(2005), 「BRT와 혼잡통행료의 통합시행에 따른 교통환경 개선 효과에 관한 연구」(2004) 등 다수가 있다.

김준기 책임연구원

교통시스템공학 박사, 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고속도로에서의 추돌사고」(2004), 「자전거 차량사고에서 자전거 이용자의 사고 심각도」(2005), 「보행자 차량사고에서 보행자 사고 심각도」(2007) 등이 있다.

정선영 연구원

공학 석사, 연세대학교

현재 University of Maryland, College Park, Traffic Safety and Operations Lab in Department of Civil Engineering, Ph.D. 과정 중.

서민호 연구원

도시계획 및 설계 석사, 고려대학교

주요 연구로는 「한반도 도로네트워크 구축방안 연구」(2005~2007), 「베세토 비즈니스 회랑 구축 제안」(2006~2007), 「한반도 기반시설 개발의 기본구상 연구(I)」(2006), 「u-City의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방안 연구」(2007), 「TAGO 기본계획 및 유지관리방안 연구」(2007), 「2006년 국가ITS 표준적용방안 연구」(2006~2007) 등이 있다.

07

c h a p t e r VI

SOC · 건설경제연구실

1) 연구실 소개

SOC·건설경제연구실은 사회간접자본 및 건설산업과 관련된 제반 정책과제에 대응하여 SOC시설의 효율적인 확충과 관리 및 건설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건설산업은 국민과 산업을 위한 생산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산업으로서, 국민경제의 18%를 점하는 등 국가 경제에 있어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으나 생산체계 및 기술수준의 미흡, 불법·부실 등 투명성의 문제, 과당경쟁과 불공정 하도급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위해, SOC·건설경제연구실은 건설산업 정책 및 제도연구, SOC 투자정책 및 제도연구, 건설경기동향 분석연구, 민간투자사업의 평가 및 정책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외에 계간 「건설경제(Construction Economics)」지 발간과 일본의 건설경제연구소(Research Institute of Construction and Economy) 등 해외연구기관과 교류하고 있으며, 아시아 11개국이 참여하는 아시아건설협의회(Asian Construction Conference)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건설산업 정책 및 제도 연구

- 건설산업 및 생산구조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 발주 및 입찰·계약제도 연구
- 건설부패 방지대책 연구
- 건설공사보증제도 연구

SOC 투자정책 및 제도 연구

- SOC 중장기사업 투자 우선순위 및 지역 간 배분
- SOC 사업 투자효과 분석 및 타당성 조사
- SOC 투자지표 개발
- SOC 스톡추계

건설경기 동향분석 연구

- 건설 동향분석 및 경기예측모형 구축·운영
- 건설산업의 국민경제효과 연구
- 건설인력·자재 수급동향 연구
- 건설산업정보 종합관리
- 건설정책·행정업무 정보화 연구
- 건설산업 정보화관련 연구

민간투자사업 평가 및 정책연구

- 민간투자사업 관련제도 연구
- 민간투자사업의 평가

기타 SOC·건설경제 관련연구

- 건설시장 개방의 대응전략 연구
- 주요 교역국가의 건설정책자료 수집·분석
- 해외건설시장 진출방안 연구

2) 연구진 소개

손경환 선임연구위원

경제학 박사, 한양대학교

현재 SOC·건설경제연구실장, 부동산시장 연구단장을 맡고 있다. 주요 연구분야는 주택정책 및 부동산시장이며,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부동산시장의 환경변화에 대응한 정책방향 연구」(2007), 「부동산정책의 효과 분석체계 구축 연구」(2006),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산업 발전방안 연구」(2005), 「부동산시장 선진화를 위한 기반정비연구」(2004), 「부동산거래신고가격 적정성 평가모형 개발」(2004), 「주택종합계획(2003~2013) 수립연구」(2003), 「부동산시장 동향 및 전망체계 구축」(2003) 등이 있다.

김재영 선임연구위원

경제학 박사, 중앙대학교

건설경제분야 전문가로서 국토정보실장, 건설경제연구실장, SOC·건설경제연구실장, 건설교통부 선진화기획단 위원, 국가청렴위원회 전문위원 등을 역임하였고 건설경기 동태분석, 건설산업의 경쟁력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주요 연구분야는 건설경기 및 건설산업정책과 제도다. 주요 연구실적은 「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한 상생협력 방안」(2007), 「중장기 건설보증시장 전망과 대응방안」(2007), 「지역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SOC투자 연계집행 방안」(2006), 「공공시설 관리권에 관한 연구」(2006), 「건설경기의 구조적 진단과 효율적 대응방안」(2005), 「건설보증제도 개선방안 연구」(2004), 「SOC시설의 효율적 정비 및 사후관리방안 연구(I, II)」(2003~2004), 「건설경기 종합지수 개발 연구」(2002), 「제2차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 수립연구」(2002), 「건설경제구조변화를 고려한 건설경기 예측모형 개발연구」(2000), 「건설분야 부패방지 대책」(1999), 「건설산업 지식정보시스템 구축방안」(1999) 등 다수가 있다.

유재운 선임연구위원

도시경제학 박사, Texas A&M University

주요 연구분야는 도시경제, 도시개발, SOC 투자 등이며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전문위원을 역임하였다. 주요 연구로는 「전환기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정책 재정립 방안(I)」(2007), 「건설수요구조의 변화 전망 및 대응방안 연구」(2006), 「기업도시 타당성 검토기준 및 개발이익산정연구」(2005), 「민간투자사업의 중간평가와 효율적 추진방안 연구」(2005), 「도시개발의 재정영향분석에 관한 연구」(2002), 「도시개발비용의 구조분석 연구」(2001), 「도시문화산업 육성방안 연구」(2000), 「도심재개발 활성화 방안」(1997), 「도시경쟁력 평가에 관한 연구」(1996) 등 다수가 있다.

윤하중 연구위원

공학 박사, 경원대학교

주요 연구분야는 교통계획, 민간투자사업으로서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민간투자제도의 내실화를 위한 추진단계별 개선방안」(2007), 「하남-화도(국도45호선) 교통량 재검토 연구」(2006), 「주차환경개선기본계획수립 및 주차수급실태조사분석 연구」(2006), 「교통수요예측을 위한 기준 및 절차지침연구」(2004), 「민간투자사업의 성능제안형 방식 도입에 관한 연구」(2002), 「SOC 중장기 민간투자계획 수립연구」(2002), 「민간투자사업의 운영관리비 산정에 관한 연구」(2001), 「인프라시설의 타당성 개선방안 연구」(2000) 등의 연구와 개발도상국의 인프라시설 타당성조사 및 다수의 민간투자사업 평가와 협상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민간투자지원센터의 사업추진팀장을 역임하였다.

김성일 연구위원

행정학 박사, 서울대학교

주요 연구분야는 SOC 투자 및 건설 산업 정책, 조달

행정 및 정책 등이며, 최근의 주요 연구로는 「해외건설 제도약을 위한 건설업 경쟁력 강화방안」(2007), 「BSC 구축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효과적인 성과관리방안 연구」(2007), 「SOC 재정사업의 사후평가모형 구축 방안 연구」(2006), 「대형 공공건설사업의 효율적 추진 방안 연구」(2005), 「공공공사 발주행정 분권화 방안 연구」(2004), 「공공공사 클레임 실태분석과 개선방안」(2003), 「공공공사 발주제도의 다양화 방안연구」(2002), 「최저가 낙찰제도의 정착방안 연구」(2001) 등이 있다.

권혁진 책임연구원

경제학 석사, 서강대학교

건설경제분야 전문가로서, 건설보증, 건설정책, SOC 투자 등의 분야를 연구하고 있다.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한 상생협력 방안」(2007), 「중장기 건설보증시장 전망과 대응방안」(2007), 「지역개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SOC투자 연계집행 방안」(2006), 「건설산업 구조개편에 따른 건설보증기관의 발전방안 연구」(2006), 「건설경기의 구조적 진단과 대응방안」(2005), 「건설교통부문의 성과관리 지침 개발에 관한 연구」(2004), 「지역별 사회간접자본(SOC) 스톡추계 연구」(2003), 「건설산업에서 금융기능 강화방안 연구」(2002), 「건설산업DB 구축사업」(1999~2007) 등 다수가 있다.

이형찬 책임연구원

경제학 석사, 고려대학교

건설경제분야 전문가로서 건설정책 및 제도를 주요 연구분야로 하고 있다.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한 공공공사 클레임 발생 가능성분석」(2004), 「공공공사 발주행정의 분권화 방안 연구」(2004), 「건설교통부문 성과관리지침 개발 연구」(2004), 「공공공사의 클레임 실태분석과 개선방안」

(2003), 「대형공사 입찰제도 개선방안 연구」(2003), 「제2차 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수립 연구」(2002) 등 다수가 있다.

김민철 책임연구원

경제학 석사, 서강대학교

건설경제 분야 전문가로서 건설경기 및 제도를 주요 연구분야로 하고 있다.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해외건설 제도약을 위한 건설업 경쟁력 강화 방안」(2007), 「전환기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정책 재정립 방안(I)」(2007), 「건설수요구조의 변화 전망 및 대응방안 연구」(2006), 「교통기반시설투자의 지역간 배분과 지역경제 성장에 관한 연구」(2006), 「대형 공공건설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연구」(2005), 「건설경기의 구조적 진단과 대응방안 연구」(2005), 「SOC시설의 효율적 정비 및 사후관리 방안 연구」(2003) 등이 있다.

안흥기 책임연구원

도시경제학 박사, 서강대학교

건설경제 분야 전문가로서 주요 연구분야는 SOC, 건설경제, 지역경제 등이다.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대형 공공건설계획에 따른 지역별 건설중간재의 과부족 진단」(2007), 「교통기반시설투자의 지역간 배분과 지역경제성장에 관한 연구」(2006), 「건설경기의 구조적 진단과 대응방안 연구」(2005), 「SOC투자평가모형을 활용한 지역파급효과 실증분석 연구」(2004), 「SOC시설의 효율적 정비 및 사후관리방안 연구」(2004), 「공공투자지출의 국민경제적 파급효과 분석」(2001), 「MRIO모형구축과 SOC투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2000) 등 다수가 있다.

08

c h a p t e r VI

국토정보연구센터

1) 연구실 소개

국토정보연구센터는 새로운 정보기술 패러다임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는 GIScience 지식교류 네트워크의 중심(GIS Hub)을 지향하며,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창의적인 신지식 창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아젠다 발굴 및 실사구시 방안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국가GIS 계획 및 정책 수립을 연구·지원하고, 계획시행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며 향후 발전방향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누구나 GIS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도록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국가GIS 추진주체 사이의 효율적인 협력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GIS 활용전략 및 개발방법론을 연구·발전시켜 GIS 기반의 전자정부/전자지방정부 구현방안을 마련하고, GIS정보를 공유하는 네트워크 구축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나아가 사이버국토 건설, 유비쿼터스[時空自在] 세상을 창조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국가기본지리정보를 효율적으로 생산 및 관리하는 방안과 적정 수준의 품질유지 방안을 연구하고 있으며 공간정보를 활용하고 분석하는 방법론을 정립하여 합리적인 국토이용 결정을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국가GIS 계획·정책의 수립/모니터링/평가연구

- 국가GIS 계획·정책 수립지원 연구
- 국가GIS 운영실태 조사 및 분석 연구
- 국가GIS 성과측정을 위한 평가체계 연구
- GIS 활성화를 위한 제도정비 연구
- 국가GIS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민관협력 방안 연구

GIS 기반의 유비쿼터스 세상 연구

- GIS 활용전략 및 개발 방법론 연구
- 유비쿼터스[時空自在] 세상 창조방안 연구
- 국가GIS의 상호운용성 확보방안 연구

- GIS 서비스 네트워크 구축방안 연구
- GIS 기반 전자정부·전자지방정부 구현방안 연구

공간정보 생산·분석 연구

- 국가기본지리정보 생산·품질관리 연구
- 공간정보 분석 방법론 연구
- 국토공간 계획지원체계 연구
- 국토이용 모니터링 방법론 연구
- 북한지리정보 구축방안 연구

주요 행사

- GIS 국제세미나 개최(1996~)
- GIS KOREA 대회 개최
- GIS 관련 세미나 개최
- GIS 중앙교육센터 운용

2) 연구진 소개

사공호상 연구위원

도시계획학 박사, 서울시립대학교

국토정보연구센터 소장이며, 주요 연구분야는 국가 GIS정책, GIS & RS 응용이다. 한국지리정보학회 부회장, 안양대학교 대우교수로 활동 중이며,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공간정보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한 국가 GIS전략 연구」(2007), 「북한지역 국토이용실태 조사방안 연구」(2006), 「제3차 국가GIS기본계획 수립 연구」(2004), 「국토종합정보체계 구축 및 추진방안 연구」(2003), 「원격탐사와 GIS의 연계활용방안 연구」(2002), 「GIS 온라인교육 도입방안 연구」(2002), 「인공위성영상자료를 이용한 국토자원분석 연구」(2000) 등 다수가 있다.

최병남 연구위원

경영정보공학 박사, 한국과학기술원

연구분야는 GIS 및 MIS로써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국토정책의사결정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 연구」(2007),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 구축 연구(I)」(2006, 2007), 「시공자재의 세상을 향한 사이버국토 창조방안(II)」(2005), 「시공간 통합 국토시물레이션모형 개발 연구(I, II)」(2005, 2006), 「전자지방정부 구현을 위한 GIS활용 방안 연구」(2004), 「토지종합정보망 구축 및 운영관리 연구」(1998~2004), 「국토이용모니터링체계 구축방안 연구」(2003), 제2차 및 제3차 「국가GIS 기본계획 수립 연구」(2000, 2005) 등 다수가 있다.

정문섭 연구위원

지리정보공학 박사수료, 인하대학교

주요 연구분야는 국토정보화 및 GIS정책이다. 한국공간정보시스템학회 이사, 국가GIS추진위원회 분과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국토정보화 혁신을 위한 지능형국토 추진방안(I)」(2007), 「방재국토 구축을 위한 GIS 활용방안 연구」(2006), 「지식정보

화시대의 디지털통합국토 구상 연구」(2005), 「국가GIS 중장기 정책방향 연구」(2004), 「국토종합정보체계 구축 및 추진전략 수립연구」(2003), 「국가공간정보기반 구축을 위한 전략계획 수립연구」(2003), 「국가GIS 평가방안 및 시행계획 수립방안 연구」(2002), 「GIS를 이용한 지방자치단체 정보화 추진전략 수립연구」(2000) 등 다수가 있다.

이종열 연구위원

지리학 박사, West Virginia University

주요 연구분야는 원격탐사, GIS, 도시 및 지역분석이며, 국토정보연구센터 소장을 역임하였다.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 구축사업」(2006), 「GIS를 활용한 난개발 상시 감시체계 구축방법 연구」(2006), 「고해상도 위성영상을 이용한 토지이용/피복 분류방법 연구」(2003~2005), 「토지정보 활용성제고를 위한 3차원 위성영상정보 구축연구」(2005), 「국토이용모니터링방안 연구」(2003), 「리모트 센싱을 이용한 필지별 토지이용현황 조사방법 연구」(2002), 「지역간 투입산출분석모형개발 연구」(2001~2003), 「수도권 공간구조 재편방안 연구」(1992), 「수도권 신도시건설 파급효과분석」(1990) 등 다수가 있다.

김정훈 연구위원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 University of Newcastle upon Tyne

주요 연구분야는 도시계획, GIS와 u-City다. 안양대학교 겸임교수, 한국GIS학회 상임이사, 유시티건설포럼 법제도분과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며, 주요 연구실적으로 「u-City구현을 위한 계획체계 정비방안 연구」(2007), 「u-City(時空自在도시)구현을 위한 국가전략 연구」(2006), 「제2차 GIS백서」(2006), 「미래형 삶의 질 향유를 위한 첨단정보도시 구현방안 연구」(2006), 「수도권 개발수요 및 가용지 분석을 통한 효율적 토지

수급방안 연구」(2005), 「시설물관리 범용시스템을 활용한 도시정보체계 구축방안 연구」(2004), 「도시계획정보체계 시범사업(II)」(2003), 「도시계획정보체계 시범사업(I)」(2002) 등 다수가 있다.

신동빈 연구위원

공학박사, 연세대학교, 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술사
주요 연구분야는 국가GIS정책, 지리정보유통, GIS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분야다.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국가공간정보에 대한 세계측지계의 체계적 적용방안」(2007), 「국가지리정보유통 고도화 방안 연구」(2006), 「도로기반 시설물 통합관리사업 확대추진 방안 연구」(2003), 「기본지리정보구축 추진전략 수립연구」(2002), 「지하시설물전산화사업 감리사례 연구」(2002), 「제1차 국가GIS사업 백서 연구」(2002) 등 다수가 있다.

박종택 책임연구원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수료, 중앙대학교
주요 연구분야는 국토정보 및 국가GIS정책이다. 주요 연구실적으로 「공간정보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한 국가GIS전략 연구」(2007), 「방재국토 구축을 위한 GIS 활용방안연구(I)」(2005), 「국가GIS중장기 정책방향 연구」(2004), 「2004년 국토조사사업연구」(2004), 「국토종합정보체계 구축 및 추진전략 수립연구」(2003), 「지리정보기반의 지역 간 격차분석연구」(2002), 「GIS사업의 효과측정기법 및 적용연구」(2001) 등 다수가 있다.

한선희 책임연구원

전자계산학 학사, 동국대학교
주요 연구분야는 통계 및 GIS다. 주요 연구실적으로 「재정투자과급효과측정시스템 개발 및 국가발전지수 정립 연구(I)」(2007), 「북한지역 국토이용실태 조사방안 연구」(2006), 「時空自在의 세상을 향한 사이버국토 창조방안(III)」(2005), 「제3차 국가GIS 기본계획 수립 연구」(2005), 「접근불능지역의 지리정보 구축방법」

(2004), 「지리정보의 정확도 측정방법에 관한 연구」(2002), 「고해상도 위성영상을 이용한 토지이용실태 분석연구」(2001) 등 다수가 있다.

김대중 책임연구원

현재 University of New York at Buffalo, GIS, Urban & Regional Analysis Division in Department of Geography, Ph.D 과정 중.

김미정 책임연구원

지리학 박사, 건국대학교
주요 연구분야는 토지정보화 및 GIS다. 건설교통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주요 연구실적으로 「2007 국가GIS 자원연구 - 표준」(2007),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구축방안 연구」(2005), 「제3차 국가GIS기본계획 수립연구」(2005),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구축방안 연구」(2005), 「국토이용모니터링 구축방안 연구」(2003), 「토지종합정보망 구축사업 운영관리」(2000~2005) 등 다수가 있다.

임은선 책임연구원

지리학 박사, 건국대학교
주요 연구분야는 공간분석 및 GIS다. 주요 연구실적으로 「국토정책의사결정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연구」(2007),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KOPSS)구축 연구」(2007), 「도시성장관리를 위한 공간구조 측정방법에 관한 연구」(2006), 「시공간통합 국토시뮬레이션모형 개발 연구」(I, II)(2005~2006), 「時空自在의 세상을 향한 사이버국토 창조방안(II)」(2005), 「제3차 국가GIS 기본계획 수립 연구」(2005), 「GIS기반 공간분석방법론 적용연구」(2004) 등 다수가 있다.

조춘만 책임연구원

도시 및 지역학 박사, Texas A&M University
전공분야는 도시계획을 위한 공간분석 및 정보기술의

활용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유비쿼터스도시, PPGIS (공공참여를 위한 GIS의 활용) 등 도시계획을 위한 GIS/IT 응용이다. 주요 연구실적으로 「U-City구현을 위한 계획체계 정비방안 연구」(2007), 「지능형 도시 지하시설물 관리기술 개발 연구」(2007), 「행정중심복합 도시기본계획수립 연구」(2006), 「U-City구현을 위한 국가전략 연구」(2006), 「개발가능지의 합리적 선정을 위한 토지형상기준 도입방안 연구」(2005), 「광역대중 교통체계 기반의 포천신도시 개발전략 연구」(2004-2006), 「파주시 토지적성평가를 위한 연구」(2004) 등이 있다.

김 결 책임연구원

지리학 박사, Florida State University

전공분야는 도시지리학, 정치경제지리학, 계량지리학 및 GIS이며,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겸임교수로 활동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도시재생과 공간의사결정지원시스템이다. 연구실적으로 「GIS를 활용한 난개발 상시감시체계 구축방법 연구」(2006), 「국토공간계획지원 체계 구축」(2006, 2007), 「국토정책의사결정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 연구」(2007), 「지자체 공간정보화 수준 분석 및 역량제고 방안」(2008) 등 다수가 있다.

이영주 책임연구원

Media and Governance 박사, KEIO University

주요 연구분야는 국가GIS정책 및 Business GIS다. 주요 연구실적으로 「공간정보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한 국가GIS 전략 연구」(2007), 「'07 국토통합정보시스템 기반연구」(2007), 「2007년도 국가GIS지원연구」(2007), 「2006년도 국가GIS지원연구」(2006), 「제2차 국가GIS사업 백서」(2006), 「제3차 국가GIS기본계획 수립연구」(2005) 등 다수가 있다.

김동한 책임연구원

도시계획학 석사, University of Illinois at Chicago

주요 연구분야는 국토정보화 및 공간정보기술 활용이다. 주요 연구실적으로 「u-City 구현을 위한 계획체계 정비방안 연구」(2007), 「GIS를 활용한 난개발 상시 감시체계 구축방법 연구」(2006), 「시공간통합 국토시물레이션모형 개발 연구(I)」(2005), 「전자지방정부 구현을 위한 GIS활용방안 연구」(2004), 「국토종합정보체계 구축 및 추진전략 수립연구」(2003), 「국가공간정보기반 구축을 위한 전략계획 수립연구」(2002) 등 다수가 있다.

강혜경 책임연구원

지형정보공학, 부산대학교

ISO/TC211 WG10에서 ISO19151 프로젝트 책임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주요 연구로는 「Dynamic Position Identification Scheme for Ubiquitous Space(u-Position)」(2008), 「A framework for dynamic updates of map data in mobile devices」(2007), 「다중축척 공간 데이터의 축소연산자를 위한 위상관계 일관성 평가」(2005), 「Data Update Across Multi-Scale Databases」(2004) 등이 있다.

서기환 연구원

지리정보학 석사, 경북대학교

주요 연구분야는 국가GIS정책, 시민참여GIS 및 공간 분석이다. 주요 연구실적으로 「공간정보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한 국가GIS전략 연구」(2007), 「북한지역 국토이용실태 조사방안 연구」(2006), 「남북교류증진을 위한 북한지리정보 구축방안 연구」(2005), 「제3차 국가GIS기본계획 수립연구」(2004), 「국토종합정보체계 구축 및 추진전략 수립연구」(2003) 등 다수가 있다.

09

c h a p t e r VI

동북아발전연구센터

1) 연구실 소개

동북아발전연구센터는 경제의 세계화 및 지역화에 대응하는 국토 및 지역개발의 광역적 전략을 수립하고 통일에 대비한 토지, 주택, 사회간접자본, 산업, 환경 등의 부문별 연구를 축적하면서 동북아지역 및 한반도 통합을 위한 장단기 정책개발의 연구수행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동북아발전연구센터에서는 그동안 수행해 온 북한 및 동북아지역 연구를 바탕으로 중국과 러시아 등 한반도 인접국가의 지역경제, 산업개발과 입지, 사회간접자본 및 도시개발 동향을 분석하고, 한반도와 주변지역, 그리고 남북한과의 연계 및 동반개발을 위한 가능성을 탐색함으로써 국토개발의 거시적 정책방향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동북아도시 비교연구, 지역발전 계획 및 전략 수립

- 동북아지역 도시 및 지역개발 동향분석
- 동북아 산업협력 및 입지전략
- 통일에 대비한 분야별 장단기 정책개발
- 남북한 협력 및 인프라 개발전략
- 비무장 지대 및 남북한 접경지역 평화적 이용방안 모색

2) 연구진 소개

김영봉 연구위원

경영학 석사, 서강대학교

현재 동북아발전연구센터 소장을 맡고 있으며, 북한 및 군사시설 분야 전문가로서 미시간주립대학 국제전문가 초청과정을 수료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 정책전문위원, 통일교육위원 등을 역임하였다. 주요 연구로는 「북한 주요항만과 배후산업단지 개발전략에 관한 연구」(2007), 「북한 관광자원의 효율적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2006), 「북한강유역의 남북한 평화적 이용방안」(2005), 「평화벨트 구축을 위한 서해 남북접경지역 이용방안」(2004), 「경의·동해선 연결과 접경지역 평화벨트 구축방안」(2003),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실태와 관리방안」(1999),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전략지역 활용방안」(1998) 등이 있다.

김원배 선임연구위원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 University of Wisconsin at Madison

동북아 도시 및 지역경제 분야 전문가로서 하와이 동서문화센터 연구위원, 동아대학교 조교수, 하와이대학교 부교수 등을 역임하였다. 주요 연구로는 「동북아 핵심경제지역의 발전 전망과 연계망 구축(I)」(2007), 「베세토 비즈니스 회랑 구축 제안-동북아 교통망의 비전과 실천」(2007), 「한반도 기반시설 개발의 기본구상 연구(I)」(2006), 「환동해경제권 형성을 선도하기 위한 동해안지역의 대외전략」(2005), 「한일해협권 통합지역경제 기반구축을 위한 전략」(2005), 「러시아 연해주에서의 자원·인프라 개발을 위한 한·러 협력방안」(2003), 「동북아 협동적 지역개발의 사례분석과 이론모색」

(2002), 「21세기 동북아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전략」(2001), 「동북아 협동적 지역개발의 사례 분석과 이론모색」(2002), 「21세기 한반도 경영전략 : 지경학적 접근」(1999), 「Culture and the City in East Asia」(1997), 「Asian NIES and the Global Economy」(1995) 등이 있다.

이상준 연구위원

공학 박사, Technical University of Berlin

도시개발 및 북한 국토·도시 분야 전문가로 주요 연구로는 「한반도 기반시설 개발의 기본구상 연구(Ⅱ) -기반시설 개발의 추진체계와 재원조달」(2007), 「통일 이후 구 동독의 도시정책과 시사점」(2006), 「남북인프라 협력사업의 통합적 추진방안 연구」(2005), 「동북아 협력시대의 북한 경제특구 활용전략」(2004), 「북한의 개혁·개방과 산업인프라 개발의 새로운 과제」(2003) 등이 있다.

이승복 연구위원

경영학 박사(자원환경관리), 단국대학교

하천 및 대체수자원, 환경 분야 전문가로서 주요 연구로는 「하천의 연계성 확보를 위한 하천관리체계 모색 연구」(2006), 「대체수자원 확보에 관한 연구」(2006), 「효율적인 빗물관리방안 연구」(2005), 「홍수피해 특성 분석 및 홍수피해 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2005), 「하천 범령 및 제도 개선방안 연구」(2004), 「국토개발사업의 환경가치평가 기준설정과 적용에 관한 연구」(2004) 등이 있다.

조진철 책임연구원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 Portland State University

동북아 및 북한분야 전문가로서 한국개발연구원 정책대학원 연구개발팀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주요 연구로는 「북한 주요항만의 배후산업단지 개발전략 연구」

(2007), 「개성공단 및 남북한 서해안 연안지역 개발전략 연구」(2006), 「국책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사회 합의형성시스템 구축방안 연구」(2005), 「북한강 유역의 남북한 평화적 이용방안」(2005), 「평화벨트 구축을 위한 서해 남북접경지역 이용방안」(2004), 「군사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시범지역 사례연구」(2004), 「북합관 광레저단지 활성화 방안 연구」(2004) 등이 있다.

김은정 책임연구원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 Texas A&M University

주요 연구로는 「Environmental Influences on Outdoor Usage in Assisted Living Facilities」(2008), 「Health Disparity and the Built Environment: Spatial Disparity and Environmental Correlates of Health Status, Obesity, and Health Disparity」(2007), 「The Impact of Alternative Tax Systems on Regional Disparity in Korea」(2005) 등이 있다.

10

c h a p t e r VI

도시혁신지원센터

1) 연구실 소개

도시혁신지원센터는 지방자치단체의 역량강화와 시민 참여 확대를 통한 도시의 혁신적인 발전을 지원하고, 현장과 정책의 연계를 통해 도시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문 및 교육지원, 국내외 주요 도시 DB축척 및 세계도시정보(UBIN)운영, 시민단체 및 일반시민의 학습기회 제공과 함께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도시혁신관련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도시·마을 만들기 역량강화 지원

- 국내외 주요 도시 DB구축 및 세계도시정보웹사이트(UBIN, Urban Information network) 운영
- 살고싶은 도시·마을 만들기 기획서 및 번역서 발간
- 미국, 유럽, 일본 등 공무원 해외 연수프로그램 운영

정부와 시민사회단체 및 학술단체 간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지원

-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지원협의회 운영
- 시민사회단체 및 학술단체와의 공동연구

도시혁신 관련 정책수요 발굴 및 연구

-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혁신도시, 기업도시 관련 연구 및 지원업무 등
- 도시혁신 관련 국내외 세미나 개최

2) 연구진 소개

진영환 선임연구위원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 Cornell University

「시민이 참여하는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사례편」(2007), 「행정중심복합도시 기본계획」(2005), 「신행정수도 기본구상 및 입지기준」(2003), 「수도권 등 광역도시계획수립」(2001), 「제4차 국토계획수립」(1999), 「개발제한구역 조정」(1998) 등의 연구를 수행했으며, 국토연구원 부원장, 기획조정실장, 국토계획연구실장, 지역·도시연구실장을 지냈다.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한국지역학회 회장, 건설부장관 자문관을 지냈으며 현재 도시혁신지원센터 소장과 중앙도시계획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권영섭 연구위원

행정학 박사, 서울시립대학교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전략산업 클러스터 육성방안」(2007), 「지방도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혁신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연구」(2006), 「지역특성화 발전을 위한 혁신 클러스터 육성방안 연구」(2005), 「정보통신기술(ICT)산업의 지역간 기능분담방안 연구」(2004), 「지역별 지식기반산업과 지역혁신체계 구축방안」(2003), 「지식기반산업의 입지특성과 지역경제활성화 연구」(2002), 「시범 테크노파크사업과 지역혁신체계 구축」(2001), 「지역 지식기반산업육성을 위한 잠재력 제고방안」(2000) 등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류승한 연구위원

지리학 석사, 동국대학교

「시민이 참여하는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 사례편」(2007), 「자립적 지역발전을 위한 잠재력 분석 연구(II)」(2005), 「산업입지 제도개편 방안 연구」(2005), 「환경친화적 산업입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2004), 「Environment-Friendly Industrial Park Development Guidelines : The Cases of Cikarang and Bitung in Indonesia」(2002) 등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조판기 책임연구원

행정학 석사, 서울시립대학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에서 전문위원으로 근무하였으며, 행정자치부 자체평가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주택·도시정책이며, 특히 도시의 물적 기반이 형성되어 온 과정과 요인에 대한 관심이 많다.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선진사회를 향한 토지정책 방향 및 추진 연구 전략(II)」(2007), 「토지보상체계 개선방안 연구」(2004), 「공공택지 조성 및 공급제도 발전방안 연구」(2004), 「택지개발지구 자족성 강화방안 연구」(2004), 「도시개발의 재정영향분석 연구」(2002), 「서민주거안정과 주거기준 달성연구」(2002), 「도시경쟁력 비교분석 연구」(1998) 등이 있다.

김진범 책임연구원

도시·지역계획학 박사, University of Tsukuba

주요 관심분야는 계획이론, 커뮤니티플랜, 지역시설계획 등이다. 주요 연구로는 「제주광역시도시계획 수립 연구」(2007), 「광역시 개발계획의 평가와 진단」(2006), 「평택시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연구」(2005), 「일본 키타큐슈시의 공항 선택선호의식에 관한 연구」(2004), 「일본 도시계획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2004), 「필리핀 다바오시의 불법점거거주자와 이전거주자의 거주환경 선호의식」(2003), 「기혼 취업여성의 출산행동에 미치는 보육시설의 효과」(2002) 등이 있다.

김은란 책임연구원

지역과학 박사, Cornell University

주요 관심분야는 창조경제, 인적자본, 지역개발이다. 주요 연구 및 프로젝트 실적으로는 「수도권 계획적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2007), 「정보직종과 미국 대도시권 사회경제적 환경」(2006), 「뉴욕시 텔레비전과 영화산업 계획」(2004), 「뉴욕주의 창조경제: 예술과 경제개발」(2004), 「뉴욕주 경제 현황」(2004), 「뉴욕주 산업구조와 산업특화」(2003), 「뉴욕주 북부지역의 경제 실태에 대한 연구」(2002) 등이 있다.

정윤희 연구원

도시공학 석사, 연세대학교

「시민이 참여하는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사례편」(2007), 「건설교통관련 공공갈등 매뉴얼 구축에 관한 연구」(2006),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개발 투자재원 확보방안 연구」(2005), 「도시계획결정과정과 사회적 정의에 관한 연구」(2004), 「공공시설 입지갈등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연구」(2004), 「지역발전을 위한 거버넌스체제 구축 및 운용방안」(2003), 「외국인 직접투자기업의 유형별 입지특성과 지역연계 연구」(2002) 등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승욱 연구원

도시공학 학사, 한양대학교

주요 연구로는 「혁신도시 개발을 위한 해외전문가 자문 및 활용방안 연구」(2007), 「혁신도시 개발을 위한 해외 선진사례 연구 및 국제세미나 연구」(2006), 「행정중심 복합도시 국제공모관리 및 기본계획수립 연구」(2005) 등이 있다.



c h a p t e r VI

행정부서

1) 행정부서 소개

연구지원부서는 연구혁신본부, 행정실, 커뮤니케이션센터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혁신본부는 연구 전반에 대한 장·단기 업무의 기획, 연구원의 예산편성 등을 주요업무로 하며, 내부혁신을 고취시킴으로써 효율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행정실은 연구와 관

련된 사무행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커뮤니케이션센터는 홍보 및 대외기관 간 협력업무, 정보네트워크와 도서관, 출판물 기획·편집 등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2) 주요 연구진 소개

박재길 선임연구위원(연구혁신본부장)

공학(도시계획) 박사, The University of Tokyo
「살고싶은 도시만들기와 도시계획의 역할에 관한 연구」(2006), 「도시관리계획의 토지이용 관리기능 제고 방안 연구」(2006), 「행정중심복합도시 국제공모 관리 및 기본계획 수립연구」(2006),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추진방안 연구」(2005), 「도시계획결정과 사회적 정의에 관한 연구」(2004) 등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지역·도시연구실장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연구혁신본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건설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위원 등을 역임하였고, 건설교통부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장철순 책임연구위원(연구조정팀장)

도시계획학 박사과정 수료, 서울대학교
도시 및 지역계획·개발 전문가로 산업입지 및 낙후지역 정책 등 지역계획 전반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2004년 재정경제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에 파견 근무 하였다. 주요 연구로는 「제주도 관리보전지역 재정비 용역」(2006), 「산업입지제도개편 연구」(2005), 「지식기반산업의 군집형성요인에 관한 연구」(2005),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개발계획 수립연구」(2003), 「지식기반산업의 입지정책연구」(2003), 「산업입지 공급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2002) 등이 있다.

양진홍 책임연구위원(혁신전략팀장)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과정 수료, 중앙대학교
국토계획 분야 전문가로서 건강문화생태회랑 및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시·군) 자문위원 등을 역임하였으며, 주요 연구로는 「통합국토를 향한 지역 간 공동발전방안연구(II)」(2004), 「구미국가산업단지 지원기능강화방안연구」(2004),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전략사업의 추진평가와 개선방안 연구」(2001) 등이 있다.

김중은 연구원

공학 석사, 서울대학교
「인구저성장시대의 도시관리정책 방향 연구」(2005), 「도시계획결정과정과 사회적 정의에 관한 연구」(2004), 「신행정수도건설 추진을 위한 기본구상 연구」(2003), 「행정수도 이전의 효과분석 및 국내의 사례조사 연구」(2003) 등의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건설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전문위원(2006~2007)으로 활동하였다.

부록. 색인

[	1. 과제명 색인	198
	2. 연구자명 색인	200

1. 과제명 색인

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한 상생협력 방안	62
공간정보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한 국가GIS 전략 연구	68
공공사업 감등지표 설정과 활용방안 연구	20
공공성을 고려한 도시계획시설의 합리적 공급방향: 민간참여형 복합이용시설을 중심으로	36
공공택지 공급방식의 다양성 확보방안: 대지임대부 주택공급제도를 중심으로	40
국가공간정보에 대한 세계측지계의 체계적 적용방안	69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전략산업 클러스터 촉진방안	21
국민임대주택 수요추정 연구	41
국토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보호지역의 위계정립 및 관리방안	30
국토정보화 혁신을 위한 지능형국토 추진방안(I) - 개념과 기본모형 정립을 중심으로 -	70
국토정책의사결정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 연구	71
균형발전의 공간적 영향과 정책과제	22
노인주거복지 제고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연구: 고령자 생활패턴 분석을 통한 주거환경 편리성 개선방안 연구	42
농촌지역 특성의 진단지표 개발과 정책적 활용방안	23
농촌활력 증진을 위한 농촌토지이용의 계획적 관리방안	43
대규모 개발사업 주변지역의 토지시장 안정화 방안	44
도로공간의 복합적 기능 활성화 방안 연구: 도시내 도로를 중심으로	54
도시녹지의 분포특성에 기초한 녹지총량산정에 관한 연구 - 수도권지역을 사례로 -	31
도시주변부 녹지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경제적 보상방안에 관한 연구	37
동북아 핵심경제지역의 발전 전망과 연계망 구축(I) - 지역현황 및 발전 전망과 지역연계 분석 -	74
디지털국토 기반조성을 위한 통합교통정보 인프라 구축방안	55
미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국토 어메니티 발굴과 창출전략 연구	32
민간투자제도의 내실화를 위한 추진단계별 개선방안	63
베세토 비즈니스 회랑 구축 제안 - 동북아 교통망의 비전과 실천 -	75
부동산 증개품질 향상방안 연구: 증개대상물 확인 · 설명서 세분화 방안을 중심으로	46
부동산시장의 환경변화에 대응한 정책변화 연구	45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II): 시민이 참여하는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사례편)	78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III): 커뮤니티 중심의 도시정비 활성화 방안	38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해외사례 단행본 번역 · 출판과제(II)	79
선진사회를 향한 토지정책 방향 및 추진전략 연구(II)	47

영국의 우트와트 보고서	48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개발정책의 혁신방안	24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56
재정투자과급효과측정시스템 개발 및 국가발전지수 정립 연구(I)	25
전국 도로망체계 발전방안 연구(I) - 국토간선도로망 구축 성과평가와 재편 구상 -	57
전환기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정책 재정립 방안(I)	64
주택수급 여건변화에 대응한 주택공급체계 개편방안: 주택보급률 110%초과, 고령화 및 저출산에 대한 대응	49
중장기 건설보증시장 전망과 대응방안	65
지방분산·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의 대응과제(III)	26
첨단기술지역의 출현과 발전과정에서 쾌적성의 역할	27
초기 유비쿼터스 환경과 대도시권 교통정책에 관한 연구	58
최저주거기준을 활용한 2006년 주거복지 소요추정 연구	50
한·중 토지정책연구(VII): 토지정책의 중앙·지방 간 역할분담	51
한국형 부가가치물류클러스터 창출 방안 연구	59
한반도 기반시설 개발의 기본구상 연구(III) - 기반시설 개발의 추진체계와 재원조달	76
환경용수 확보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분담과 정책과제	33
BSC구축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효과적인 성과관리 방안 연구	66
u-City 구현을 위한 계획체계 정비방안 연구	72
2003년 지역간 산업연관표의 구축	28
2007년 국내외 부동산시장 및 정책 동향 연구	52

2. 연구자명 색인

강미나	41, 42	김형진	38
강병수	27	김혜승	42, 50
강호제	26	김호정	25, 57
고용석	55	류승한	78
권영상	36, 78	류재영	54, 56, 75
권영섭	21, 27	마이클 오딘	27
권혁진	62, 65	문정호	26
김 길	71	민법식	38
김경석	59	박경현	22, 23, 26
김광구	20	박상우	28
김근용	49, 52	박순업	79
김동한	72	박은관	38
김명수	30	박재길	38
김미정	25	박정은	30
김민철	64	박종택	23, 68
김상욱	20	박준화	26
김상조	36	박천규	45
김선희	32	박형서	20
김성일	66	배경화	66
김승중	43	배순석	49
김영표	25	변세일	21, 28
김원배	74, 75, 76	변창흠	48
김재영	52, 62, 65	변필성	24
김정훈	72	사공호상	68
김종원	33	서기환	68
김종학	58	서민호	75
김진범	78	서순탁	48
김창현	23, 33	서연미	30
김태환	21	서용철	68
김현식	32	서태성	26

손경환 45, 52
 손동욱 38
 송하승 44, 47, 52
 신동빈 69, 70
 신희동 46
 심우배 33
 안용진 36
 안홍기 64
 엄상근 31
 오성호 55, 75
 와타나베 순이치 38
 왕광익 36
 유재윤 64
 윤운정 32
 윤하중 63
 이문원 32
 이미영 57
 이백진 55, 58
 이범현 37
 이상건 55
 이상준 76
 이수옥 45, 52
 이순자 20
 이영주 68
 이왕건 37
 이용우 24
 이우진 54
 이원섭 22, 24, 26
 이종열 28, 71
 이춘용 54

임영태 56, 58, 59
 임은선 71
 장은교 20
 장철순 24
 전대윤 30
 전성제 42, 49
 정문섭 70
 정선영 57
 정옥주 26
 정윤희 78, 79
 정일호 57, 63
 정진규 58
 정희남 40, 46, 48, 51
 조창제 31
 조춘만 72
 조판기 44, 46, 78
 지대식 43, 45
 진영환 78, 79
 차미숙 32
 채미옥 44, 47, 48
 최병남 71
 최 수 40, 47, 52
 최영국 30, 31
 최혁재 37, 43
 한동근 33
 한선희 25
 홍정열 56
 황경수 31
 황주영 46

연차보고서 발간 전담반

반장 윤여훈 커뮤니케이션센터 소장

반원 박태선 연구위원

고용석 책임연구원

이영아 책임연구원

박경현 연구원

박정은 연구원

박찬호 연구원

박천규 연구원

서기환 연구원

이승훈 연구원

최창영 연구원

최영미 전문원

한여정 전문원

간사 박순업 문헌출판팀장

(직급별 가나다순)

2007 국토연구원 연차보고서

발행자 · 최병선

발행처 · 국토연구원

출판등록 · 제2-22호

인쇄 · 2008년 3월 25일

발행 · 2008년 3월 28일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로 224(431-712)

전화 · 031-380-0114(대표)

팩스 · 031-380-0474

<http://www.krihs.re.kr>

©2008, 국토연구원

* 이 보고서의 내용은 국토연구원의 자체 연구물로서 정부의 정책이나 견해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